

건축사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건축사회관 우편번호 : 137-87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gods@kira.or.kr
<http://www.kira.or.kr>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53 / January / 2007

0701

칼럼

돼지 같은 회장을 뽑자

시론

격조 있는 도시경관을 위하여

회원작품

예화랑

더샵 센텀파크

더미켈란

천안시청사

KT&G 상주지점

민제루(浸濟樓)

서울숲 생태습지원

계획작품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청 청사 신축공사

기획연재

패션게임 - 소비의 사막

2006년도 제2회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건축사_책을 말한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단열재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친환경 단열재 에너포르(ENERPOR)는 자연 그대로의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신소재 단열재 - 에너포르



고열효율 단열재로 연료 절감
유기질로 합성된 독립기포 구조층으로 인한
고열효율로 연료가 절감됩니다.



건강 우선시하는 웰빙 단열재
독립기포구조로 수분, 습기,
세균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차별화된 단열재입니다.



안목치수 적용 용이로 높은 공간 활용도
저밀도에서 열관류율 적용시 단열재의
허용 두께를 15~20%까지 절감해
내·외벽 두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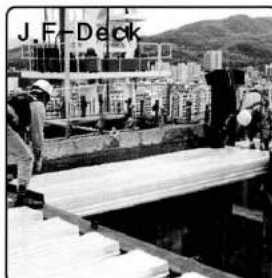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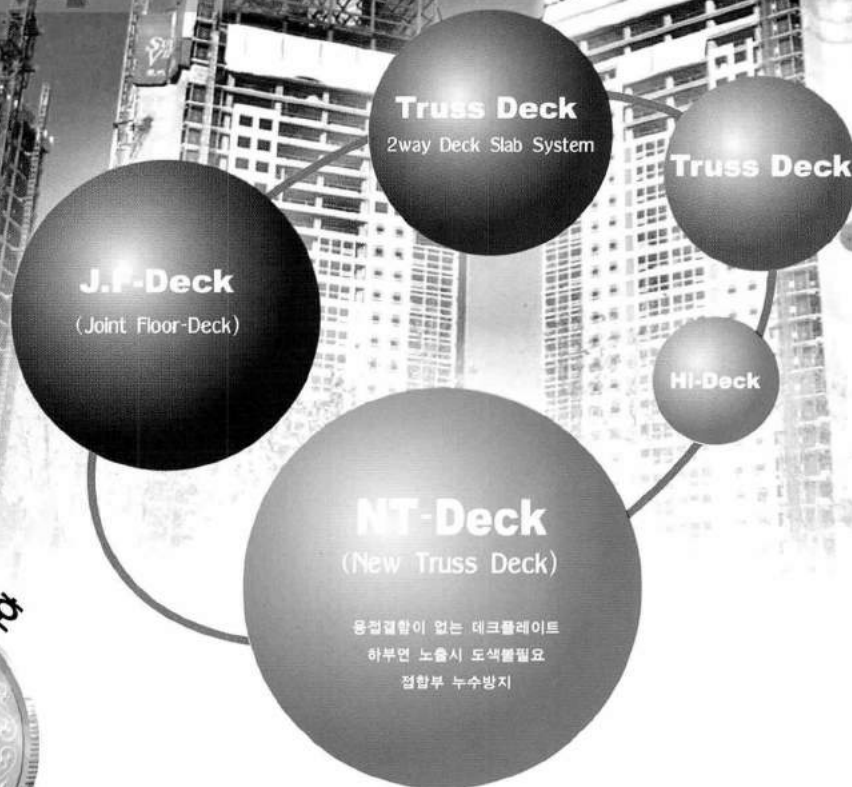
원료비 절감으로 합리적인 가격
발포 배수를 높여 비중을 낮추고
우수한 열전도율을 유지함으로써
원료비가 절감됩니다.

특허출원(10-2004-0078931호)



'가' 등급 단열재 획득!
에너포르(ENERPOR)는 동일한
비중의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을 10~20% 향상시킨
신기술 제품입니다.

-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서 취득
(제 2005-153호)
- 산자부기표원 EM MARK 취득
(2005-046호)
- 대한건축학회인증
- 한국구조기술사회인증



대리점모집

Gray

Green

Cedar

Acadia

Mahogany

합성목재 CorrectDeck

KOREA DISTRIBUTOR

천연목분(단종나무) 60% 함유

방부 / 방수 / 방염 / 도장 불필요

방부목 대체 친환경 자재

유지 보수 불필요

표면 미끄럼방지 처리

콘크리트보다 뛰어난 표면강도

간편한 시공



(주)아론물산

ARON COMMERCIAL

www.correctdeck.co.kr

본사/물류센터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110-11

Tel : 031)767-8695~7 Fax : 031)767-8698

전시장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92-6

Tel : 031)768-7650 Fax : 031)766-7652

**SMART
PARKING®**



CE



“좋은 주차기를 선택하는 기준”

- ✓ 조작이 쉬운가?
- ✓ 잔고장이 없는가?
- ✓ 소음없이 조용한가?
- ✓ 도시 미관에 어울리는가?
- ✓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동양PC의 SMART PARKING은
유럽안전규격인 CE마크를
획득한 제품으로 유럽 등지에
수출하는 주차기입니다.

DYPC

동양PC주식회사
DONGYANG PC, INC.

TEL: 02-2634-3764
www.dysmart.com

달콤한 차이! 한 층의 차이가 보입니다

건물 높이 제한 때문에 고민하셨습니까? 층고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층고를 줄여 10층 높이에 11층을 지을 수 있는 혁신적인 플로어 솔루션인 슬림
플로어 공법. 현대제철이 함께 합니다. 현대제철 '슬림빔'은 국내 최초로 개발
된 압연 비대칭 H형강으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썩~ 줄이고, 임대면적과 수익
률은 확~ 늘려 드립니다.



현대제철 슬림빔 - 이것이 다르다



More Floors

- 층당 25~40cm 층고 절감으로 10개층에 1개층 추가 가능
- 분양면적, 임대면적 증가로 사업성 향상



Cost 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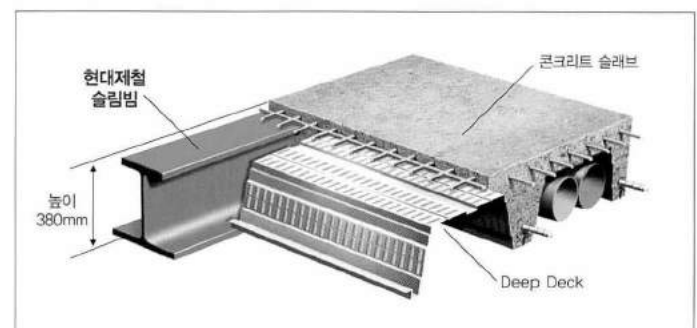
- 작은 보 생략으로 철골량 30% 감소
- 층고 절감으로 내외장재 비용 5~10% 절감
- 철골보의 하부플랜지만 내화피복 필요, 70% 비용절감



Fast Construction

- 철골량 감소 및 양중 수 감소로 제작 설치 기간 30% 단축
- 지하층에 적용시 토공사량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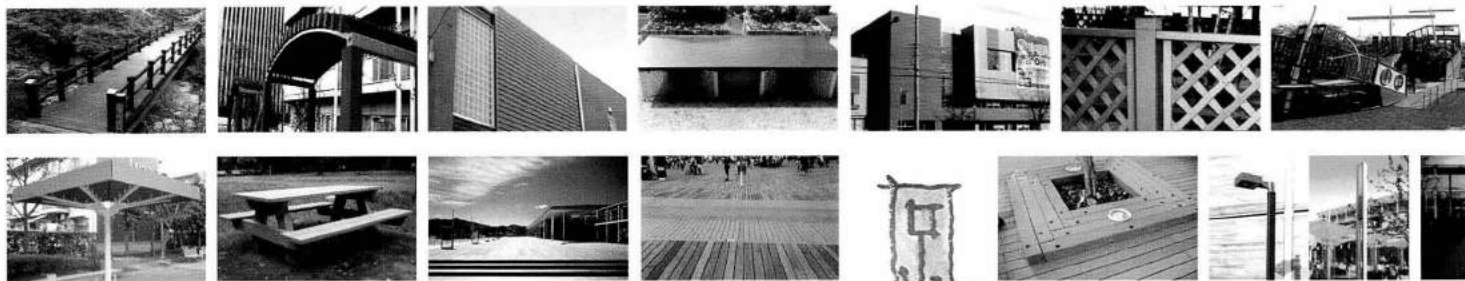
슬림플로어 공법



슬림플로어 공법은 홈이 깊은 데크플레이트를 슬림빔의 하부플랜지 위에 위치시켜 작은 철골보를 생략함과 동시에 층고를 줄이는 층고절감공법입니다. 현대제철 '슬림빔'은 하부플랜지가 상부 플랜지보다 긴 압연 비대칭 H형강으로 국내 최초로 현대제철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국내 적용 사례 : 청량리 삼성화재 사옥,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지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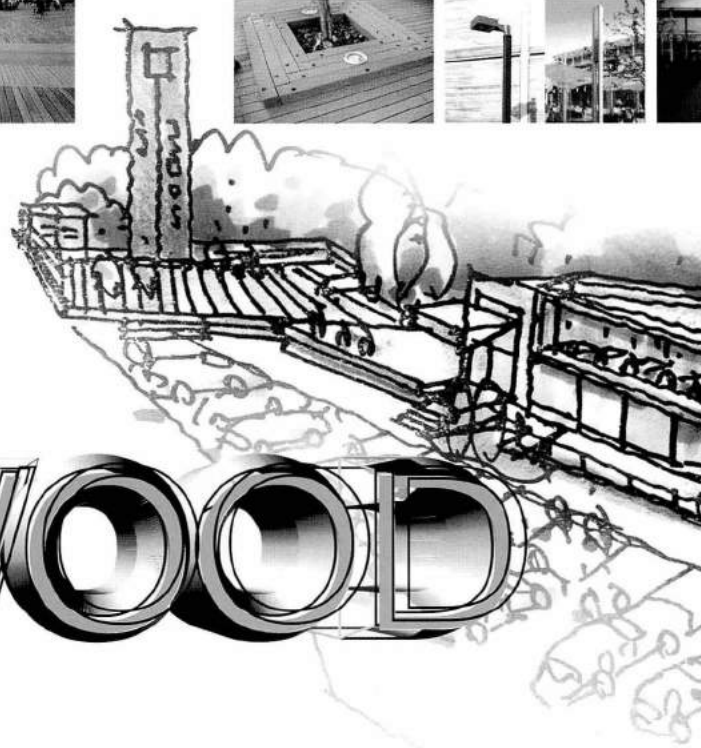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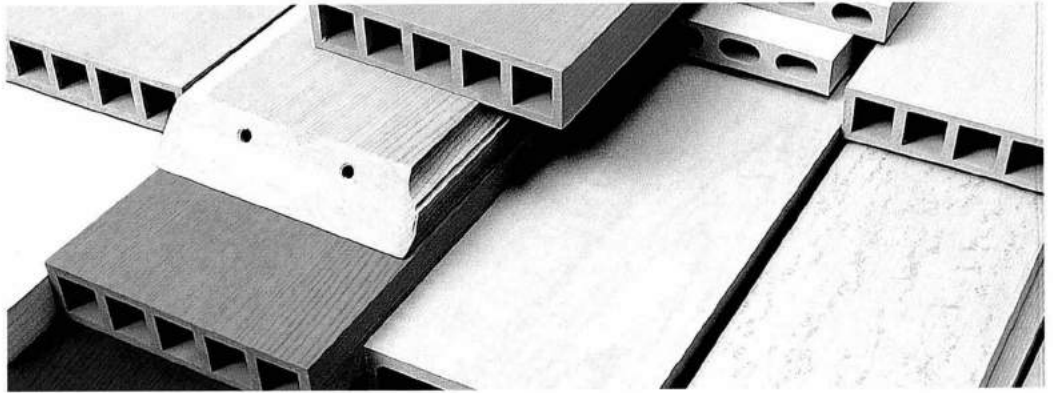
[이우드 파크!
천연목 느낌이 어느 곳에서도 돋보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이 만드는 첨단 소재과학

E-WOOD





21세기는 나무를 공장에서 만듭니다.

E-Wood™는 플라스틱과 나무 섬유가 견고하게 결합되어 만들어집니다.

얇은 플라스틱 막이 형성되어 물과 벌레들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고, 나무섬유 부분이 천연목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줍니다.

E-Wood™는 나무와 똑 같은 무늬, 촉감 그리고 나무의 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또한 유해균 서식이 불가능하고, 뛰어난 방수 효과로 제품이 썩지 않으며 부서지거나 쉽게 변형되지 않습니다.

E-WOOD™

서울시 논현2동 221-17 데코레빌딩 9층
Tel : 02-456-3252, Fax : 02-456-3251
<http://www.e-wood.co.kr>

▶ 수도권 총판

(주)청산조경 / (주)에코그린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16번지 정석빌딩 2층
Tel. 02-577-8895

▶ 대구, 경북 총판

BM산업개발주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629 15동 2층 19호
Tel. 0505-7979-100 / 053-767-3785

▶ 경남 총판

아이비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1동 1240-18번지
Tel. 052-223-6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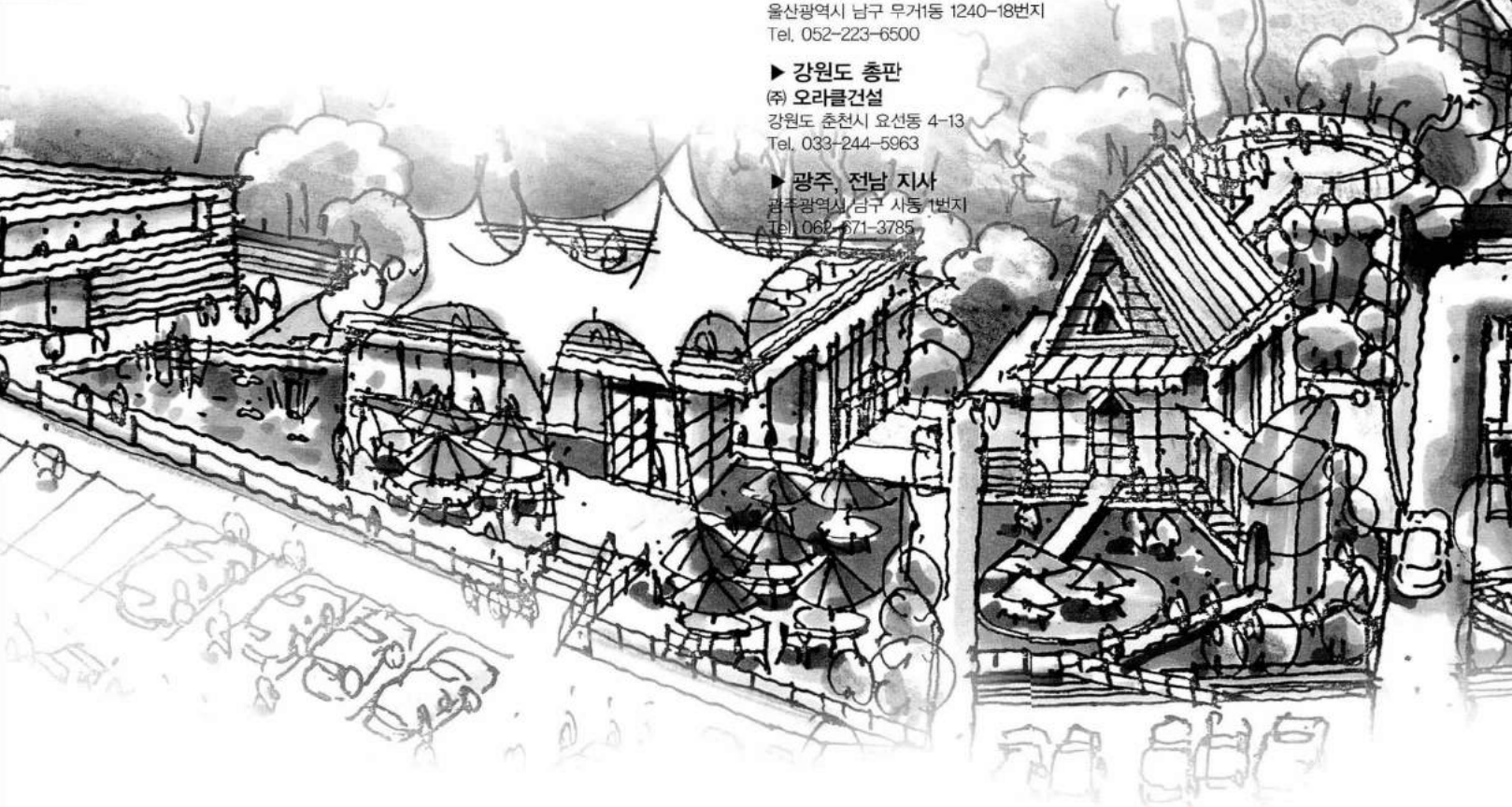
▶ 강원도 총판

(주)오라클건설

강원도 춘천시 요산동 4-13
Tel. 033-244-5963

▶ 광주, 전남 지사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1번지
Tel. 062-671-3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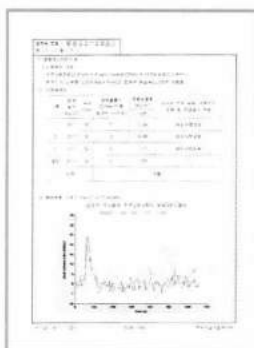


2007년부터 건물 지을때는 불에 잘안타는 프로폴판넬로 시공하세요!!

“2006년 12월 30일부터 개정 건축법 시행”

프로폴 판넬 난연2급 (준불연재료) 성능 획득!!

(KICT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성적서 번호 : 0612-1951)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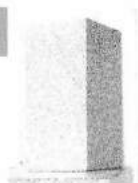
구분	시험결과
1. 난연성	난연성 2급 (준불연재료)
2. 연기독성	연기독성 2급 (준불연재료)
3. 열방출량	열방출량 2급 (준불연재료)
4. 기타	

“기술과 품질에서 영춘판넬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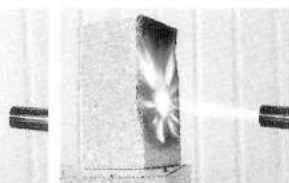


단열재 화염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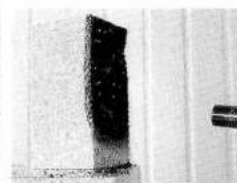
단열재 화염 테스트 결과
난연성에서 획기적인 제품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테스트 전



테스트 30초



테스트 60초

■ 제17회 MBC건축박람회 출품

▶ 일 시 : 2007. 2.1~2.5

▶ 장 소 : SETEC
(강남구 대치동 지하철3호선 학여울역)

■ 2007 하우징브랜드페어 출품

▶ 일 시 : 2007. 2.25~3. 1

▶ 장 소 : 코엑스

- ▶ 2001. 03 한국표준협회 KS표시인증.
(건축용철강제벽판, 지붕판)
- ▶ 2004. 11 난연3급 프로폴 판넬개발(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
- ▶ 2006. 06 특허청 특허등록.
- ▶ 2006. 06 중소기업청 성능인증획득.
- ▶ 2006. 08 ISO 9001 인증획득.
- ▶ 2006. 09 중소기업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증.
- ▶ 2006. 12 난연2급 성능획득(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상담문의

TEL : 033)261-8600

FAX : 033)262-6196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8-3

www.ycpanel.co.kr

다음, 야후, 네이버 검색창에서 **영춘판넬** 을 쳐주세요!

영춘판넬주식회사

※상용화 제품은 시험성적서의 시료와 동일한 제품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기준)

세 · 계 · 최 · 초 · 독 · 자 · 모 · 델 · 로 · 대 · 한 · 민 · 국 · 을 · 대 · 표 · 하 · 는 · 주 · 차 · 기 · 가 · 되 · 겠 · 습 · 니 · 다 .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실용신안등록 제20-0190325호

실용신안등록 제20-0246310호

실용신안등록 제20-0329557호



6年이 걸렸습니다.
턴테이블 내장형
개발완료!
시판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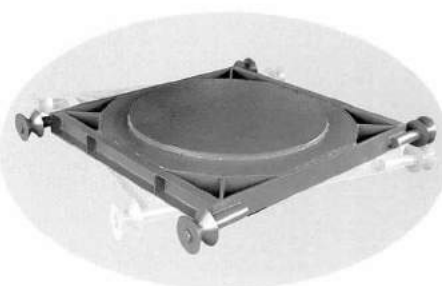
"2006 한국건축산업대전 참가전시광경"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세계적 특허방식인
유압리프팅 구동방식의 新메커니즘



자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 이렇게 다릅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 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 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 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주차"를 입력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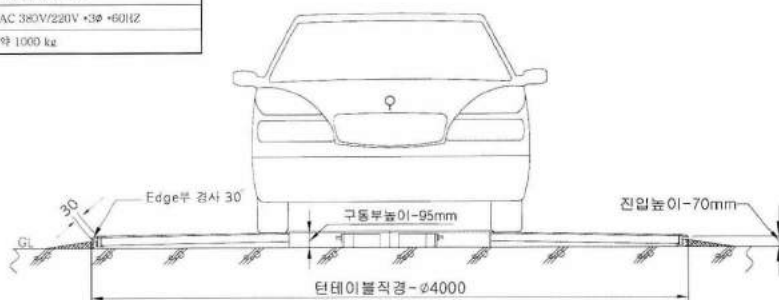
■ 사양 (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最小)	주차기 길이(最小)	소요높이(最小)
SKY PARK-5	5대	4570	6090	6830
SKY PARK-6	6대	4570	6090	7720
SKY PARK-7	7대	4570	6090	8600
SKY PARK-8	8대	4570	6090	9380
SKY PARK-9	9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대	4570	6090	13060

▼ 자매품 지상설치형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0mm!

실용신안등록 제20-0233726호

명칭	정	상세내용(인원)
수용 차량	중소형 승용차(무게 2000kg 이하)	
구동장치	구동방식	마찰 구동식
	구동모터	0.15 KW x 4P = 3개
	절리속도	약 1.80M
조작 방법	PUSH BUTTON	
전원 전원	AC 380V/220V *3Φ *60HZ	
차체 중량	약 1000 kg	



Since 1989

아주 특별한 주차기회사

(株)창공駐車産業

www.Juchagi.com

한글도매인 : 주차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전국 대표전화
(상담, A/S)

1544-3335

■ E-mail : cgp210@kornet.net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85-2번지 1층

■ 부산사무소 : 051)303-2296

■ FAX : 054)973-0067

A/S : 02)323-4448

■ 광주연락소 : 062)942-6923



이 지면을 채워주실 광고주를 모십니다.

월간 「건축사」지는 최고의 권위와 최대의 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 1966년 초판 발행
- 매월 10,000부 발행 및 전국 무료 배부
- 건축사사무소(건축사 약 8,200명)
- 건축관련 단체(협회 등) 및 전국 대학교
- 건축관련 정부기관, 연구소 등 무료배부



월간 「건축사」지 광고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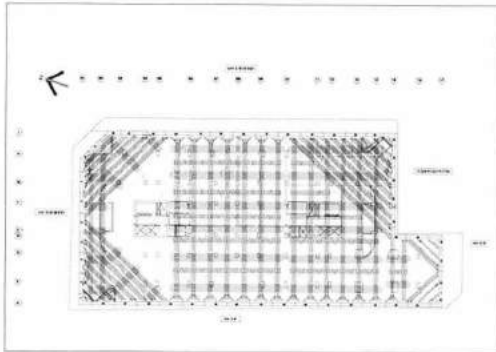
TEL : 02 581 5711~4, FAX : 02 586 8823

네 이웃을 섬겨라(마25:21)

흙막이 설계 감리 계측

부대토목 설계 및 측량

설계



감리



계측



측량



지반공학부 사업분야

- ◇ 흙막이 가시설 설계
- ◇ 토공사 감리 및 계측 관리
- ◇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 ◇ 부대토목설계(아파트, 학교, 공공청사)
- ◇ 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
- ◇ 분양가 연동제를 위한 공사비 내역서

본사 사업분야

-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종합)
- ◇ 감리전문회사등록(토목종합)
- ◇ 측량업등록(공공,수치,지하)
- ◇ 도시기본계획
- ◇ 택지개발사업
- ◇ 도시정비사업
- ◇ 관광지유원지, 골프장정비사업
- ◇ 역세권개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 ◇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인구)

Contents



26



32



38

건축사
korean architects

차례 2007 01 453호

신년사	이철호	16
칼럼	돼지 같은 회장을 뽑자	장양순 18
시론	격조 있는 도시경관을 위하여	박돈서 20
건축만평	유원재	23
회원작품	예화랑	진창훈 24
	더샵 센텀파크	이성인 30
	더 미켈란	이민관 36
	천안시청사	이영희·정영균·박승·이천규 42
	KT&G 상주지점	김동주·전영성 44
	민재루(民濟樓)·과천 양지마을 단독주택	박준승 48
	서울숲 생태습지원	한영호·김향년 52
현상설계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56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청 청사 신축공사	62
기획연재	패션게임 - 소비의 사막	구영민 67
건축마당	협회소식	79
	건축계소식	84
	건축인터넷정보	86
	2006년도 제2회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91
	통계	96
	2006년 총 목차	98
	해외잡지동향	100
	건축사 책을 말하다	106
	자재정보	107

발행인 이철호
 편찬위원 장양순, 양해운, 유원재, 박호건, 이관직, 이종훈, 신호근
 취재·편집 최락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 - 55 건축사회관
 우편번호 137-877
 전화 대표 (02)681-5711~4
 팩시밀리 (02)6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인쇄 청문사문화(주)
 광고문의 홍보판친팀



43



46



49



53

Korean Architects

Vol. 453

January 2007

Newyear address 16

Column
Piggy One for Our President! Chang Yang-soon 18

Focus
Upgrading the Urbanscape Park Don-soh 20

Cartoon
Works Yoo Won-jai 23

Gallery Yeh Shin Chang-hun 24

The# Centum Park Lee Seong-in 30

The Michelin Lee Min-kwan 36

Cheonan City Hall Lee Young-free & Jeong Young-gyon + Park Seung + Lee Chunkyu 42

KT&G Corporation Sangju Branch Office SUNJIN Engineering & Architecture 44

Sky-Bridge House Park Joon-Seung 48

Seoulforest Ecological Marshy Garden Office Han Kyung-ho & Kim Hang-nyeon 52

Competition

Chungmugong Yi Memorial Museum 56

Incheon Seobu Office of Education 62

Serial

Fashion Game : Desert of Consumption Koo Young-min 67

Architects' Plaza

Kira News 79

Archi-Net 84

Archi w.w.w 86

Statistics 96

2006 Annual Index 98

Overseas Journal 102

Book Review 106

Product Information 107

Publisher Lee Chul-ho
Assistant Editor Chang Yang-soon, Yang Hae-yun, Yoo Won-jai, Park Ho-gyun,
Lee Kwan-jick, Lee Jong-hoon, Shin Ho-guen
Editor Choi Rak-chung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신년사 | Newyear address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철호

존경하는 건축사 회원여러분!
2007년 丁亥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 회원여러분께서 협회와 건축계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돼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 새해를 맞아 회원여러분 모두 건강과 만복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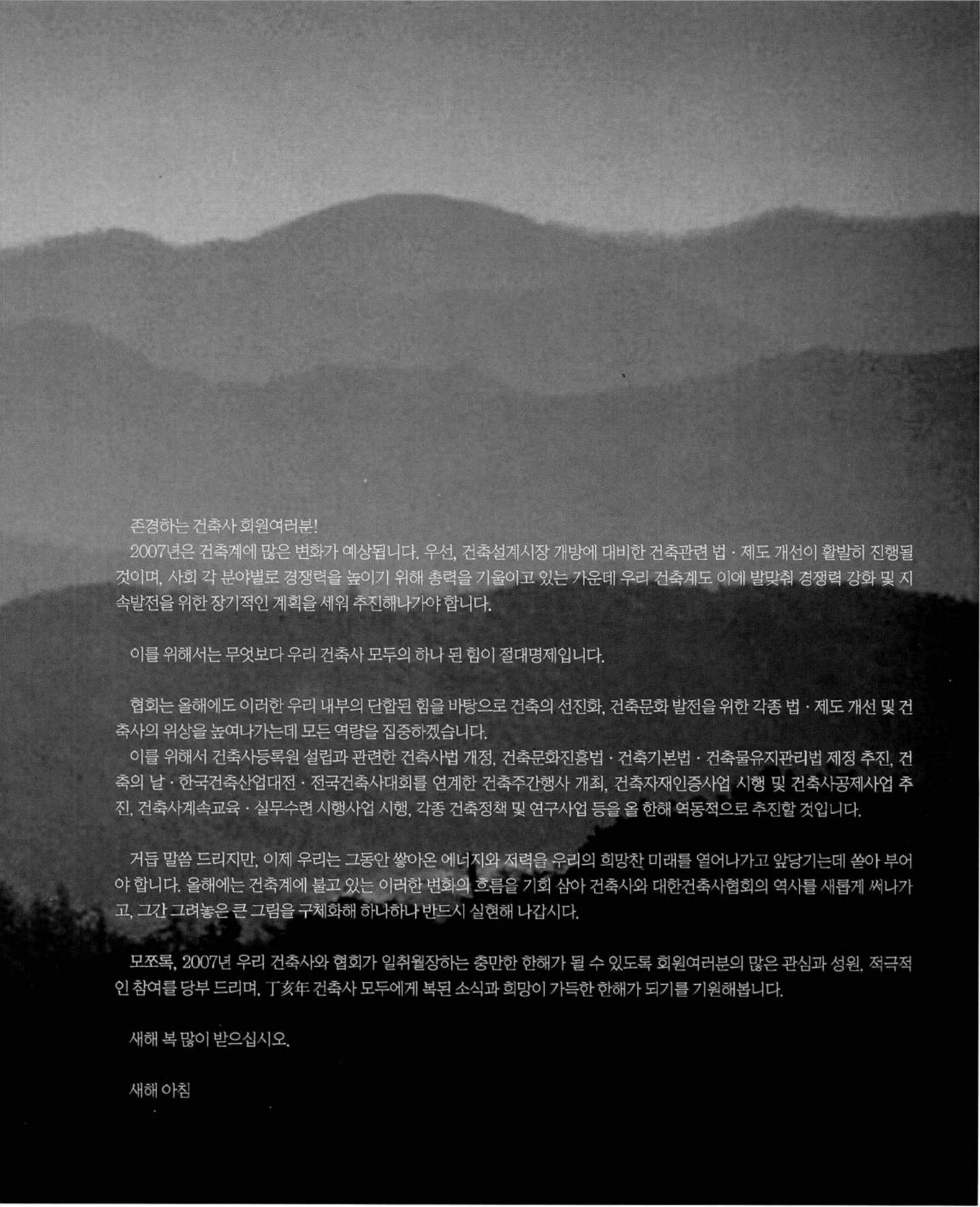
아시다시피 2006년은 협회가 많은 사업을 구상했고, 또한 많은 일들을 새롭게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이 모두가 침체된 건축계의 흐름을 바꾸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회원여러분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획기적인 전환점도 마련했고, 여러 뜻 깊은 성과를 거둔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 다시금 정부 주도하에 불거지고 있는 특정 대형건설회사의 설계업 허용 요구와 300세대 미만 감리회사의 감리 허용 문제로 명암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협회는 이러한 건축사의 自尊 및 生存權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여 회원여러분의 권익과 건축계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은 본 협회 이근창 부회장께서 아시아 17개국이 가입돼 있는 ARCASIA(아시아건축사협회의)의 회장으로 당선됐고, 이밖에도 2008년 아시아건축사대회 부산 유치와 세계건축사연맹 건축사실무위원회(PPC) 회의 서울유치 등으로 세계 속의 우리나라 건축사의 위상이 크게 신장된 한해였습니다. 또한, 협회가 건축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와 건축 관련 업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겨냥한 한국건축산업대전을 처음 개최하여 건축,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건축사연수교육 실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와 업무실적관리의 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 구축, 건축법해설 책자 및 전통건축 자료집 발간으로 대회원 서비스의 내실을 다지고, 건축계 유일한 정론지 '건축문화신문'을 창간하여 건축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를 마련하는 뜻 깊은 성과를 거둔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건축계 모두의 보금자리가 될 '건축사회관' 준공으로 앞으로 대한건축사협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시금석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그 동안 우리가 찾아낸 기회와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축사 회원여러분!

2007년은 건축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한 건축관련 법·제도 개선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며, 사회 각 분야별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건축계도 이에 발맞춰 경쟁력 강화 및 지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건축사 모두의 하나 된 힘이 절대명제입니다.

협회는 올해에도 이러한 우리 내부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건축의 선진화,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법·제도 개선 및 건축사의 위상을 높여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축사등록원 설립과 관련한 건축사법 개정, 건축문화진흥법·건축기본법·건축물유지관리법 제정 추진, 건축의 날·한국건축산업대전·전국건축사대회를 연계한 건축주간행사 개최, 건축자재인증사업 시행 및 건축사공제사업 추진, 건축사계속교육·실무수련 시행사업 시행, 각종 건축정책 및 연구사업 등을 올 한해 역동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이제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에너지와 저력을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고 앞당기는데 쏟아 부어야 합니다. 올해에는 건축계에 불고 있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기회 삼아 건축사와 대한건축사협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그간 그려놓은 큰 그림을 구체화해 하나하나 반드시 실현해 나갑시다.

모쪼록, 2007년 우리 건축사와 협회가 일취월장하는 충만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丁亥年 건축사 모두에게 복된 소식과 희망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아침

돼지 같은 회장을 뽑자

Piggy One for Our President!

돼지해, 정해년이다.

돼지는 가축으로 길들여져 인간과 함께한 역사가 가장 긴 동물 중 하나이며 그 효용성도 큰데, 일상적인 이미지는 꿈과 현실 속에서 극과 극이다. 즉 꿈속의 돼지는 재복의 상징으로 여겨진 반면, 속담 속에 녹아있는 현실은 욕심 많고 추하고 둔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격에 맞지 않을 때 쓰는 속담으로 '돼지우리에 주석 자물쇠' 나 '돼지 발톱에 봉숭아물 들인다' 그리고 '돼지발에 편자' 등이 있다. '돼지는 흐린물을 좋아한다'는 돼지의 더러움을, '돼지 원 발톱'은 상귀를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빗낼 때 이르는 말이다. '돼지도 낮을 붉히겠다'는 철면피에게 하는 말이고, '돼지 밥을 잇는 것이 네 옷 대기보다 낫다'는 개구쟁이의 장난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힐 때 쓰는 말인데, 거꾸로 보면 돼지의 식탐을 말한 것이 된다. '돼지 그려 붙이겠다'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진귀한 음식을 혼자 먹을 때, 그를 향해 하는 말이다. '돼지 오줌통 몰아 놓은 것 같다'는 못생긴 얼굴을, '돼지가 깃을 물어들이면 비가 온다'는 속담은 미련한 자의 말이 맞을 때 사용한다. '돼지 앞에 진주'도 어리석음을 빗댄 속담이고 '돼지 먹따는 소리'는 음치를 이른다. 그런가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와 같은 뜻으로 '돼지 값은 칠푼이요 나무 값은 서돈이다'란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

식견이 좁고 오만방자하여 세상을 제멋대로 판단하며, 하찮은 공을 갖고 양양대는 자들을 혼계하기 위하여 돼지가 등장하기도 한다. 후한(後漢) 초, 어양태수 팽충이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자 대장군 주부가 그를 꾸짖는 글에 있는 고사성어로서, 중국의 후한서(後漢書), 문선(文選), 주부서에 기록된 '요동지시' 즉 요동의 돼지가 그것이다.

요동 돼지는 모두 검은데, 한 농부가 흰머리의 돼지새끼를 얻었다. 이에 진귀하다 여기고 이를 임금께 진상하기 위하여 하동으로 가는 배를 탔다. 소중히 여기는 돼지새끼의 사연을 들은 배안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하동에 내려 보니 그곳 돼지는 모두 흰색이었다. 그는, 광무제의 많은 공신들 중 너의 공은 요동돼지에 불과하다고 공박하였다.

이렇듯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지만, 학자들은 돼지가 대소변도 지정한 곳에 보며,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벽에 비비거나 더러운 물에 튕구는 것도 신체의 온도조절 때문이라고 한다.

요즈음 국내의 돼지농가들은 WTO에 대항하기 위해, 인삼, 약용식물, 녹차 등을 먹이거나 돼지를 운동시켜 육질을 좋게 하는 등 특성화하여 그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돼지의 기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생명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장기와 가장 유사한 돼지의 장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장수의 길을 여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이렇듯 생명의 양식과 수명의 연장에 도움을 주는 돼지의 효용성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중국과 한국은 종교제례나 그 밖의 제사 때, 삼생(三牲)이나 대뢰(大牢)라 하여 소, 양, 돼지를 희생 제물로 드렸다. 조선시대

흔히 상대방을 모욕할 때 쓰는 말이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러나 돼지는 해부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은 대부분 파고들수록 더러움만 커지게 마련이다.
 새 회장은 1만여 회원은 물론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건축사까지 돌보고 이끌어야 한다.
 그의 앞에는 건설회사의 설계허용부터 건축사 등록원, 교육원의 설립과 주관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와 덕을 겸비해야하고 강력한 리더십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요동지시'를 배격하고 '신급돈어'와 같은 신의와
 돼지같이 온 몸을 회원에게 주는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는 전생서란 부서가 있어 이를 관장하였다. 이렇듯 귀히 쓰이던 돼지였기에, 중국에서는 이를 이용한 요리도 많다. 양의 창자에 오리 알의 노른자를 삶아 넣은 것을 다시 돼지 창자에 흰자와 함께 넣어 시루에 찌서 식힌 후 말굽모양으로 찢어서 만든 요리를 대봉란(大鵬卵)이라 하는데, 필자도 문헌만 보고 맛을 보지 못했으나 꽤나 먹음직할 것 같다.

고려시대에는 기구라는 운동기구가 있었는데 거죽을 가죽으로 둥글게 만들고 속에 돼지 오줌통을 넣고 바람을 채워 만든 공이라고 하였다. 60년대 우리의 축구나 배구공이 튜브와 거죽으로 되어 있었던바 그의 원조 격이다. 털로는 저모필이란 큰 붓을 만들었고, 저모 립은 돼지털을 안에 대어 만든 것으로 당상관이 쓰던 고급품이었다. 장선은 창자로 만든 노끈 모양의 줄로서 외과수술용 실인데 조직 내 흡수되어 녹아버림으로 실밥을 뽑을 필요가 없다. 또 현악기의 줄이나 라켓의 그물로도 쓰인다고 한다. 피갑은 돼지가죽으로 만든 갑옷이다.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쓰이는 돼지는 약용으로도 큰 몫을 한다. 간장은 조혈제로 유효하고, 꼬리에서 받아낸 저미혈은 두창이나 췌장 종양의 약재이다. 쓸개는 저담이라 하여 열을 내리는 데와 안질에 쓰이며 기름은 고약제조에 쓰였다. 간은 각기병과 대하증에, 염통의 피는 간질약이다. 귀먹은 데는 저신죽을 쓰는데 인삼, 파 밑동을 한데 넣어 반쯤 끓이다가 소금에 절인 돼지 콩팥을 넣고 끓여 만든다.

이렇듯 고마운 돼지에 관한 사자성어 중 신급돈어(信及豚魚)가 있다. 말 그대로 돼지나 물고기 등 무심한 생물조차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뜻이니 신의(信義)의 지극함을 이르는 말이다.

며칠 전 모 방송국에서 '주부들이 아파트 면적이 정말로 맞는지 의심하니, 실측을 하면서 진위를 알려 달라'는 청탁을 받고, 쓴 웃음을 지으면서 출연하였다. 최고통치자부터 어제와 오늘의 말이 다르다보니 불신에 대하여 누구를 탓하라. 흔히 상대방을 모욕할 때 쓰는 말이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러나 돼지는 해부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은 대부분 파고들수록 더러움만 커지게 마련이다.

우리협회는 다음 달 새 회장을 선출한다. 새 회장은 1만여 회원은 물론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건축사까지 돌보고 이끌어야 한다. 그의 앞에는 건설회사의 설계허용부터 건축사 등록원, 교육원의 설립과 주관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와 덕을 겸비해야하고 강력한 리더십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요동지시'를 배격하고 '신급돈어'와 같은 신의와 돼지같이 온 몸을 회원에게 주는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기, 가죽은 물론 내장과 피와 기름까지 모두 주고 가는 돼지의 희생정신과 신의의 지극함, 이 둘만이 모든 회원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며, 그래야만 하나된 그 큰 힘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위대한 회장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

격조 있는 도시경관을 위하여

Upgrading the Urbanscape

근래 우리나라 국토나 도시의 경관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이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호응해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여행을 다녀오면서 안목이 높아지는 영향도 있을 것이다. 작년에 '건축기술 및 건축문화 선진화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경관법과 공공디자인진흥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도시미관에 주력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국토경관이나 도시경관의 전반적인 질은 그 수준이 너무 낮아 개탄할 상황에 있다고 하겠다. 경관 악화요소는 크게 세 가지라고 나는 진단한다. 하나는 농어촌주택의 색깔이다. 70년대 농어촌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나 새마을 사업을 통해 오색찬란(?)한 색채가 등장하였는데 그것이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우리나라 전원풍경을 혼란스럽고 품위 없게 만들고 있다. 한 시야에 들어오는 마을에 빨강·주황·녹색·파랑·회색이 지붕색으로 혼재하고 벽은 벽돌·타일·여러 가지 색의 페인트 등이 무질서하게 섞여 있다. 거기에 옥상 물탱크의 노랑·파랑색이 가세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도시나 전원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경관을 지배하다시피 하는 요소는 아파트인데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스카이라인과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외관, 엄청난 매스가 시야를 가로막는 풍경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최근 지어지는 초고층 아파트가 종래의 판형(板形) 또는 상자형에서 벗어나 높이의 변화와 형태·입면의 다양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발전이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은 일부 고급 아파트에 국한되고 있다. 아파트의 외장색도 너무 강하고 측벽에는 예외없이 화려한 슈퍼그래픽을 그려넣어 시각적 안정감과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도시의 가로(街路)경관을 세계 최악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또 하나의 주범은 옥외광고물 즉 간판이다. 절제되지 않은 고채도의 색이 마구 쓰이고 있고 그 조악한 디자인과 업소당 간판 수, 크기, 재질, 설치 위치 등이 모두 거리의 풍경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간판으로 건물 외벽을 거의 덮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유리창까지 간판으로 활용하는 그 상흔에는 그저 탄복(?)할 수 밖에 없다. 오죽하면 미국의 건축사 프랭크 게리가 우리나라 도시를 보고 쓰레기더미 같다고 했을까. 수년전 미국 컬럼비아대학 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을 다녀온 인상을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2005년에 노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하고 와서 우리나라 도시를 선진국 수준으로 아름답게 만들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내에 부랴부랴 기획단이 만들어졌고 초기에 필자도 자문위원으로 몇 차례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다. 그것이 발전하여 2006년에 '건축 선진화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해보니 건축계 각 분야 전문가가 주축이 되고 일부 관련분야도 참여했는데 건축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제기되어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었다. 앞에서 지적한 세 가지 큰 문제 즉 농어촌 주택의 색채, 아파트의 외관과 입지, 간판의 난립, 이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개선하면 우리나라 도시와 국토의 경관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필자는 믿고 있다.

농어촌 주택의 색채, 아파트의 외관과 입지, 간판의 난립, 이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개선하면

우리나라 도시와 국토의 경관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필자는 믿고 있다.

건축사는, 설계시 단일 건물의 디자인에만 집착하지 말고 거시적 안목으로 도시

또는 가로의 문맥을 존중함으로써 차분하고 품격 있는 거리, 정체성이 있는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층수·형태·입면·외부마감재 등에 변화를 주도록 건축주를 설득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고,

간판도 그 위치·크기 등을 사전에 고려해서 건축설계에 반영해주면 지금과 같은 난립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건축사는 건축설계 외에도 각종 심의·자문 등에 관여하므로 모든 영역에서

도시와 국토 경관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건축기술 및 건축문화 선진화 위원회’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초기에 아젠다로 나왔던 건축시공기술의 첨단화, 시공발주제도의 합리화, 심지어 건축교육제도에 이르기까지 너무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요원할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일들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낮은 감이 있지만 고무적인 일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근래 모든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큰 미덕인양 회자되는 사회분위기지만 규제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규제를 완화할 것과 오히려 더 강화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슬기가 필요하다. 시각환경도 수질·공기·음향과 같이 환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지향하는 추세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관지구 지정과 건축심의, 도시경관 심의 등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건축사 또는 건축계가 경관개선에 기여할 부분은 무엇인가. 우선 설계시 단일 건물의 디자인에만 집착하지 말고 거시적 안목으로 도시 또는 가로의 문맥을 존중함으로써 차분하고 품격 있는 거리, 정체성이 있는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형태·색채와 대비가 강하지 않은 것이 좋은 건축물이라고 생각한다. 강남대로에 있는 마리오 보타 설계의 강남 교보빌딩은 그 자체로서는 수작이지만 벽돌색의 큰 매스가 기존의 거리를 압도하는 것은 도시문맥을 존중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동숭동 대학로의 건물들은 붉은 벽돌이라는 거리의 문맥을 유지하고 있어 특색 있으면서 정돈된 느낌을 주고 있는 좋은 예이다.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가로의 종단점, 가각, 광장, 공원 등 독립적인 입지에서는 기존 건물과 차별되는 오브제적 디자인이 더 도시를 풍요롭게 할 수 있겠다.

아파트 디자인에 관해서는 거기 관여하는 변수가 하도 많아서 쉽게 말할 수 없지만 고급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층수·형태·입면·외부마감재 등에 변화를 주도록 건축주를 설득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 강한 색채, 천편일률적인 측벽의 슈퍼그래픽 등도 지양하는 게 좋다.

간판도 그 위치·크기 등을 사전에 고려해서 건축설계에 반영해주면 지금과 같은 난립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간판이나 표지판 등을 포함하는 건축 외부 환경디자인을 건축사가 주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참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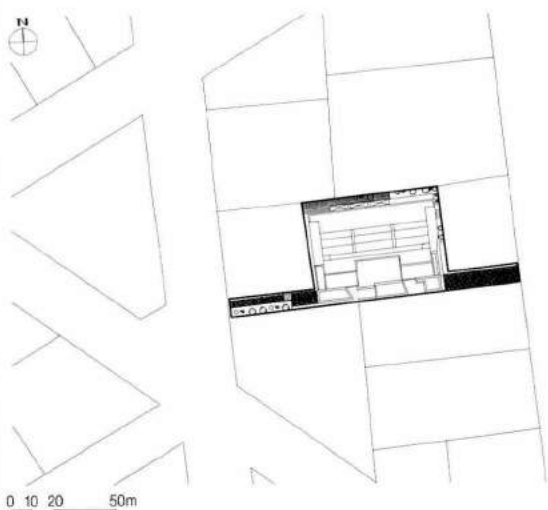
건축사는 건축설계 외에도 각종 심의·자문 등에 관여하므로 모든 영역에서 도시와 국토 경관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자연경관을 제외한 모든 인공경관은 그 매스나 공간구성상 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건축물이 모여 가로를 구성하고, 집이 마을을 만들고, 가로와 마을이 도시와 국토를 형성한다고 할 때 경관에 관해 건축계는 그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격이 있고 대한민국의 국격은 이 어지러운 경관 때문에 천박함을 면하기 어렵다. 경관이 수려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품격을 높일 뿐 아니라 인류 문화에도 기여하는 길이다. ■

예화랑 Gallery Yeh

〈2006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문부문 우수상 수상작〉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2-9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567.5㎡
건축면적	332.65㎡
연면적	1,995.14㎡
건폐율	58.62%
용적률	205.37%
규모	지하 2층, 지상 7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T50 베이스패널, 노출콘크리트, T24투명복층유리
내부마감	에폭시코팅, 베이스패널, 노출콘크리트
설계담당	김윤수, 김수영, 박병규, 김학수
시공사	구진산업개발 주식회사
건축주	이숙영



Location	532-9, Shinsa-dong, Gangnam-gu, Seoul, Korea
Site area	567.5㎡
Bldg area	332.65㎡
Gross floor area	1,995.14㎡
Bldg coverage ratio	58.62%
Gross floor ratio	205.37%
Structure	S.R.C
Bldg. Scale	F2, B7



1. 원형사진 김용관
2. 전경사진 김용관



거대한 캔버스를 만들다

어떤 스킨, 건축을 통해서 어떤 스킨을 구축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건축을 하나의 패턴으로 읽거나 형태적인 스킨으로 읽는데 그칠 수는 없다. 도시구조를 새롭게 정의 해내는 개념을 탐색해야 한다. 도시는 연속적인 스킨으로 인식할 수 있다. 도시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와 도시를 변형해내는 새로운 도시구조의 틀로 연속적 스킨을 적용한다. 스킨의 현실성이 우리가 쉽게 접하거나 간과하는 재료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현실의 경계를 제어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거창한 패션과 포장을 거부하는 새로운 텍스트로서의 스킨으로 변신한다. 가상과 현실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의 막도 사라져 가고 있다. 앨리스 앞에 놓여져 있던 다른 차원을 넘어서는 모호한 경계의 거울막과도 같이, 스킨도 이중적인 현실의 경계에서 새롭게 반응한다. 예화랑을 통해서 도시에 놓여진 거대한 '캔버스'를 만들어내려 하였다. 캔버스는 건물의 벽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예화랑의 변화를 예시하는 실험적인 조각물이기도 하다. 기존의 캔버스가 평탄한 2차

원의 캔버스라면, 예화랑에 설정된 캔버스는 평면성에 숨어있는 새로운 코드를 꼬집어낸 평면과 공간 사이의 3차원적인 스킨이다. 일반적인 건축의 요소인 벽이라는 스킨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변형하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미끈한 물성의 막이 주름의 표피로 변화되는 것의 의미는 들뢰즈가 언급하는 바로크적인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다. 건물의 표피를 단순한 표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름의 형식으로 대체시키면 주름과 꺾임이 반복되어 공간적인 표피를 구성할 수 있다. 주름진 표피와 매끈한 표피의 연속성 속에 존재하는 창조적 탄생의 구조를 발견해내는 작업과도 같다. '주름의 공간적 표피'는 건축의 표피가 단순히 하나의 층으로 읽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층의 공간을 가지게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도시적인 구조를 표피적인 구조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스킨스케이프의 의미는 증폭된다. 쭈글쭈글하게 주름진 하나의 판으로 도시를 바라본다. 그 주름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주름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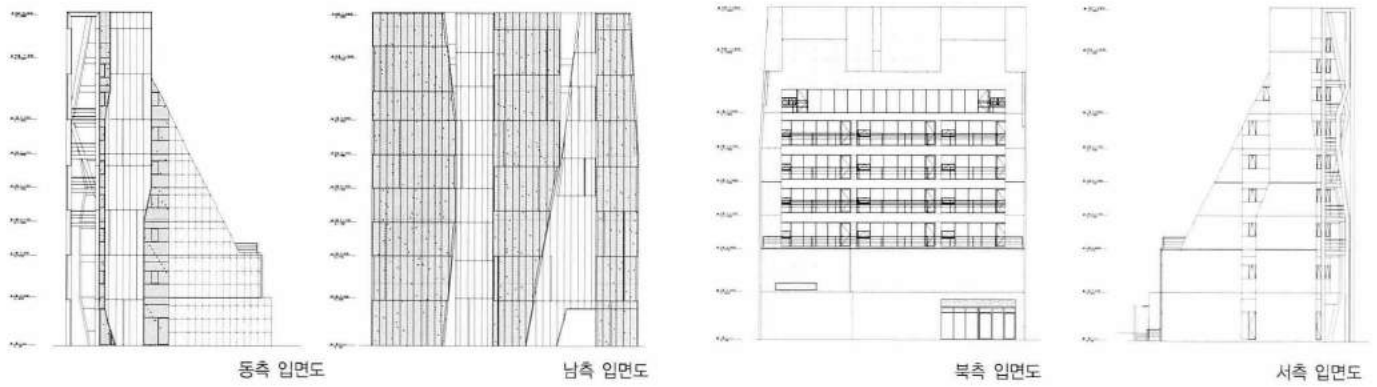
스킨스케이프는 건축의 요소인 '스킨'과 총체적인 틀을 의미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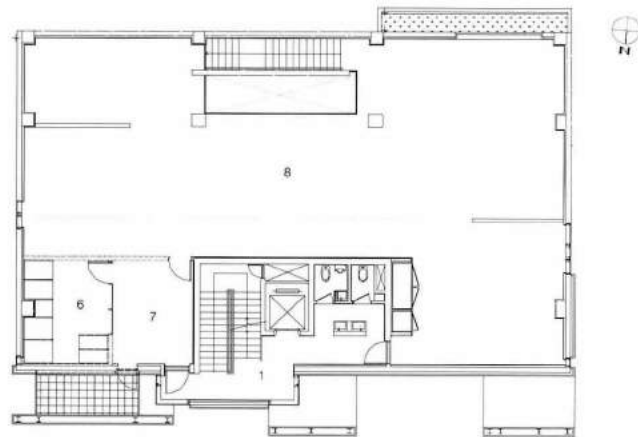
'스케이프'가 결합했을 때의 가능성을 만들어보는 실험적인 텍스트다. 스킨과 다른 요소들의 결합에 의해서 스킨스케이프는 구성된다. 스킨과 구조와의 결합, 스킨과 공간과의 결합, 스킨과 프로그램과의 결합... 다른 조합과 복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변형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 새로운 공간적 모델을 찾아가는 작업과 맞물려있는 스킨스케이프는 공간의 군더더기를 제거하거나 군살을 결합하는 방식을 최소화함으로써 변위의 폭을 최대로 증폭시키고 있다. '공간적 서핑' '스킨적 서핑' '풍경적 서핑' '서로 다른 구조의 서핑' 등의 코드가 연속적으로 엮거리며 복합체적인 공간을 구성한다. 스킨을 물리적인 코드로부터 변환시키며, '스킨이 공간되기' '스킨이 미디어되기' 등의 일련의 작업을 대체한다. 들뢰즈가 이야기하는 주름진 표피와 매끈한 표피의 연속성 속에 존재하는 창조적 탄생의 구조를 발견해 내는 작업과도 같다. 예화랑에 적용된 스킨스케이프의 개념

은 '스킨이 공간되기'라 볼 수 있다. 스킨스케이프의 막은 전시의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가 되어 외부전시를 이끄는 거대한 캔버스가 된다. 스킨스케이프의 공간을 여러겹의 스킨을 관통하는 특이한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이 공간 사이를 경험하며 벽 속에 숨어 있는 새로운 공간의 질을 발견한다. '갑옷의 틈새'와 같이 스킨은 단순히 공간을 한정짓기 위한 표피가 아니라 공기적 틈새를 가지며 내외부의 모호한 경계를 이끄는 가벼운 물성의 표피이다. 무거운 언어를 가벼운 재료와 구조의 새로운 공간화에 의해서 형성하여 그 속에 은유적인 아이러니와 메타포가 숨어 있다. 가벼움을 통해서 획득되는 시학적 무게움의 틀을 구성한다. 스킨의 질은 틈새의 가능성과 연관된다. 틈새의 스케이프를 만드는 방식을 제안하고 그 안에 숨겨진 공간적 풍부함을 도출한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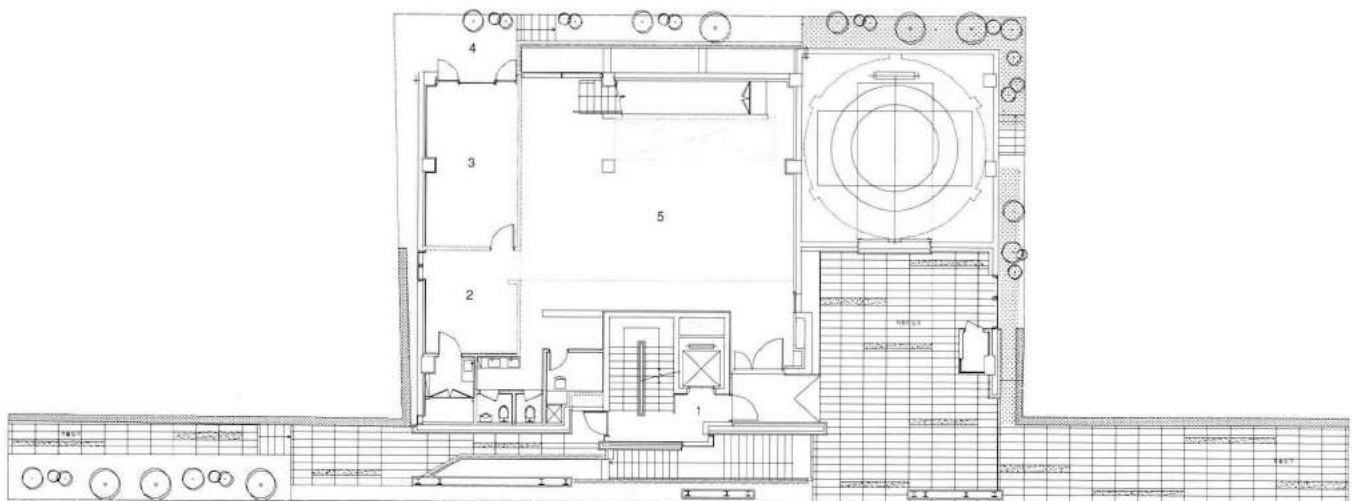
1. 정면 외관사진 촬영권
2. 출입구에서 본 발코니 사진
(문생동 건축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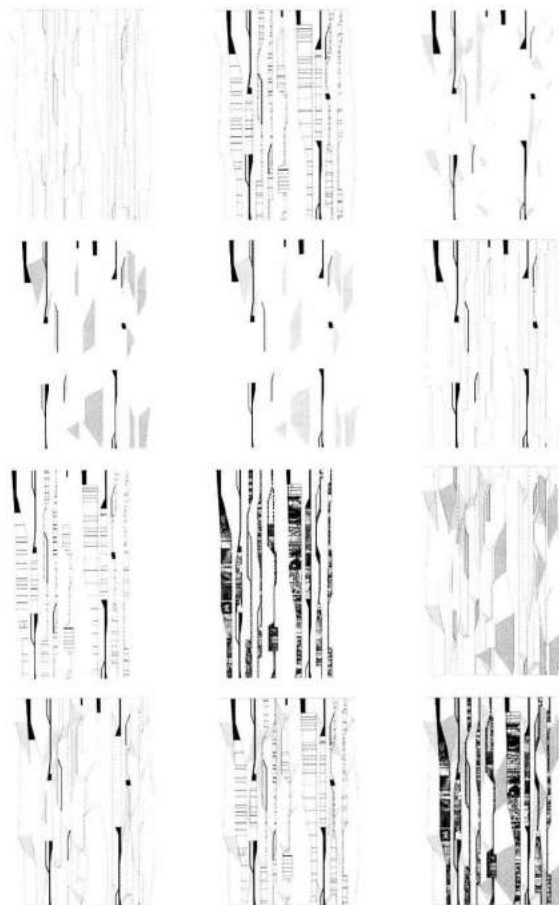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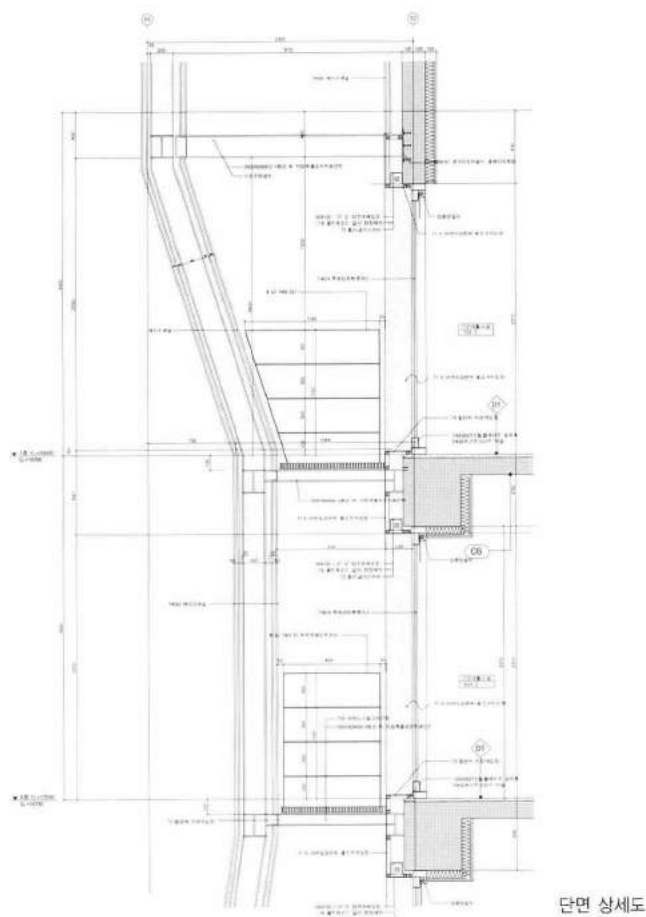
- 01. 홀
- 02. Reception
- 03. 관장실
- 04. 휴정
- 05. 여화랑전시실1
- 06. 자료실
- 07. 사무공간
- 08. 여화랑전시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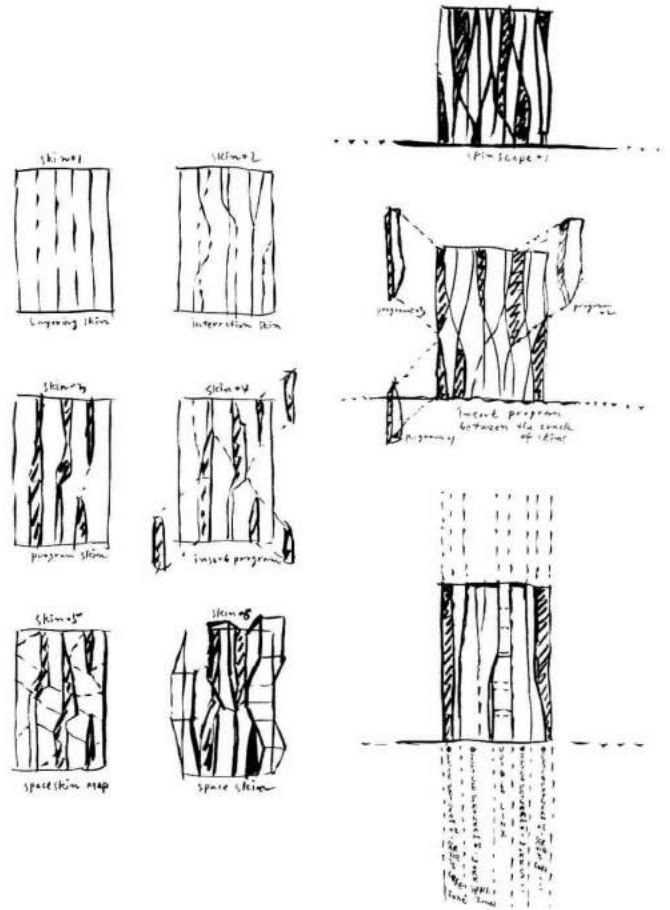
지상 2층 평면도



지상 1층 평면도



1. 사진 운동장 건축사무소
2. 사진 송재영
3. 클러리 사진 송재영
4. 5층 광코너에서 본 천정 사진 송재영
5. 클러리 내부 계단 사진 송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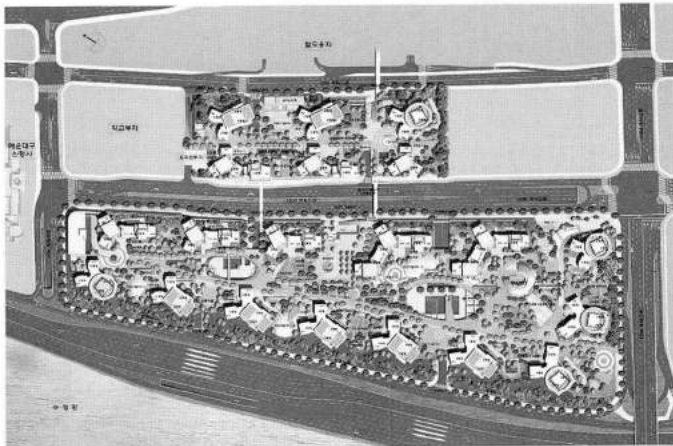
더샵 센텀파크

The # Centum Park

〈2006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문부분 우수상 수상작〉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시티(2,3block)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대지면적	100,693.00㎡
세대 수	3,750세대
용 적 륜	597.73%(2Block), 556.68%(3Block)
규 모	지하 2층 ~ 5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6,010대
건축설계	(주)건축사사무소 앙코르, (주)건축사사무소 건원, (주)희 건축사사무소
설비설계	(주)삼보설비
전기설계	(주)세종기술단
조경설계	(주)신화컨설팅
토목설계	(주)동남토목
구조설계	(주)마이더스
설계담당	배동명, 김수룡, 김우영, 김동욱, 류성엽, 이길제, 이정숙, 배성만, 김영민, 김은주, 김명진, 손호동, 홍형표
시 공 사	(주)포스코건설
건 축 주	(주)백송종합건설



Location	2,3Block, Centumcity, Jaesong-dong, Haeundae-gu, Busan, Korea
Site area	100,693.00㎡
Gross floor ratio	597.73%(2Block), 556.68%(3Block)
Structure	S,R,C
Bldg. Scale	F51, B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만 일대 약 35만평 부지에 21세기형 미래도시를 목표로 추진중인 센텀시티 개발지구 내 2, 3블록의 주거 단지에 최첨단 시설과 편리한 부대시설을 갖춘 부산지역의 최고의 Landmark가 될 수 있는 초대형 주거단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계획 개념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 풍요로움을 누리는 도심 속 오아시스를 창조하고, 인간·자연·도시 세 가지 인자의 조화를 목적으로 했다.

이 사업지는 행정구획 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시티 개발부지 내 2, 3블록으로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 및 방화지구로 지정되어있다. 사업지가 속한 센텀시티 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주변 교통시설을 살펴보면 동측으로 충렬로(폭30m)와 동해남부선 철도가 서측으로 컨테이너 배후수송도로가 남북방향으로 지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수영로(폭30m)와 광로3-22호(폭40m)가 동서방향으로 지나고 있다.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살펴보면 북측에는 대규모 컨테이너 시설들이, 남측 약 1.5km지점에는 부산 컨벤션센터(BEXCO)가 입지하고 있다. 도심에서의 접근로가 다양하고 고속도로 및 공항으로 가는 고속화도로와 연결되어있어 광역적 교통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고, 단지 내 접근은 센텀시티 내 신설도로를 이용하여 테크주차장으로 직진입할 수 있게 되어있고 주변 Bus-Bay와 근린생활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입구위치를 계획하였다. 입면계획은 주동은 주두부와 고층부, 중층부, 기단부로 나누어서 고층부는 헬리포트와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경쾌하고 시원한 느낌의 분위기로 계획되어, 고층부는 상대적으로 주위 건물보다 높은 것을 감안하여 경쾌한 분위기의 색상으로 처리하여 동별 포인트로 동의 형태를 강조하였다. 또한, 구조용 Out Rigger를 디자인요소로 이용하여 초고층의 위압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평선을 3개층 마다 강조하여 디자인하였다. 기단부는

화강석 물갈기로 입면을 마감하여 고층 구조물의 시각적 안정감 증대와 친환경적 요소 및 친인간적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테크층 입면은 보행과 연결된 도로변에 상가를 집중 배치하고 옥외 광고물 및 돌출시설에 대한 규제로 입면의 정연성을 강조하고 주차장부분은 루버를 설치하여 미려한 입면이 되게 구성하였다.

자연... 숲과 물이 아름다운 단지

부산의 아름다운 산과 언덕, 바다와 강을 단지 내로 유입(산, 강, 바다, 언덕...), 합리적인 배치계획으로 단지 내 넓고 개방된 Open space 확보, 수영강과 연계된 친수공간 조성 및 조망데크 조성, 보행로에 벚꽃 터널 조성, 단지 내 중앙부에 마운딩과 자연스러운 숲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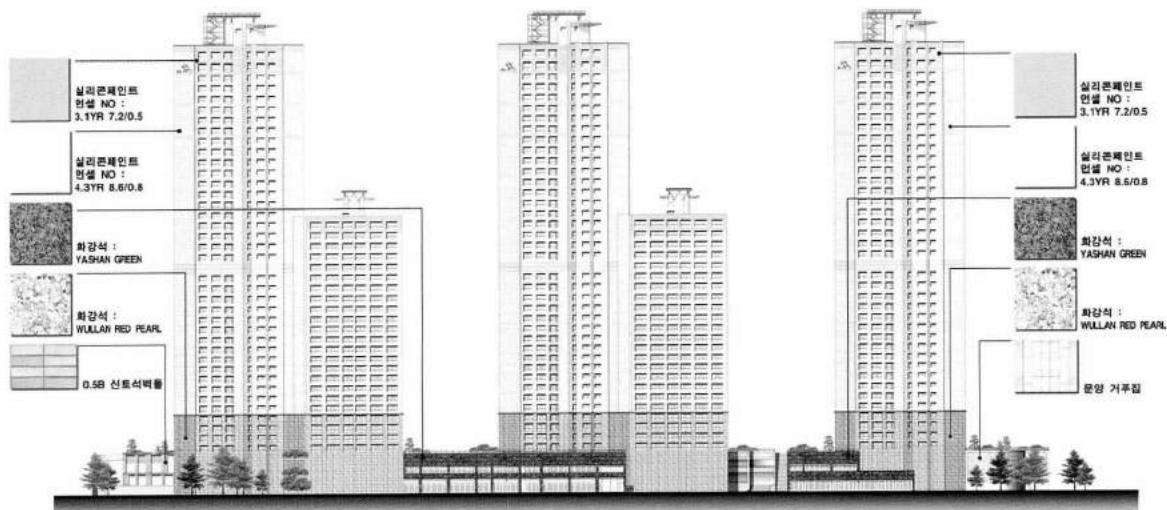
생활... 이웃과의 만남이 즐거운 Community공간

실질적 이용이 가능한 소규모 공간의 확보, 필로티 하부와 연계된 포켓정원의 조성, 각 동별 코어(core)가 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제공, 가족과 행복 등을 주제로 한 친근한 조각이 있는 공원 속의 아파트, 주민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한 기획전시, 가족음악회, 백일장 등 이벤트 공간

건강... 이용이 편리한 생활체육공간

쾌적한 자연 속에서 단지를 순화하는 숲속 산책로와 조깅코스, 단지 내 순환로의 일정폭을 고무매트로 포장한 조깅전용코스 조성, 동별로 이용이 편리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터, 배드민턴장, 농구장, 체력단련시설, 건강지압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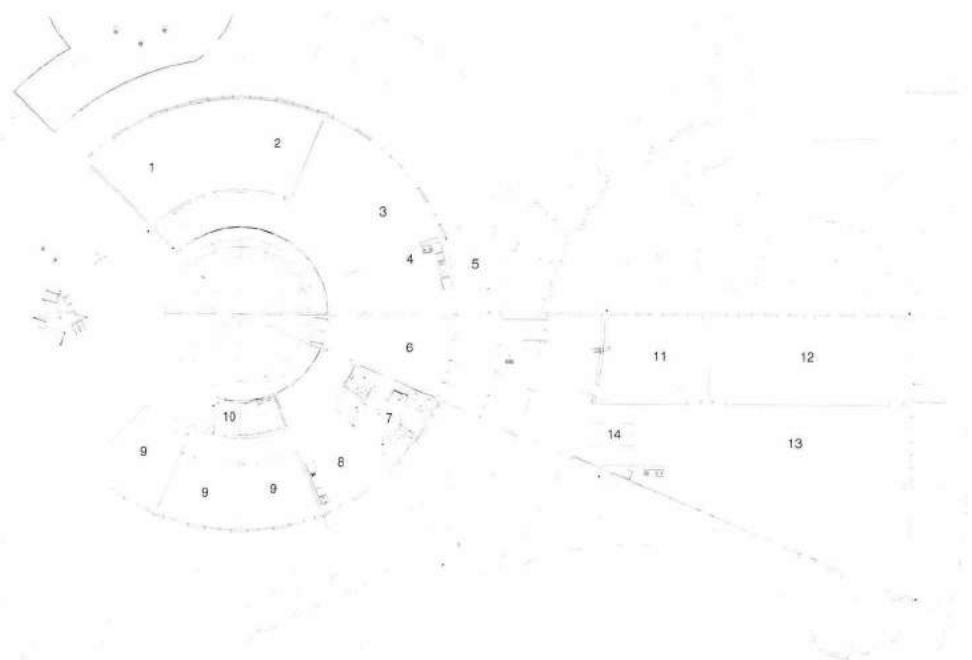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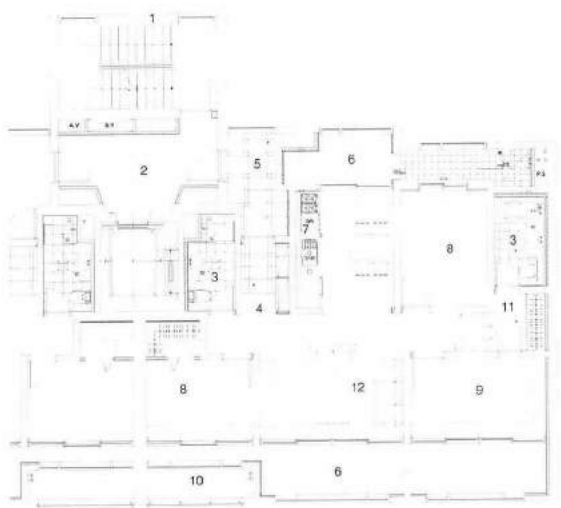


- 1. 주출입구 0-경
- 2. 대크 산책로
- 3. 대크 야간 정경
- 4. 관리사무소 노안정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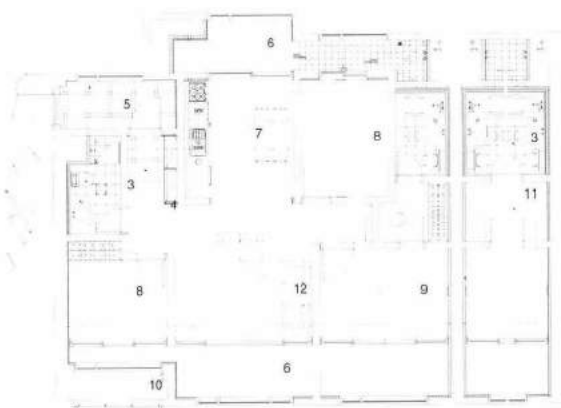
- 01. 할아버지방
- 02. 할머니방
- 03. 거실
- 04. 주방
- 05. 계단실
- 06. 홀
- 07. 화장실
- 08. 조리실/식당
- 09. 보육실
- 10. 보일러실
- 11. MDF실
- 12. 방재실
- 13. 관리사무실
- 14. 방통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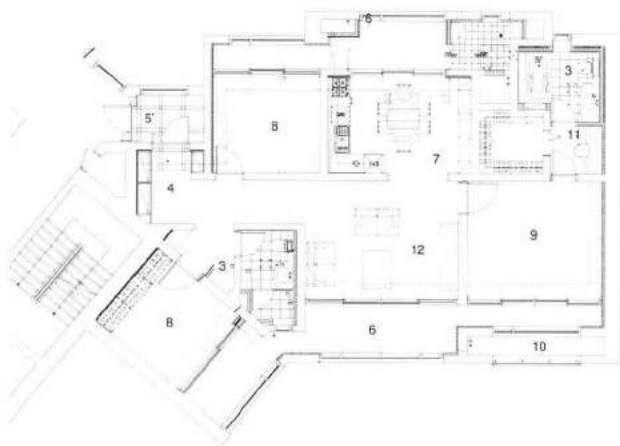
A-Type 단위세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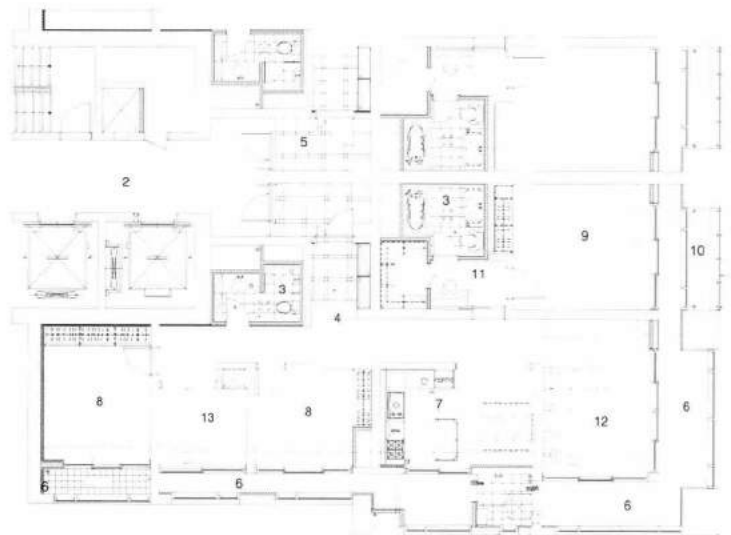
B-Type 단위세대 평면도

- 1. 고층부 전망
- 2. 벽천
- 3. 4. 데크 채광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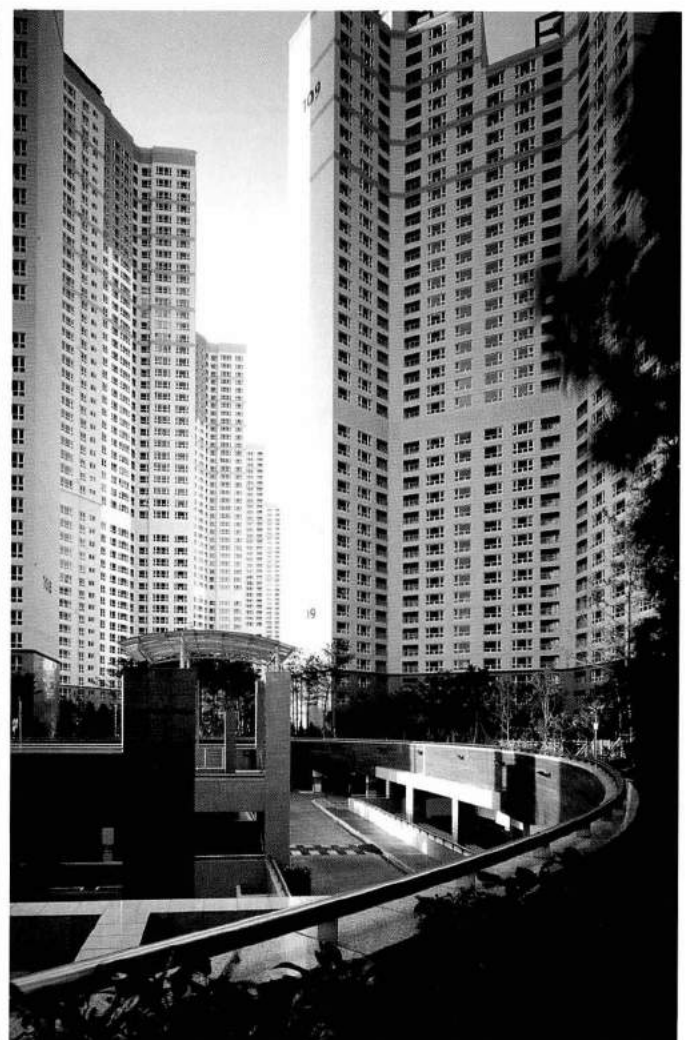


C-Type 단위세대 평면도



D-Type 단위세대 평면도

- | | |
|-----------|----------|
| 01. 계단실 | 08. 침실 |
| 02. 홀 | 09. 안방 |
| 03. 욕실 | 10. 화장 |
| 04. 현관 | 11. 드레스룸 |
| 05. 전실 | 12. 거실 |
| 06. 발코니 | 13. 가족실 |
| 07. 주방/식당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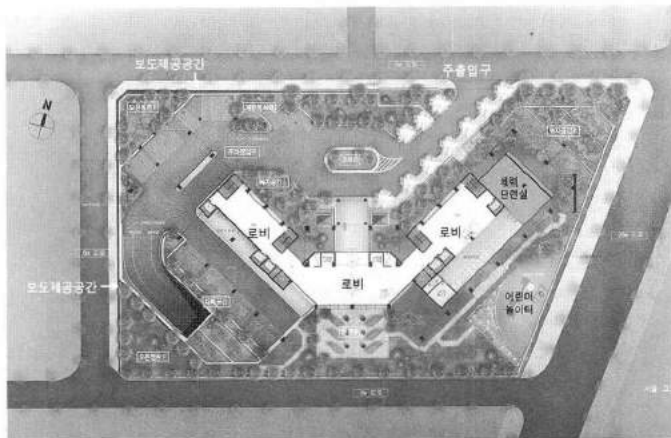
더 미켈란

The Michelin

〈2006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문부문 우수상 수상작〉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94-4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6,500.09㎡
건축면적	2,060.15㎡
연면적	29,195.96㎡
건폐율	31.69%
용적률	299.16%
세대수	67세대
주차대수	268대
설계담당	황재영, 한상수, 박민성, 반경주
시공사	(주)대교디앤에스
건축주	롯데빌리지 재건축조합



Location	1494-4,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Site area	6,500.09㎡
Bldg area	2,060.15㎡
Gross floor area	29,195.96㎡
Bldg coverage ratio	31.69%
Gross floor ratio	299.16%

1. 북서측 전경
2. 북동측 전경



서초동에 위치한 '더 미켈란 프로젝트'는 기존의 2개 빌라단지를 재건축하자는 데서 출발했다. 기존의 빌라는 40~50평형대의 전형적인 빌라타입이었으나 건물이 노후화되어 실제 사용상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빌라의 소유자들은 재건축을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재건축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계획의 아이디어와 시공경험을 가진 공동 사업추진업체를 공모하여 경쟁을 거쳐 지금의안이 선정되었다.

우리의 안은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형식에서 벗어나 도심지에서 쾌적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리조트와 같은 단지를 구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지의 1층은 로비를 비롯한 입주자 편의시설과 필로티를 가정하였고 조경계획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주변에는 트라움하우스를 비롯한 고급주거단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우리의 계획안은 기존의 단지를 뛰어넘는 것이어야 했다. 트라움하우스를 비롯한 고급주거 단지는 대형평형, 디럭스하고 중후한 인테리어, 완벽한 방범 시스템 등 차별화된 주거단지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새로운 평면형, 1층의 welcoming lobby, 단지의 쾌적성 그리고 주거의 기능을 표출하면서도 위엄 있고

중후한 외관 등 우리가 더 기회적인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배치계획의 비정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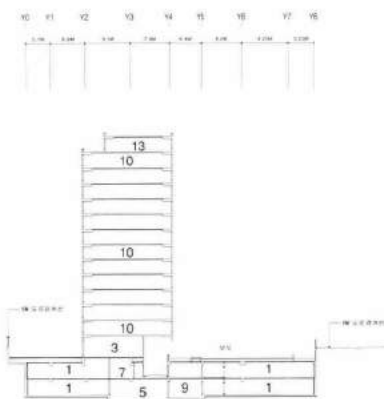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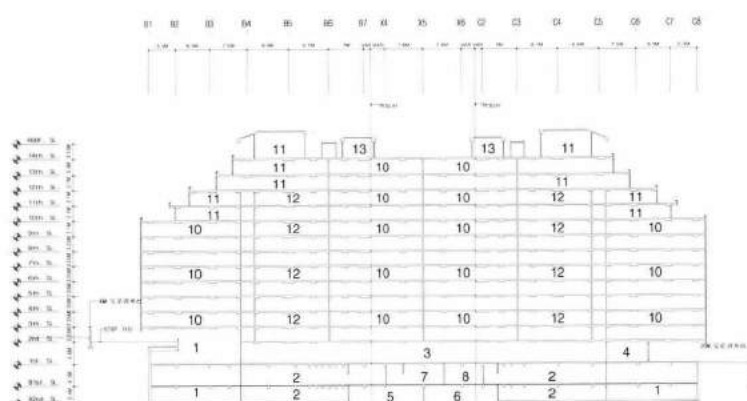
우리는 모든 세대가 좋은 향과 조망을 확보할 수 있길 원했다. 따라서 장방향의 대지에 일자형의 일반적인 아파트 배치보다 더 많은 남쪽에 면하는 길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45도의 사선방향성을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모든 Unit들은 비정형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고 건물과 대지와의 사이공간도 사선방향성을 가진 다양하고 다이내믹(dynamic)한 공간의 성향을 띠게 되었다.

유니크(unique)한 단위세대 계획 및 테라스하우스(terrace house)

건물의 전체적인 배치는 대칭형으로 되어 있으나 사선의 도입으로 인해 모든 유닛들은 일반적인 아파트형 평면에서 벗어나 상당히 특색을 가지게 되었으며 유닛마다 개성 있도록 절곡형 평면, 건물의 매스안으로 삽입된 아트rium, 식당이 물위에 떠있는 느낌을 주도록 발코



- 01. 주차장
- 02. 복도
- 03. 로비
- 04. 세력단련실
- 05. 저수조
- 06. 기계실
- 07. 관리사무실
- 08. 기사대기실
- 09. 전기실
- 10. 88평형
- 11. 89평형
- 12. 80평형
- 13. 98평형



단면도

니에 수공간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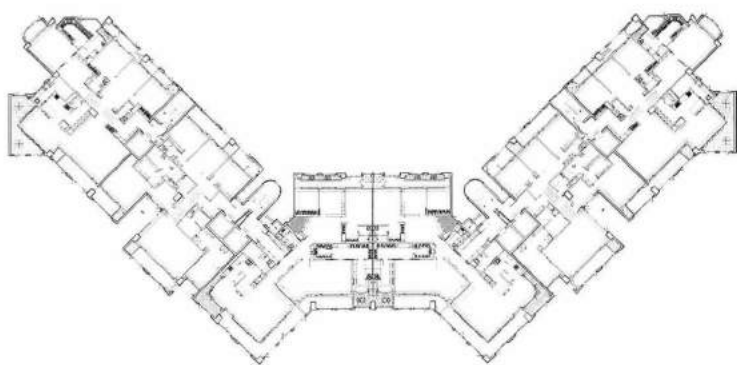
또한 고층부에서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물의 후퇴(setback)부분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테라스하우스(terrace house)로 계획하였다. 이들 테라스는 유닛의 외주부에 일자형으로 계획되지 않고 건물 안으로 파고들며 내외부 공간이 상호 작용하여 다양한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이 테라스는 세대를 위한 조경 공간 및 외부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㉔



입면계획

1. 남서측 전경
2~4. 조경





기준층 평면도



99A-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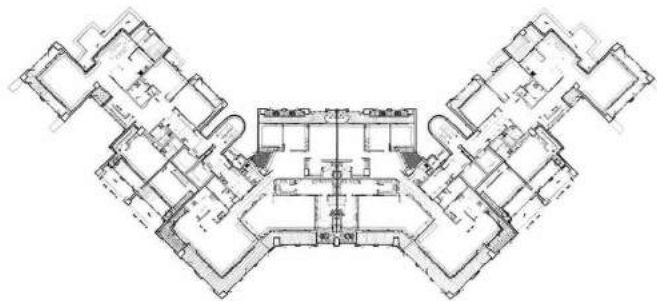


89A-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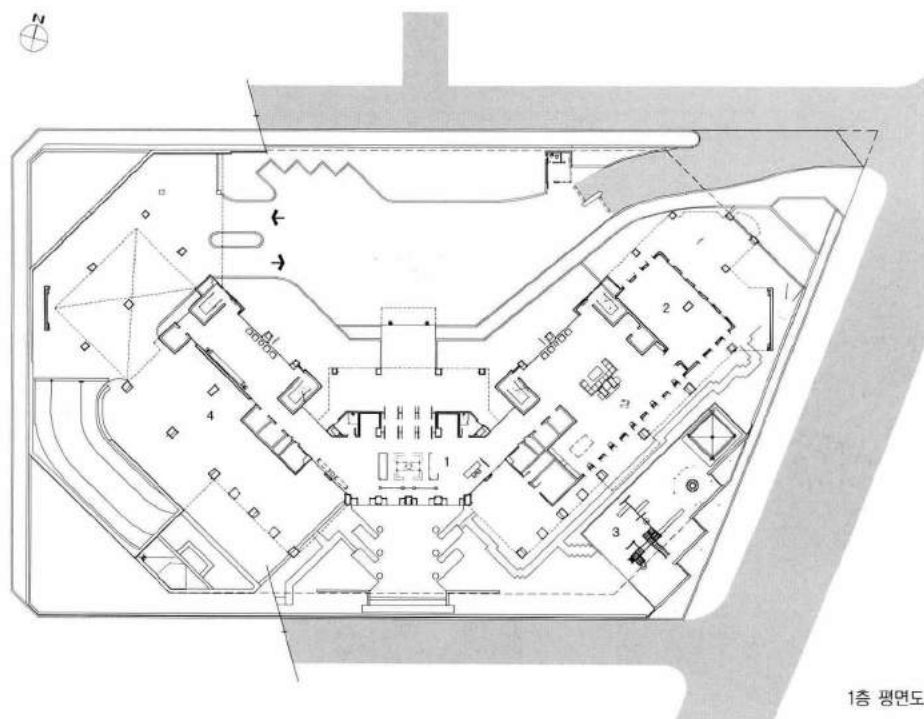
80-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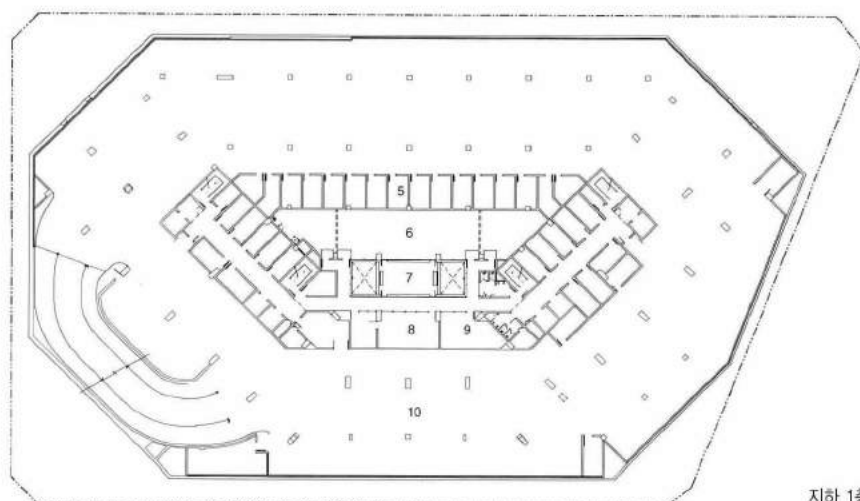


13층 평면도

- 01_ 로비
- 02_ 체력단련실
- 03_ 어린이 놀이터
- 04_ 주차장
- 05_ 전동차고
- 06_ 주민공동시설
- 07_ Sunken
- 08_ 관리사무실
- 09_ 기사대기실
- 10_ 지하주차장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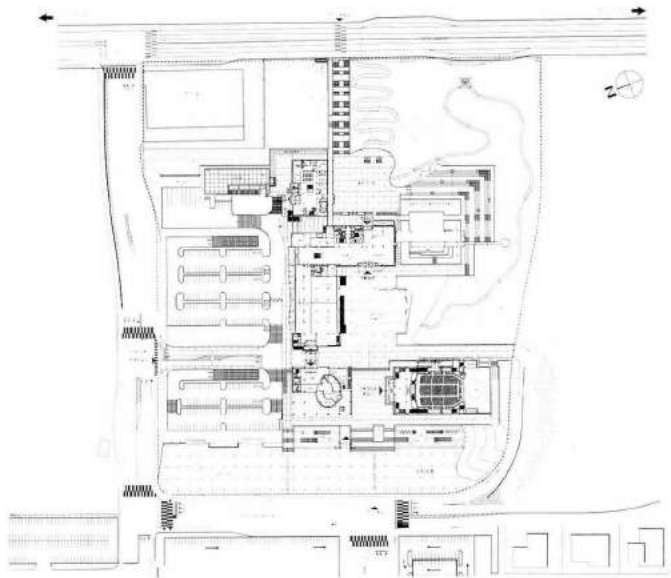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이영희·정영균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박 승 /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이천규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토우
by Lee Young-hee & Jeong Young-gyon + Park Seung +
Lee Chun-kyu, KIRA

천안시청사 Cheonan City Hall

〈2006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문부문 우수상 수상작/건축사지 2005년 11월호 게재〉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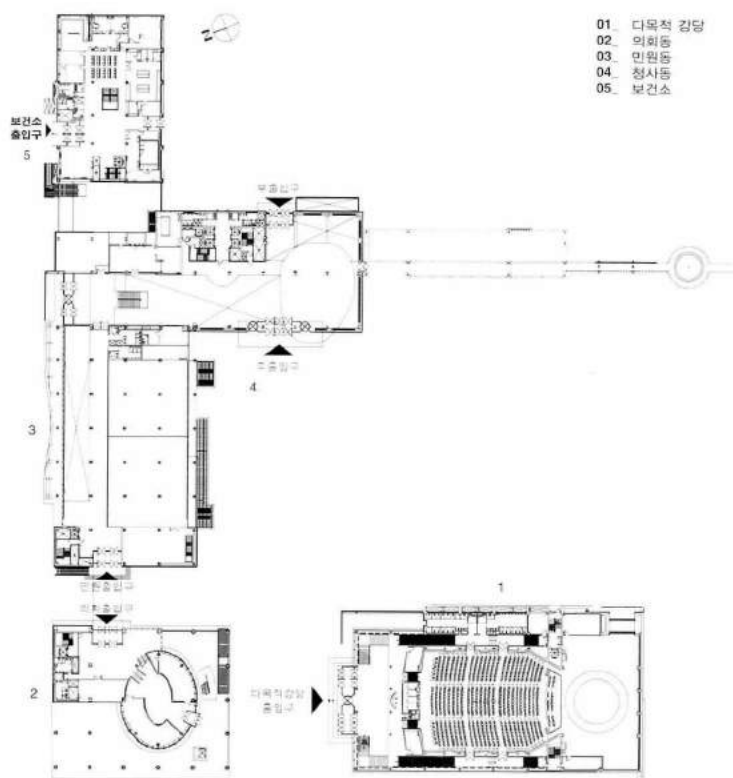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234-1 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공공청사부지(도시계획시설)
대지면적	76,390.0㎡
건축면적	11,454.25㎡
연면적	41,452.33㎡
건폐율	14.99%
용적률	40.85%
용도	업무시설(공공청사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규모	행정동 26,613.60㎡ 지상 11층, 지하 1층 의회동 4,264.95㎡ 지상 4층, 지하 1층 강당동 4,535.76㎡ 지상 2층, 지하 1층 보건소 4,451.41㎡ 지상 4층, 지하 1층 식당동 1,697.61㎡ 지상 2층, 지하 1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주차대수	348대(장애인 12대 포함)
외부 마감	화강석, 알루미늄시트, 색로이복층유리, 투명복층유리
시공사	신동아건설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김재경/항공 : 하늘스케치)
설계경기	2001. 02
공사기간	2002. 05 ~ 2005. 08



Location	234-1, Buldang-dong, Cheonan-si, Chungcheongnam-do, Korea
Site area	76,390㎡
Bldg area	11,454.25㎡
Gross floor area	41,452.33㎡
Bldg coverage ratio	14.99%
Gross floor ratio	40.85%
Structure	R/C
Bldg. Scale	one story below ground, eleven stories above ground
Design period	2001. 02
Construction period	2002. 05 ~ 2005. 08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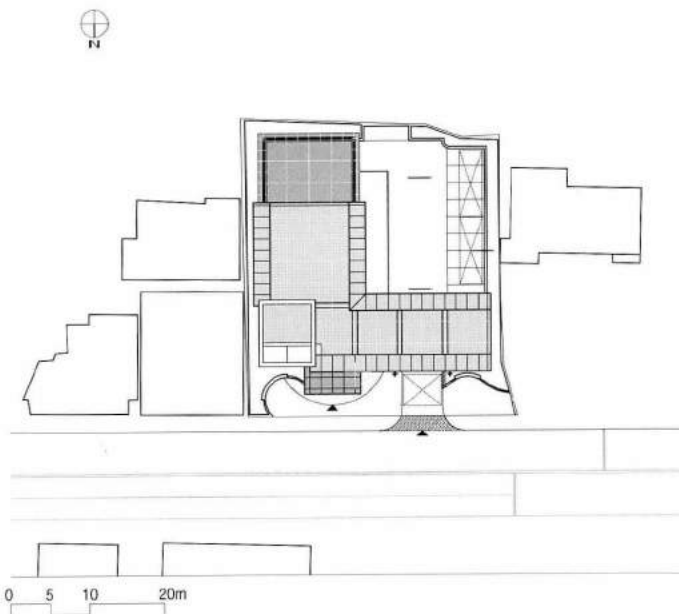


KT&G 상주지점

KT&G Corporation Sangju Branch Office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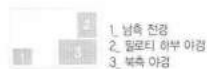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상북도 상주시 낙양동 1-6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1,307.00㎡
건축면적	552.20㎡
연면적	802.62㎡
건폐율	42.25%
용적률	61.41%
규모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외부마감	알루미늄복합패널, THK18컬러복층유리
설계담당	김동수, 광동진, 조복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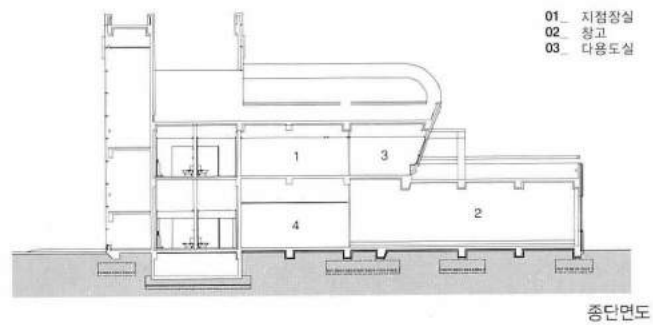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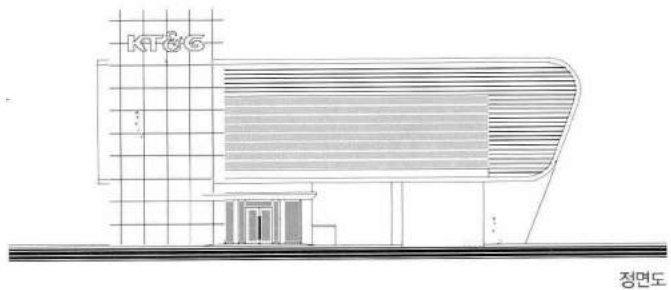
Location	1-6, Nagyang-dong, Sangju-si, Gyeongsangbuk-do, Korea
Site area	1,307.00㎡
Bldg area	552.20㎡
Gross floor area	802.62㎡
Bldg coverage ratio	42.25%
Gross floor ratio	61.41%
Structure	S.R.C
Bldg. Scale	F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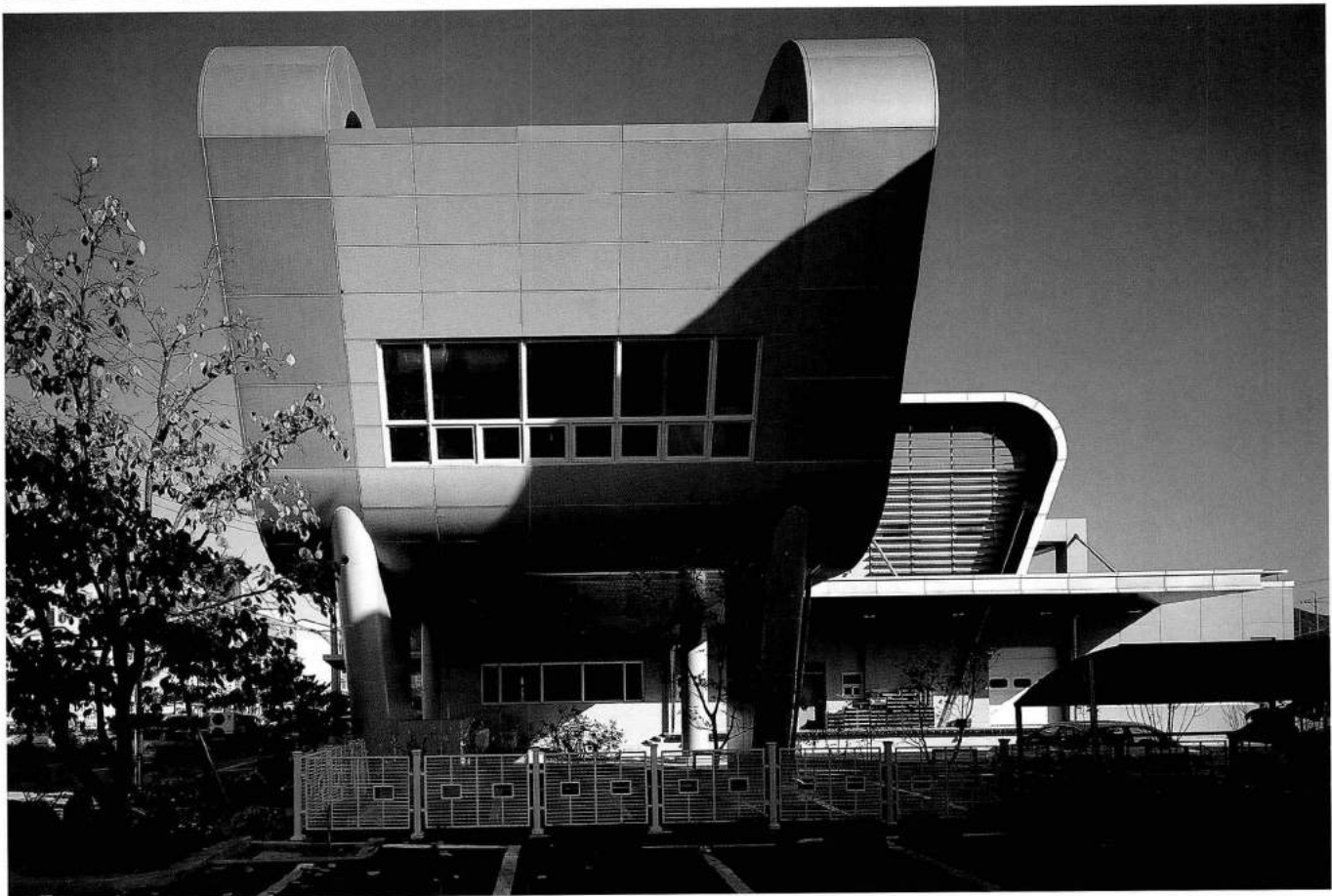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계획대지의 협소함으로 동선효율, 건축용적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요구되었다. 대형차량 진출입과 동선에 순응하는 건물축을 설정하고, 물류동선의 최적화를 꾀하였으며, 사무공간과 창고의 적절한 분리 및 유기적 연결로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 커튼월과 알루미늄복합패널로 세련된 입면을 연출하여 현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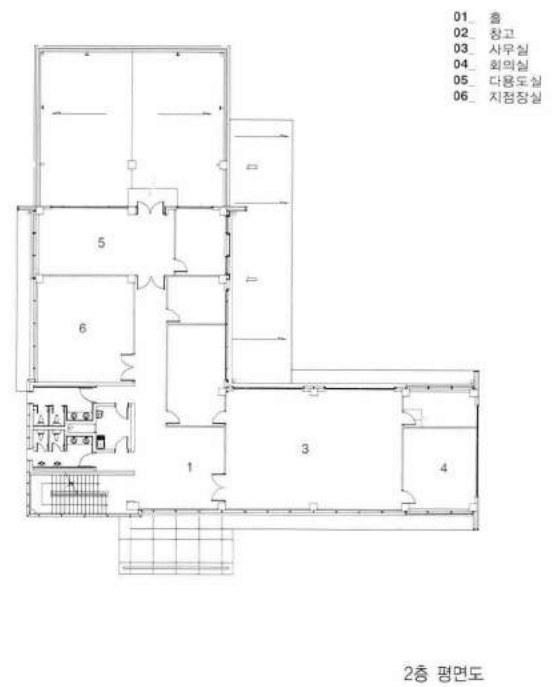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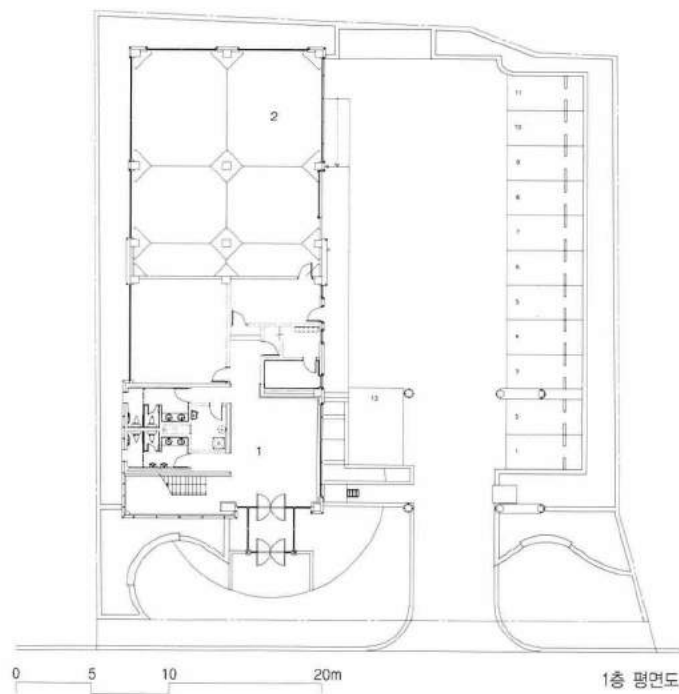
건물 배치는 주변 도로 상황을 고려해 차량출입과 보행자 출입을 계획하였고, 대지 남측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사무실에 자연채광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담배창고와 지점업무시설의 원활화를 위한 평면을 구성하여 담배창고 바닥라인을 'GL+700'으로 계획하여 데크에서 바로 상하차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체력단련실과 샤워실 설치로 직원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평면을 계획하였다. 입면은 솔리드(Solid)와 보이드(Void)의 적절한 대비로 전체적인 균형감을 유도하였으며, 깔끔한 마감재 사용과 사선을 도입하여 역동적인 이미지를 구현함으로써 KT&G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다. 圖





- 1. 차량출입구 전경 (Vehicle Entrance View)
- 2. 서측 전경 (West Side View)
- 3. 캐노피에서 본 사무실측 전경 (View from Canopy to Office 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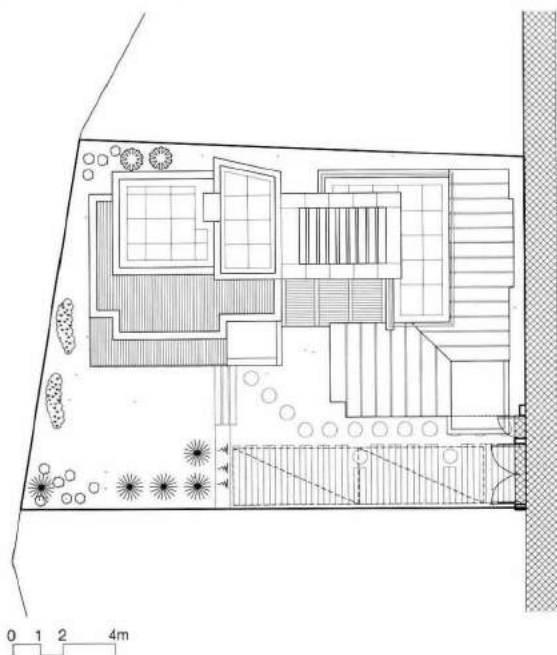


민제루(旻濟樓)-과천 양지마을 단독주택

Sky-Bridge House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484-2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278.00㎡
건축면적	118.57㎡
연면적	208.23㎡
건폐율	42.65%
용적률	74.90%
규모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베이스패널, 적삼목루버, 22mm칼라복층유리
내부마감	석고보드위 벽지마감, 목재위 무늬목마감, 목재후로링
설계담당	황유석, 송준호
인테리어	염은숙
구조설계	김준곤
설비설계	태양설비
전기설계	무림전기
시공사	주식회사 성지우 종합건설
설계기간	2005. 10. ~ 2006. 03.
공사기간	2006. 03. ~ 2006. 08.



Location	484-2, Gwacheon-dong, Gwacheon-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278.00㎡
Bldg area	118.57㎡
Gross floor area	208.23㎡
Bldg coverage ratio	42.65%
Gross floor ratio	74.90%
Structure	R/C
Bldg. Scale	F2



1. 도로에서 본 건물 전경
2. 전경



서울에서 인접한 과천으로 가는 남태령 고개의 좌측 남사면에 위치한 양지마을은 관악산이 인접한 자연그대로의 전원마을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양지바른 곳이다. 그래서인지 마을 이름이 양지마을이라 하는가보다.

주변 환경이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라 설계시 자연과 친화 할 수 있고 주변의 자연을 항상 느낄 수 있는 설계 컨셉을 가지고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다.

자연속의 주거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 자연 요소 중 자연친화적 주거환경을 구성 하며, 자연채광을 최대한 이용한 평면형태, 그로인하여 중정의 도입을 검토하여 다양한 주거 평면과 상징성을 완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주제의 중요성을 설계에 반영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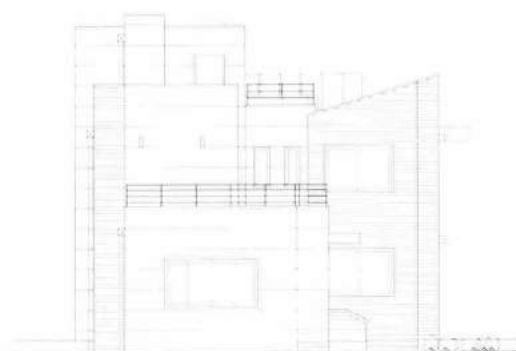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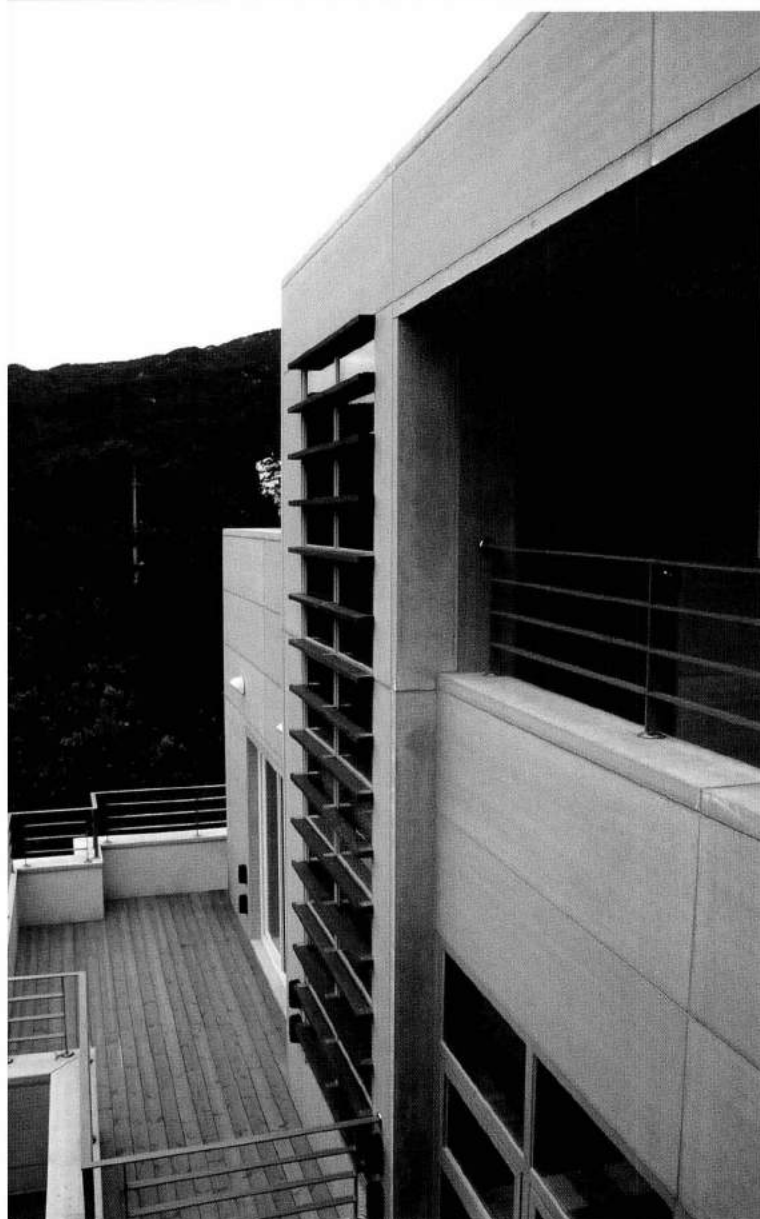
자연의 여러 요소 중 첫째로, 태양으로 인한 채광을 고려했다. 태양광의 온화하고 따뜻한 빛을 실내에 유입 할 수 있도록 중정을 구성하였고, 둘째로 주변 자연 조망을 고려하기 위해 주변의 자연조망 즉, 관악산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였다.

셋째로, 외장 재료 사용하여 대지가 위치한 양지마을에서 자연속의 전원 분위기를 연출 하기위해 목재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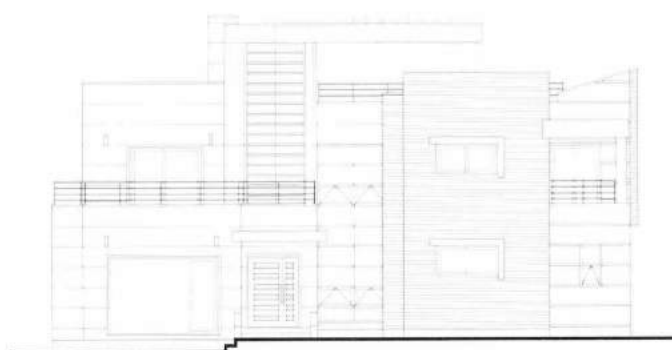
넷째로 상징성부여로서, 건축물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 휴게공간과 의장적 요소로 활용토록 설계반영 하였다.

다섯째로, 평면의 다양성을 주기위해 평면구성에서 중정을 설치함으로써 옥외공간의 옥내 공간화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자연 속에서의 자연친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건축설계를 마무리 할 수가 있었고, 건축사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건축주에게 감사를 드린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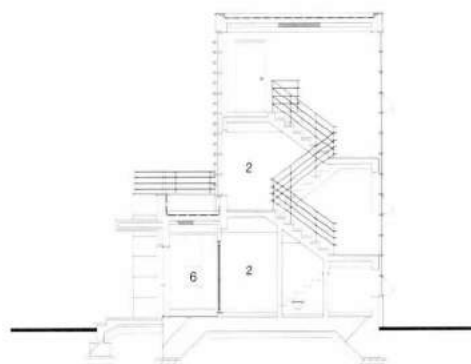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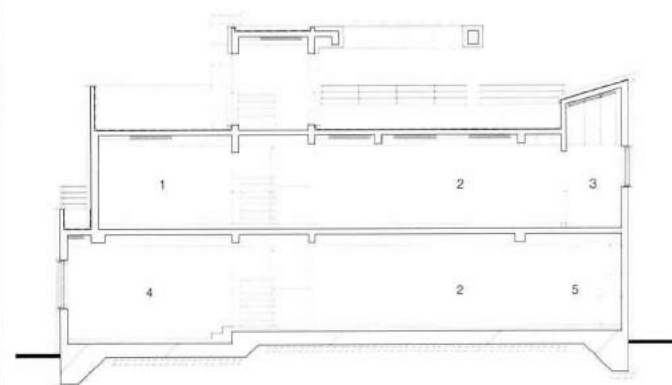


정면도

- 01. 침실
- 02. 복도
- 03. 화장실
- 04. 거실
- 05. 주방
- 06. 현관



단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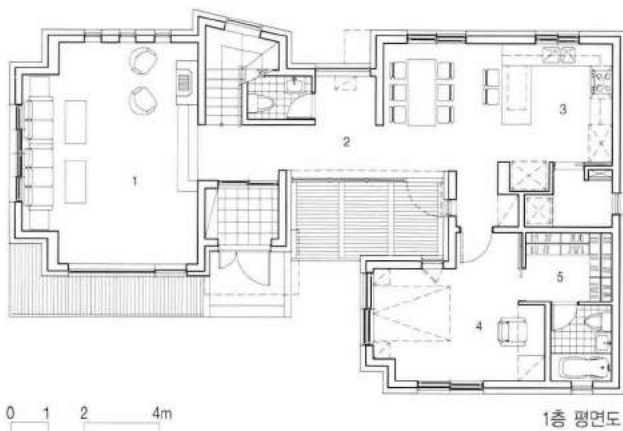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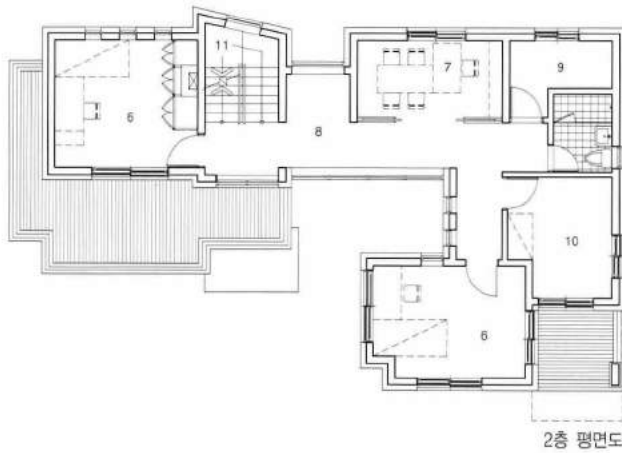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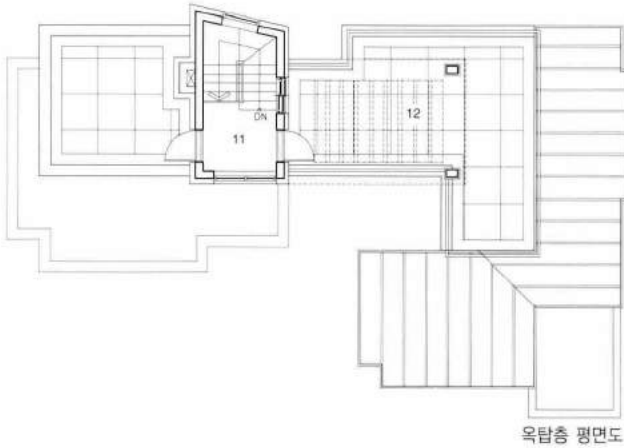


단면도-1

0 1 2 4m

1. 중형과 연결되는 1층 복도
2. 옥상에서 내려온 전경/관망선 조망
3. 1층 거실 공간이아는 주거공간을 구성
4. 중형 전경

- | | |
|------------|---------------|
| 01. 거실 | 07. 서재/가족실 |
| 02. 복도/가족실 | 08. 복도 |
| 03. 주방/식당 | 09. 보일러실/다용도실 |
| 04. 주인침실 | 10. 손님방 |
| 05. 드레스룸 | 11. 계단실 |
| 06. 침실 | 12. 옥상휴게공간 |



0 1 2 4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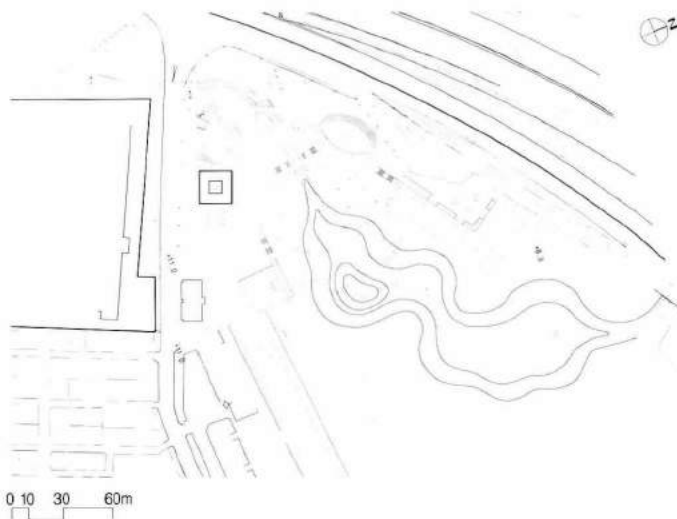


서울숲 생태습지원

Seoulforest Ecological Marshy Garden Office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124 (서울숲 공원북측 성수유수지 내)
용도	전시시설(사무실 및 공용화장실)
대지면적	69,000㎡
건축면적	319.91㎡
연면적	285.12㎡
규모	지상 1층
구조	가구식 목구조
외부마감	목구조 노출, 황토블럭, 목재사이딩
내부마감	목구조 노출, 황토블럭, 회벽바르기
구조설계	건양구조
시공사	현대건설
설계기간	2003. 08 ~ 2003. 12.
공사기간	2003. 12. ~ 2005. 6.
설계담당	최광순, 김재욱, 이정재



Location	685-124, Seongsudong1-ga, Seongdong-gu, Seoul, Korea
Site area	69,000㎡
Bldg area	319.91㎡
Gross floor area	285.12㎡
Structure	Wood
Bldg. Scale	F1
Design period	2003. 08 ~ 2003. 12.
Construction period	2003. 12. ~ 2005. 6.

1. 생태습지원 주변 경관
2. 위에서 본 건물 전경



장소에 대한 고려

생태습지원은 서울시가 독섬유원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전체 프로젝트 중 기존의 우수지를 생태습지로 조성하는 지역에 있는 홍보전시관이다.

주변 생태습지와 조화되는 건축물로서 생태습지원은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 연계, 에너지절약, 자원절약, 그리고 인간의 건강 및 쾌적성 향상을 고려하게 되었다.

생태건축적 특성

이런 원칙에 따라 건물에는 생태적 건축요소가 반영되었고, 구조 방식은 자연스럽게 가구식 목구조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생태습지원에 채택된 목구조 방식은 중정을 중심으로한 내부 'ㄱ' 자형의 낮은 높이의 가구와 복도를 구성하는 종간의 'ㄷ' 자형 가구 그리고 외피를 구성하기위한 건물외곽의 'ㄱ' 자형의 높은 높이의 가구가 경사진 서까래(Rafter)에 의해 서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지붕녹화로 건물로 인해 침해된 녹지공간의 훼손을 적으나마 보상하려 하였고, 에너지 절약의 부대효과도 얻으려 하였다. 지구 온난화의 한 원인인 화석에너지 소비를 줄였으면 하여 지열이용 냉난방

설비를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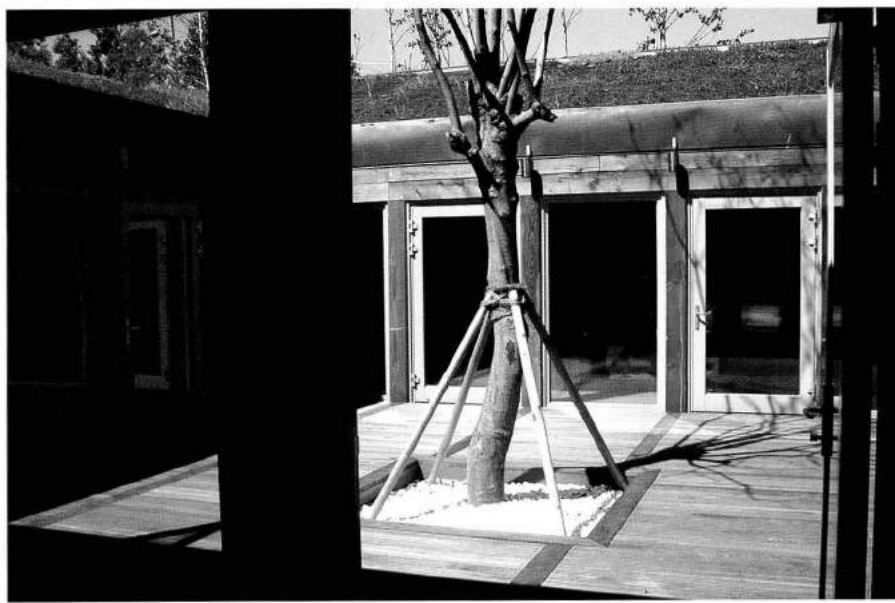
실내 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정 및 복도를 이용한 자연적인 실내 환기 조절시스템 채택하였고, 지붕을 경사로 처리하여 중정을 통한 일조가 충분하도록 하였고, 자연적인 습도조절기능을 가져 건강에도 좋은 황토블럭을 내장재로 사용하였다.

전통과의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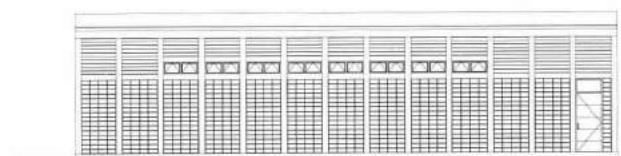
중정 및 지붕의 형태는 전통한옥의 중정과 그곳에서 보여지는 기와지붕의 형태에서 유추한 경사지붕 형태를 적용하였고, 전통 가구식 목구조를 응용한 가구법을 사용하였다.

내부공간적 외부공간으로 복도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내외의 어느 쪽도 아닌 중간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조형적 측면에서 벽체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와 상중하의 인방이 설치되어 구조적으로 해결된 뒤에 벽체의 면분할이 이루어지고 이 분할된 면을 황토블럭이나 창호로 채워 목조가구식의 선적 면구성을 표현하고, 천정의 경우는 회벽과 서까래라는 서로 다른 재료에 의한 흰색과 흑갈색의 대비를 이루면서 리듬있는 선적구성을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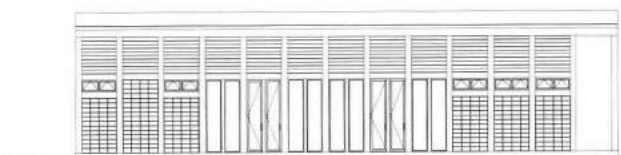
1. 외부에서 본 건물
2. 건물 내부 사무실 환경
3. 내부 중정 부분
4. 전시실과 중정 사이의 벽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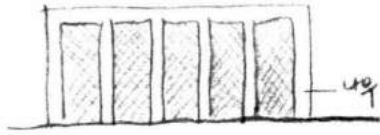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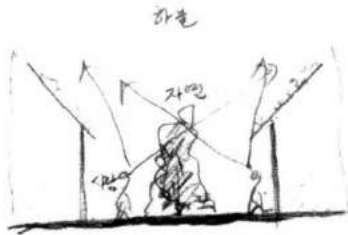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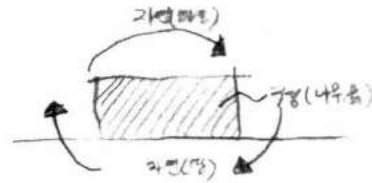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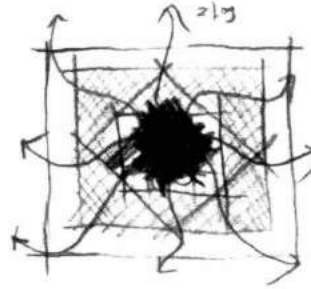
- 주변이 공원인 자연속에서 건축물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그속에 동화하고 흡수되어지는 솔직함을 표현한 것으로 허물을 벗듯 골조를 그대로 드러낸다.
- 단순하고 절제된 입면은 수평, 수직의 결구를 통하여 매스감의 상채 및 인간적 스케일의 디테일을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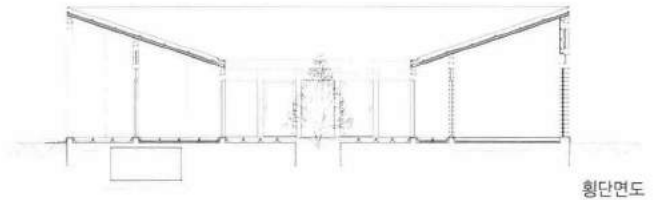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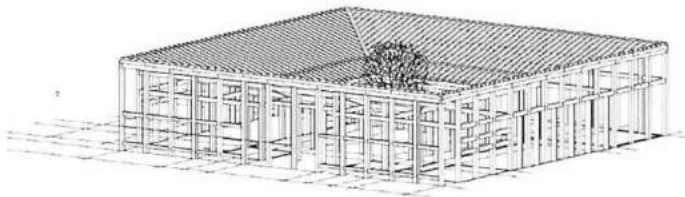
- 자연속에서 소극적이지 않은, 하늘을 향해 열린 증정은 내부공간에서 외부공간 너머로의 시각적 확장을 유도하는 동시에 내부 중심으로 쏟아지는 주변경관과 빛의 관념적인 수직축을 형성하여 강한 장소성을 갖는다.
- 자연과 건축과 인간의 동일시는 구분하지도 경계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자연속의 건축, 건축속의 사람이 아니라, 경계를 허무는, 그렇게 일체가 되는 공간을 말한다.



- 자연 속에서 그 자리 그대로 퇴색하여 무너져도 어색하지 않으며 또다시 그곳에 조그마한 공간을 만드는데 재활용 하여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재료(나무, 흙)의 구성이 필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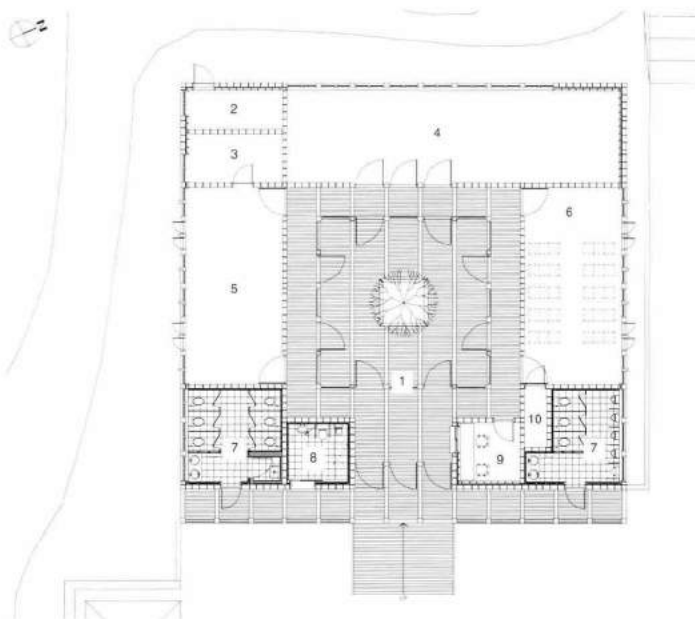


- 건물의 중심으로 사람의 시선이 모이는 그곳에는 서로를 보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말없이 서있는 자연이 세상의 중심인 것이다.



횡단면도

- | | |
|----------|-------------|
| 01. 홀 | 06. 세미나실 |
| 02. 보일러실 | 07. 화장실 |
| 03. 창고 | 08. 다목적 화장실 |
| 04. 전시실 | 09. 안내실 |
| 05. 관리실 | 10. 창고 |



0 1 3 9m

평면도



설계경기 | Competition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Chungmugong Yi Memorial Museum

당선작 / (주)건축사사무소 메타NC(우의정)
+ 이종호(한국예술종합학교)

대지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298-1
(사)현충사 준경내

지역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대지면적 29,587m²

건축면적 2,462.94m²

연 면 적 1,948.75m²

건 폐 율 8.32%

용 적 율 6.59%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규 모 지상 1층

외부마감 토벽, 컬러노출콘크리트, 투명복층유리,
잔다식재

설계담당 이상진, 이은숙, 최기호, 이진희, 김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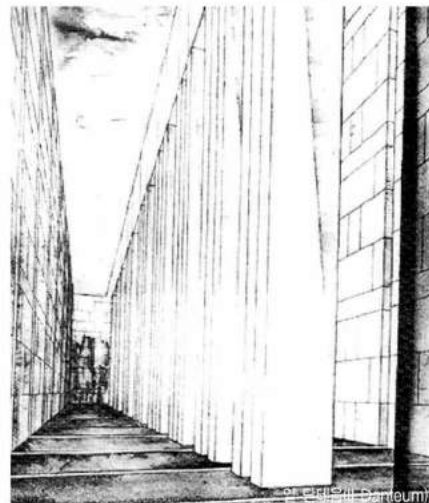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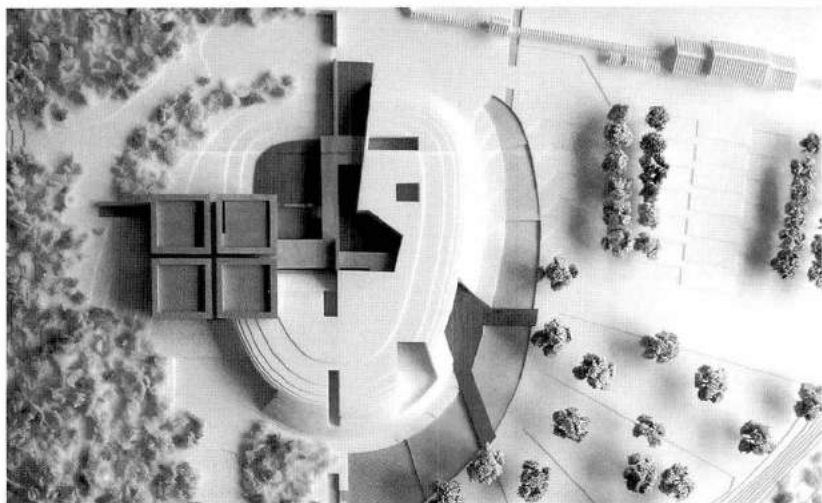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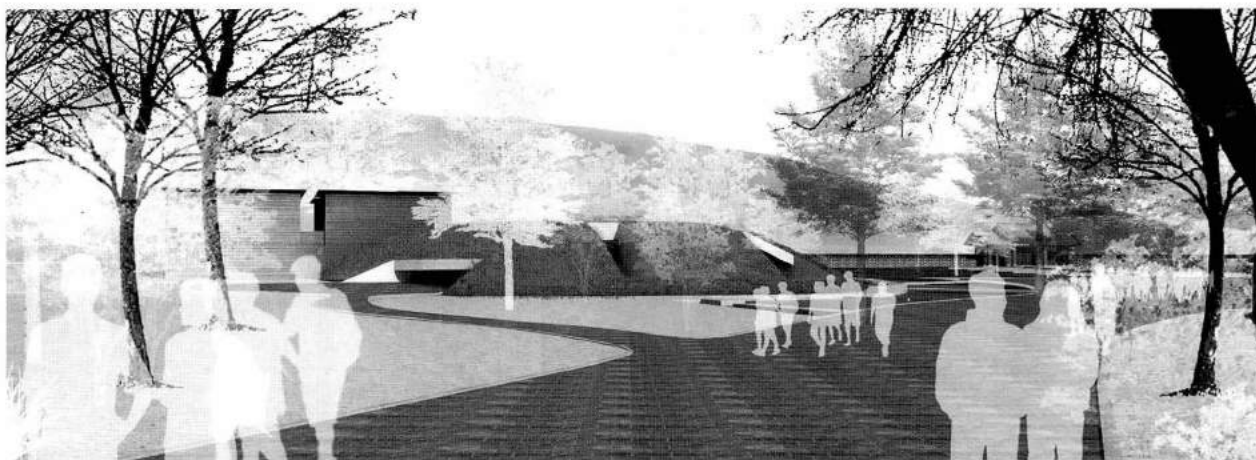
의미 있는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시
설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대부분 그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
역시 그 역사의 심층에 있지 않았던 사람
들에 의해 만들어 진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역사적 상상력으로
향하는 길은 매우 좁기만 하다. 설혹 그
시설에 의해 역사적 상상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해도 과제는 남는다. 만일 그 내
용이 일방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많은 시
설들이 그러하듯 기념의 의미에 대한 지
속적인 생성을 방해하고 소멸시킨다. 대
상은 과거의 시간 속에 머물고 현재로 소
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념행위는 기
념의 대상을 역사 속에 가두지 않는 생성
적행위여야 한다. 이미 합의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재현하기 보다는 그 역사
에 대한 능동적 해석을 유도해 냄으로써
수용자들에게 일종의 역사적 성찰이 이
루어질 수 있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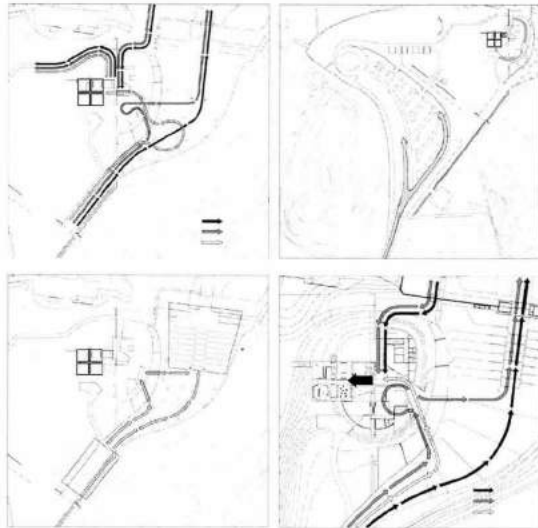
일 단테움(II Danteum)을 기억한다. 이
미 익숙한 문자서나 '신곡'이 독자들에게
일으키는 울림처럼 건축의 형태와 공
간에 의한 서사가 새로운 울림을 생성시
킬 수 있는가의 과제였던 것이다. 최종
적인 테라니의 방법은 '다중적 의미를
지닌 열린 작품'이었다.

오랫동안 익숙해져왔던 이순신. 어떻게
생성적으로 그를 대면케 할 것인가? 오
늘 그를 새롭게 해석시킬 새로운 공감각
이라도 만들어진 것인가? 아님 것이다.
다만 이순신, 그에게 다가서는 과정을
새롭게 할 수 있거나 그의 면모를 좀 더
미분화할 수 있을 뿐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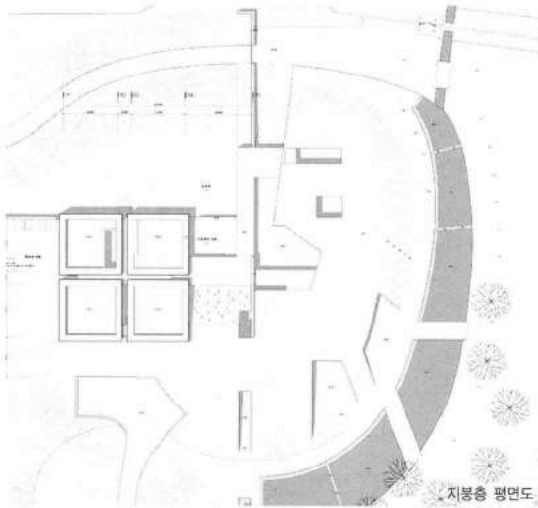
미분화는 '무엇을'의 과제며 다가서는
과정은 '어떻게'의 과제다. 그리고 과정
의 끝은 '열려진' 시설이기를 원한다. 다
시 말해 관람객 각자에게 다양한 의미가
새롭게 생성되어 울림으로 전해질 수 있
는 시설이기를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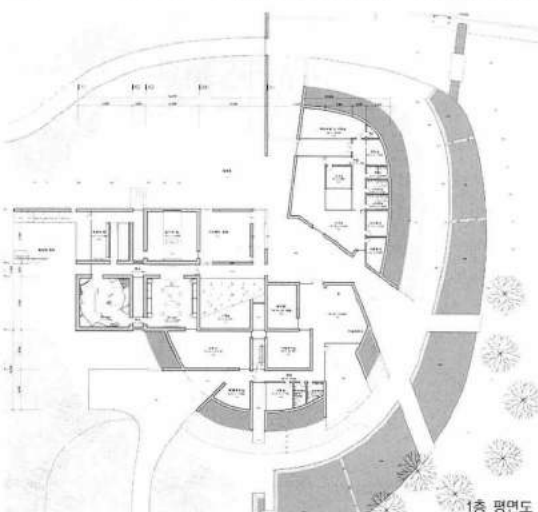
이순신 기념관의 기념행위가 이순신을 익숙한 역사 속으로 가두지 않고 관람자의 상상력을 추동시키며 새로운 울림을 생성시키는 일이 되기 위해 기념관의 계획은 새삼 '무엇을 기념할 것인지', '어떻게 기념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물으며 시작된다.



기념관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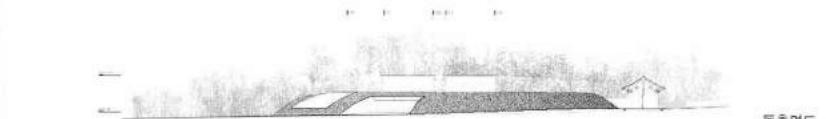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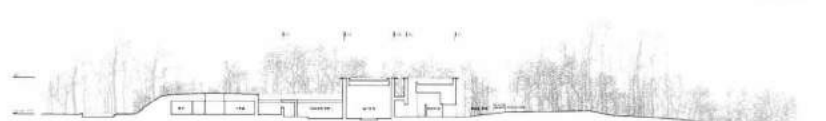
광역 배치도-1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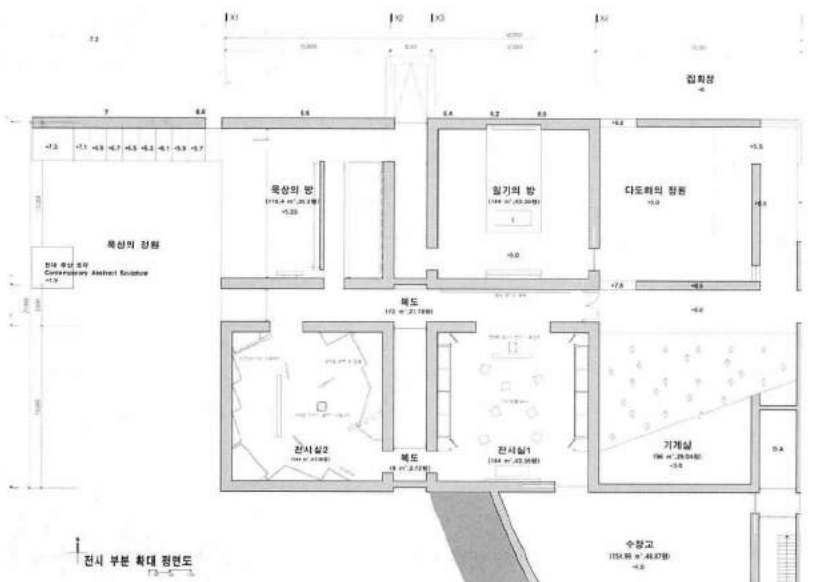
남측면도



A단면도



B단면도



전시 부분 확대 평면도

설계경기 | Competition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Chungmugong Yi Memorial Museum

우수작 / (주)구간건축 건축사사무소
(정현화, 임영수)

대지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298-1
(사)현충사 준경내

지역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문화재보호구역)

대지면적 현충사 준경내 영역

건축면적 524.75㎡

용도 전시시설

구조 전통목구조지붕,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1층

외부마감 화강석 통석 잔다듬, 전벽돌,
전통 마루널갈기, 전통목구조 +
한식기외지붕

설계담당 김석철, 김용범, 김현아, 유웅선

이순신 기념관은 사당인 본전을 중심으로 한 경내지역과 관람객과 참배객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경외지역 사이의 완충공간인 준경내 지역에 재배치하여 단순한 문화재 보존이 아니라 충무공의 호국정신의 계승과 문화, 교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장소로 기존 현충사를 재정비하기 위한 계획이다.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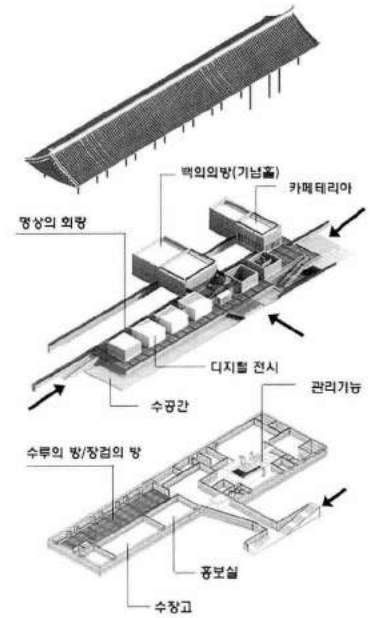
경외지역의 신정문과 경내지역의 충무문을 연결하는 진입축을 설정하고 기념관, 옥외전시장, 야외행사공간을 배치하여 기존의 문화유적과 주변환경에 조화될 수 있도록 현대건축과 고건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기존수목을 보존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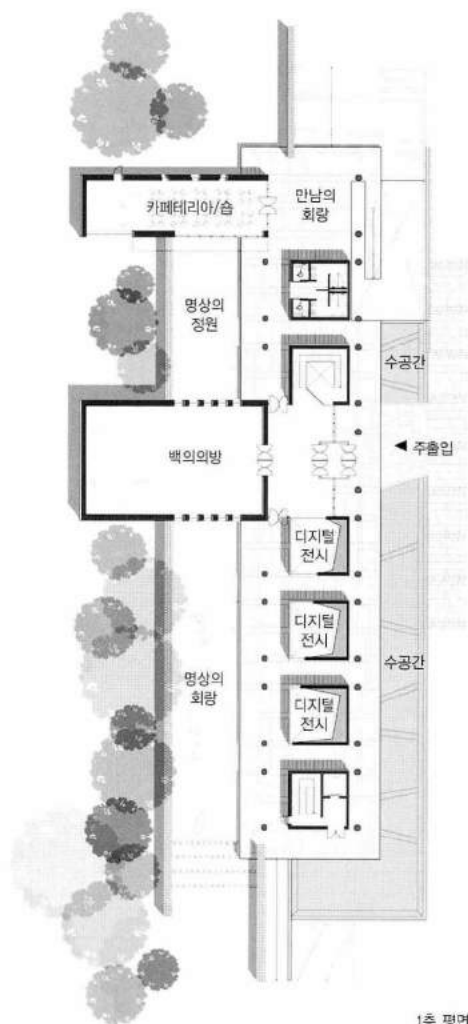
평면, 단면, 입면계획

- 1층에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담은 공간과 기존의 수목과 연계한 명상의 회랑, 교육 홍보할 수 있는 디지털 전시 공간을 배치하고 그 외 유물 전시장과

홍보관, 사무실은 기능별로 분리, 통합하여 지하층에 배치하였다.

- 현대적 전시공간으로 계획된 하부층과 기존 현충사의 경내환경과 조화되는 고전적 외관의 상부층으로 형성된 기념관은 수직, 수평 동선체계에 의해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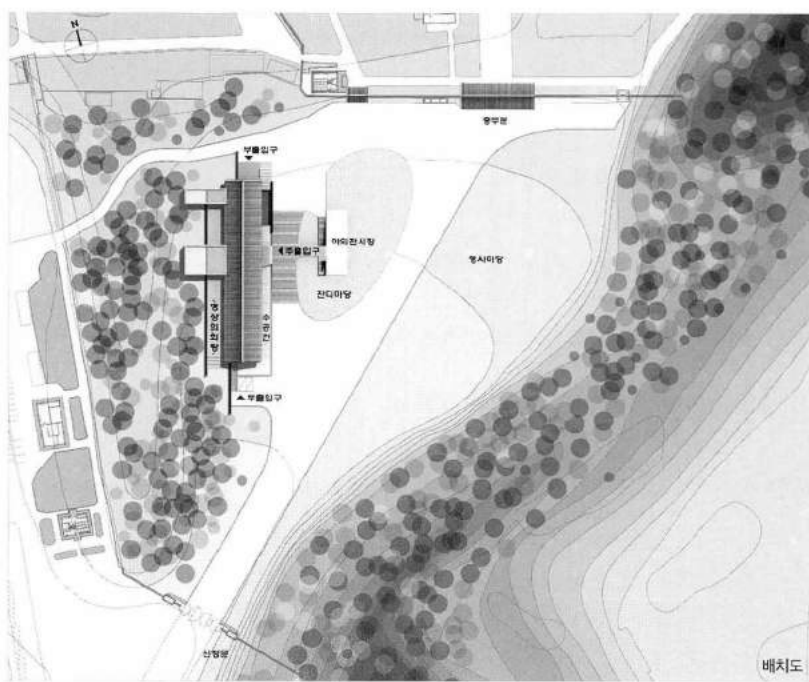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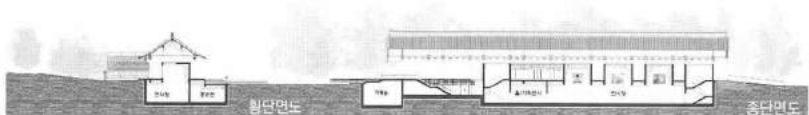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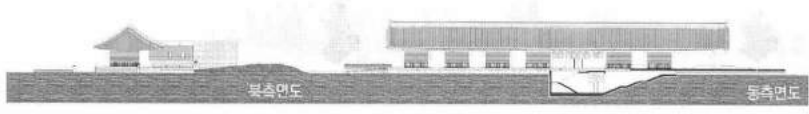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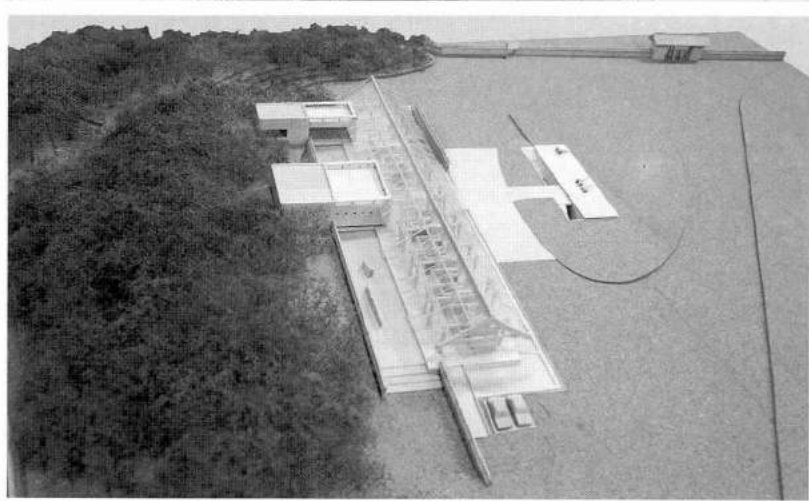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배치도



설계경기 | Competition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Chungmugong Yi Memorial Museum

우수작 / 건축사사무소 O.C.A(임재웅)

대지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298-1 (사)현충사 준경내
대지면적 현충사 준경내 영역
건축면적 919.84㎡
연면적 1,940.46㎡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1층
최고높이 3.6m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THK24 복층유리,
전시 및 소통의 벽-불투명강화유리
국시기(프로젝트 디자이너), 서형준,
설계담당 박승진, 서화원

조경으로의 건축

경내에 건물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주변 지세와 환경에 어우러지는 다양한 조경적 요소들로만 구성된 새로운 개념의 기념관을 제시함.

다양한 외부 전시 공간

- 전시 및 소통의 벽 : 신정문을 들어서서 충무문을 향하는 관람객들은 옥외 전시연못과 함께 전시및 소통의 벽을 왼쪽으로 만난다. 이 벽에서 관람객은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특히 LCD 모니터를 통하여 소통 가능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옥외 전시 연못 : 남해안의 지도를 그대로 재현한 옥외전시 연못에서는 여섯 해전의 위치 및 이순신 장군의 전략 등을 실지로 지도상을 오가며 배우

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이다. 해당 해전의 위치에 설치된 LCD 모니터에서 당시 해전의 생생한 장면을 감상할 수도 있다.

- 경사 진입로 : 옥외 전시 연못을 관통하는 경사 진입로를 내려가면서 달라지는 눈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들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전시를 접하기 전에 다양한 생각에 잠기게 하는 매개의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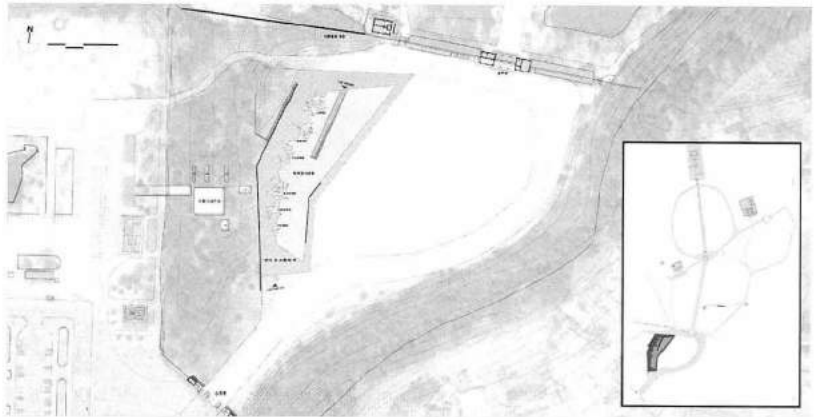
새로운 개념의 전시 공간

- 경사로 전시 공간 : 일반적으로 몇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시 공간과는 달리 전시 진행 방향으로 내려다보면서 전시장 전체를 느낄 수 있다. 각각의 전시 관람에 집중하면서도 경사로로 이동할 때에는 전체 전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이충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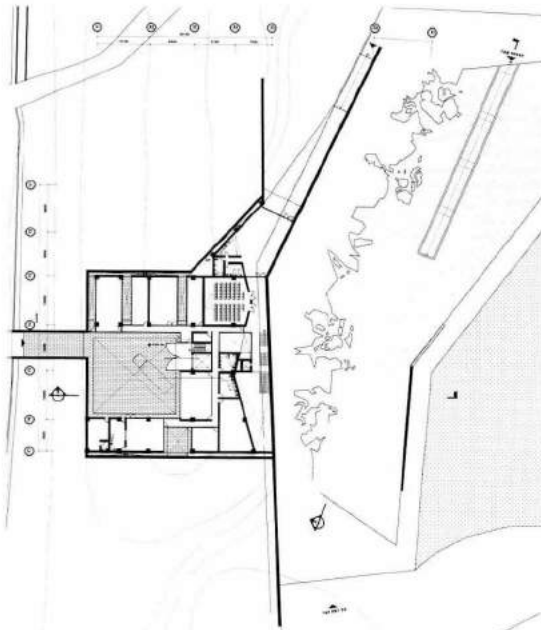


공 기념홀도 경사로 전시 공간 가장 아래에 위치하면서 전시의 클라이맥스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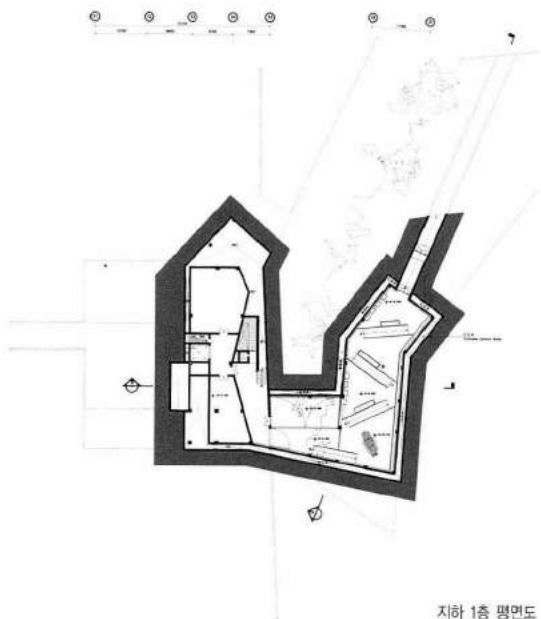
- 가변적 기획전시장 : 기획 전시장은 가변적 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획 전시의 성격에 따라 상설 전시 마지막 부분과 연계하여 대형 전시 공간으로 쓰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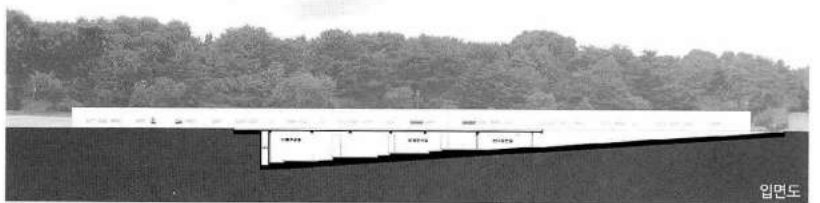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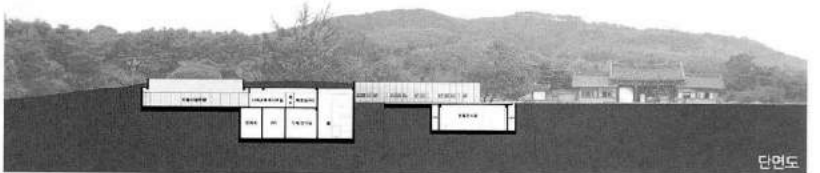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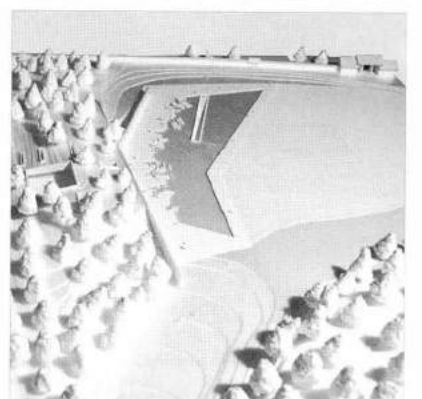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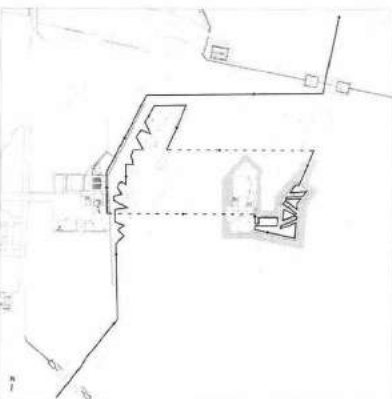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설계경기 | Competition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청 청사 신축공사 Incheon Seobu Office of Education

당선작 / (주)토우종합건축사사무소(박형배, 한상범) + 이영(경원대학교)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48-2번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대지면적	5,400.00㎡
건축면적	1,470.74㎡
연면적	7,248.46㎡
건폐율	27.24%
용적률	84.06%
용도	업무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외부마감	커튼월, 노출콘크리트, 베이스 패널, 적삼목
설계참여	전수현, 황해완, 백종현, 이남휘, 최두호, 김석열, 김주형, 김현, 이영주
발주처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청

그린 네트워크의 실현

계획부지는 인천 서구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주변은 일부 근생지역을 제외하면 전형적인 전원풍경을 가지고 있고 대지 내 레벨차로 인해 단면계획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했다. 또한 도시 간선도로인 40m도로가 도시축을 형성하며 대지와 경계로 면해 있어 상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 다행히 대지주변에 하천과 수목지역이 있어 전망이 뛰어나고 자연과의 교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형성과 연계, 조함과 확장

매스의 배치는 대지레벨을 적절히 활용하여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맞는 매스의 형성과 적절한 오픈스페이스의 연계가 큰 관건이었다. 그래서 대지의 남쪽에 위치한 전면 도로쪽으로 주출입구를 두어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최대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였다. 주변 자연과의 연계를 고려해 매스의 본질을 통한 아트리움을 계획하여 중복도의 답답해지기 쉬운

건물에 햇빛과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각과 빛이 조화된 공간계획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복도와 실을 배치하고 중간 중간에 데크를 활용하여 내외부공간의 상호연계를 꾀하였다. 또한 중심광장에서 2층 로비로 진입하는 Green Corridor는 건축화된 녹화지형으로 자연에 대한 적극적인 확장을 시도하였으며, 옥상에는 정원을 만들어 주변 공원과 더불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쉼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식당과 대회의실이 위치한 지하공간은 중심광장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선큰계단을 두어 접근성을 확보하였으며, 대지레벨을 적극 활용해 대지 북쪽으로 채광과 환기를 도모하였다. 또한 중심광장의 수공간은 주변 자연과 어우러져 시각적, 청각적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열린 교육청으로서의 이미지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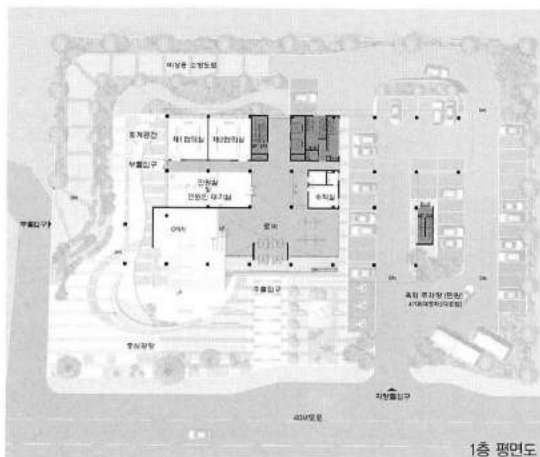
투명성을 강조한 개방적인 이미지를 위해 입면에 커튼월을 사용하였고, 적삼목의 수평루버를 활용함으로써 자연친화력을 위해 노력하였다. 지붕의 수평프레임을 계획함으로써 매스의 통일감과 단조로운 입면에 긴장감을 주었으며, 아트리움을 통한 수직적 공간통합과 Green Corridor를 통해 열린 교육청으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였다.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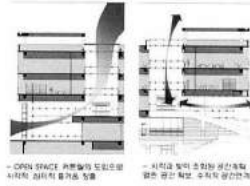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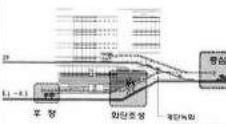
1. 입면 계획

도시의 리듬언어를 학습한 정형화적인 입면계획
- 대차장들과 포괄적인 구상도로 환경친화적인 입면 계획
- 입면의 통일적 디자인, 수직적 공간의 통합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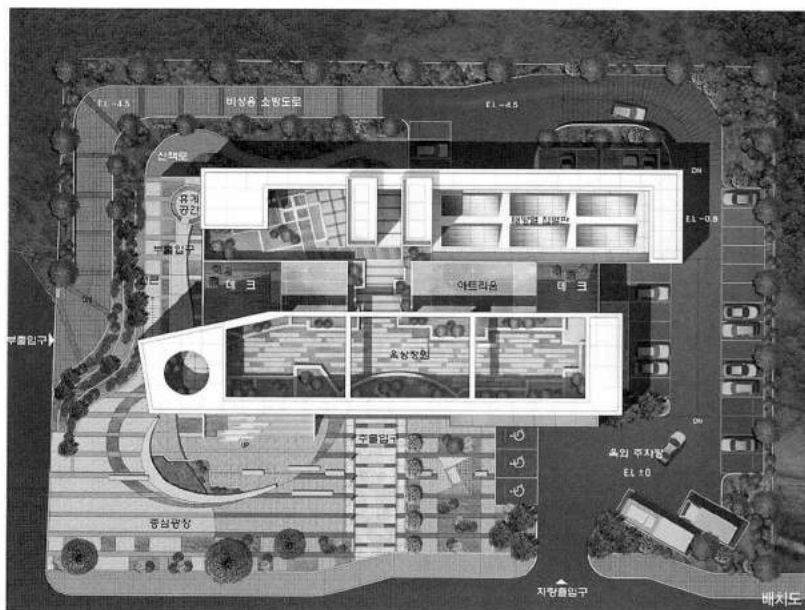
GREEN CARPET

- 자연 지형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시가로 물이 흘러 내려가는 구간



유기적인 공간의 구성
- 유리 커튼 월의 투명성과 개방성
- 아트리움에 의한 외부공간과의 연계(시선, 시간의 확장)
- 외벽을 통한 공간의 개방성, 공간의 통합 연출
- 입면의 통일적 디자인, 수직적 공간의 통합 연출

유기적인 공간의 구성
- 유리 커튼 월의 투명성과 개방성
- 아트리움에 의한 외부공간과의 연계(시선, 시간의 확장)
- 외벽을 통한 공간의 개방성, 공간의 통합 연출
- 입면의 통일적 디자인, 수직적 공간의 통합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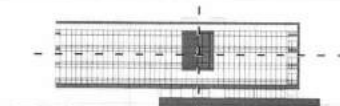
1. 입면 계획

건물과 자연과의 유기적 조화

- 투명성과 개방적인 교육청 이미지 표현
- GREEN NETWORK BRIDGE에 의한 내부 외부 영역의 연속성

분류감있는 다양한 입면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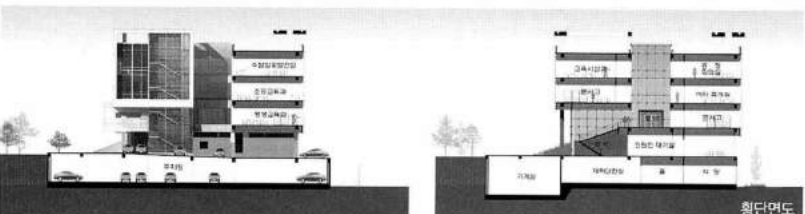
- SOLID와 VOID의 대비를 통한 친밀유도
- 무거운 느낌의 수평적인 테스를 띄우는 항상지움 표현



- 메스의 통일감 부여
- 단조로운 입면에 긴장감 구현
- 안정적 시선의 배분



미래지향적 교육청의 역동성 부여
- 지평을 역승한 입면의 외부로부터의 확장 및 연계
- 반박적인 입면요소와 도입으로 리듬감과 질감감 유도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청 청사 신축공사 Incheon Seobu Office of Education

우수작 / (주)티씨엠씨 건축사무소(김태영)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48-2번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5,400㎡
연면적 7,028.29㎡
건축면적 1,239.43㎡
주 용 도 공공청사(교육청)
건 폐 율 22.95%
용 적 륜 75.54%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발 주 처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청
설계담당 임기환, 송완규, 강영필, 강신원, 계정민,
 강태곤, 이재용, 김혜련, 이문형

철마산으로부터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흐름을 열어주고, 공촌천을 통해 우리와 자연의 새로운 만남을 유도하는 열린공간으로서 '서부교육청사'는 이렇게 건물이 아닌 자연의 일부가 된다.

배치계획

주어진 전체 대지를 공공의 광장으로 해석하고 계획하는데 있다. 추후 공촌천의 테마공원으로 열린 필로티는 다목적 기능의 데크 마당으로 계획되어 근무자, 이용자, 인근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이다. 대지를 관통하는 어귀마당에서 공촌천으로 이어진 동선은 자연스러운 선형을 이루며 전체의 외부공간이 주제와 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적 공간(어귀마당-어울림마당-비람못-마루쉼터-열린마당-Eco Bridge-하천생태공원)으로 자연의 흐름과 동일선상을 만든다.

평면계획

전면도로와 대지 고저가 약 4.2m의 차이가

나는 대지조건을 활용하여 지하층에 주차장, 열린마당과 연계된 직원식당을 계획하였고, 저층부는 민원관련실을 집중배치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계획하였다. 또한 주변자연환경의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층부에는 각 방향으로 휴게데크를 설치하여 업무환경 개선과 조망을 극대화 하였으며 옥상정원을 두어 직원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였다.

입면계획

우선 도시축과 자연축에 따라 매스의 형상을 도출하고, 지역성을 현대적 이미지로 구현함과 동시에 전면도로로부터 상징성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커튼월을 사용하여 미래지향적인 외관을 표현하였고 개방성과 투명성에 기능을 부각하여 비상하는 현대적 리듬감을 표현하였다.

단면계획

각 시설별 독립성을 확보한 층별 조닝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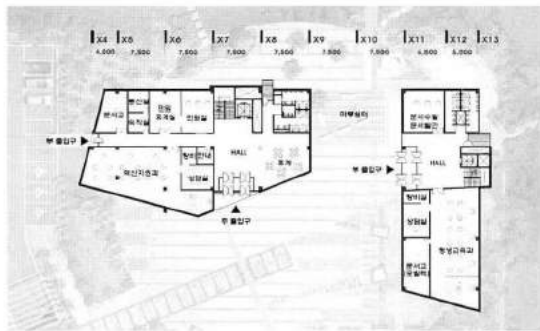
고, 주변 자연환경과의 소통과 관입에 역점을 두었으며,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한 효율적인 계획과 자연지형 형상에 순응한 단면계획으로 절토량을 최소화하여 공사비 절감에 역점을 두었다.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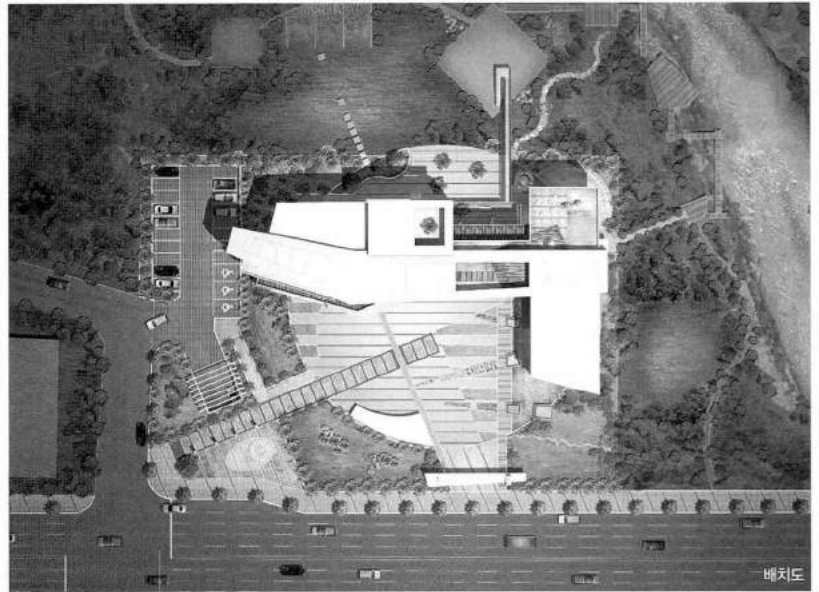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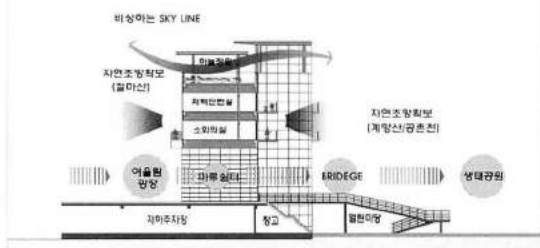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단면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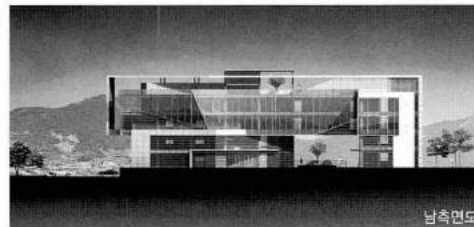
- 진입부 2개층 open으로 광천으로의 통풍속 확보 및 개방감 형성
- 통풍한 입방공의 zoning으로 연계성 형성



- 진입부 2개층으로 부터 광천까지 연속적 개방감 및 공간적 연계성 확보
- 내부부 휴게공간과 휴식 이용정원을 통한 역동적인 공간연출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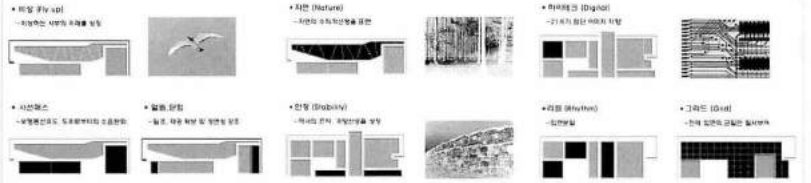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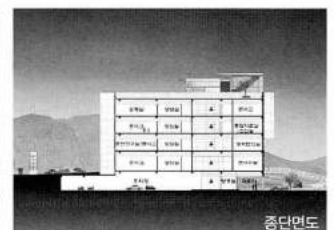


동측면도

입면개념



서측면도



북측면도

문화의 교류, 한국의 외국건축-11(完)

Exchange of Cultures :
Foreign Architect-Designed Buildings in Korea

패션게임 - 소비의 사막

Fashion Game : Desert of Consumption

01_ 연재를 시작하며

박길룡 /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02_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윤인석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1 양풍건축의 이입

2-2 서양건축가들의 활동

2-3 압제자의 건축

03_ 한국의 근대건축과 외국건축

안창모 /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3-1 해방공간의 이데올로기와 남·북건축

3-2 서구건축문화의 이식통로-원조프로그램과 한국건축계 재편

3-3 타자를 위한 건축과 그 속의 우리건축

3-4 세계로 열린 창-올림픽과 도시·건축의 변화

04- 단편(斷片)적 도시경관의 고고학

구영민 /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4-1 수직의 욕망

4-2 애브뉴 오브 아메리카

4-3 패션게임 - 소비의 사막

패션게임 - 소비의 사막

구영민 /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Koo Young-min

아시아의 용(龍): 지구화된 도시, 도시화된 지구

지난 10여 년 동안 거세게 불어 닥친 세계화 열풍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풍속도를 바꿔놓을 만큼 위력적이었다. 특히 중국의 변화와 진보는 아시아 주변 국가들을 위협에 빠뜨릴 정도로 급진적이었다. 아시아 각 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계화 도시를 계획하고 있을 무렵, 상하이는 이미 푸둥(Pudong)을 앞세워 소위 전 지구화된 도시(The City of Captive Globe)의 표본으로 성장해 버린 것이다.

세계를 주도하는 500여개의 다국적 기업 중 260여개가 중국으로 진출했을 정도로 중국은 이미 공인된 세계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상하이에는 모든 형태의 세계적 브랜드와 상품이 몰려들었고, 다국적 기업들의 입주와 부동산 개발이 어질러 놓은 경이로운 도시의 경관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다.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거리의 코너마다 맥도날드와 쉐넌키 프라이드치킨, 그리고 스타벅스의 새로운 간판이 매주 들어서는 듯했다. 요리의 천국이라는 중국에서 미국식 햄버거와 닭고기 가게가 성황을 이루고, 전통적인 차(茶)의 나라에 커피점이 들어차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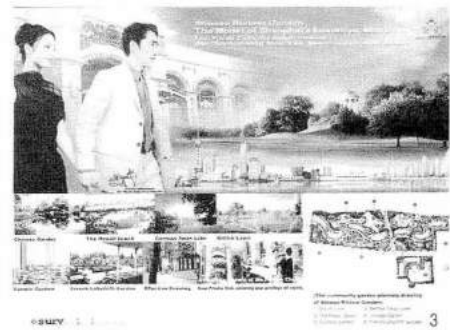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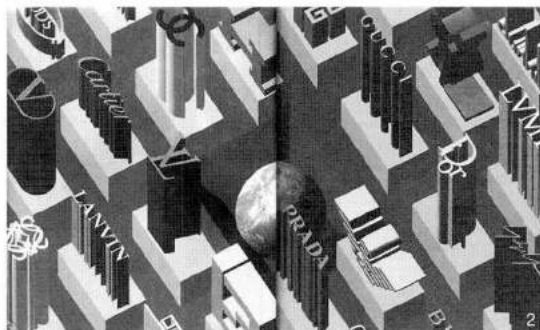
'세계의 공장'으로 알려진 중국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기이한 현상은 패션의 세계적 브랜드 회사들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힘들게 번 돈을 아주 쉽게 다시 뺏는다는 전락일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고급브랜드, 명품 점은 중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시장의 하나로 성장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의 경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 전역에 20~30개의 매장을 열 계획으로 있으며, 프라다(Prada)는 2006년까지 4천만 불을 투자했다. 같은 해 루이 뷔

통(Louis Vuitton)도 상하이에 전 품목 상점을 열고, 일년 안에 13개의 상점을 개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동향은 양질의 생산품과 시장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겠으나 단시간의 무리한 사세(社勢)확장은 질적 향상의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도 있다. 양적 팽창에 전력을 하다 보면, 다국적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크고 과감한 행태를 보이게 된다.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기보다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기업들은 시장(市場)에서 이미 성패 여부가 평가됐던 제품들을 도매로 내다 파는 '문화쓰레기의 수출'을 감행하게 된다.

조르지오 아르마니, 프라다, 루이 뷔통, 스타벅스와 같은 다국적 상장을 급하게 이식 조직(trans-plantation)하는 행위보다 더 불온한 태도는 유명 건축과 도시의 스타일을 도매 급으로 이식하는 짓일 것이다. 중국은 십년의 세계화를 통해 이름만 명품인 오래된 유행을 가져다 심기에 급급했다. 상하이를 가득 메운 수많은 명품 건물들은 뉴욕이나 홍콩, 또는 런던에 있는 건물들과 같이 상당한 품위를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주변에 개의치 않는다"이다. 결국 상하이는 외국으로부터 공수해 온 상자 꼭 같은 건물들을 아무데나 배치하여 만들어낸 메트로폴리스의 거짓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스타일이나 외국품의 장식을 덧댄 건축에 집착해 있다. 분위기와 이미지는 판매 전략의 필수 조건이 되었고, 구매자들도 외관상 외국 어디선가 직수입된 듯한 건축의 도상학적인 요소에 환호한다. 이 전략은 소위 '제휴에 의한 가치' 상승의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예컨대 중국산 레드와인에 프랑스



1. 상하이 푸둥의 경관 2. 패션의 제국, 상하이를 비유한 도시 풍경: dA, Shanghai, Issue 05 표지 디자인
3. 중국의 개발업자들은 더 이상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미국적 정취와 라이프스타일을 팔고 있는 것이다: dA, Shanghai, Issue 05



4. 아파트 내에서 벌어지는 고급문화 생활 스타일을 부각시키는 아파트 광고화면
5. 부재하는 장소성(실제), 그리고 차별화를 통해 동질화의 욕망을 유도하는 아파트 광고문구



성(城-chateau)의 그림이 그려진 상표를 붙이는 전략이다. 중국 산 와인을 프랑스제로 속여 판다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와인의 분위기를 파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건축의 경우에서 더 깊숙이 관여한다. 프랑스식의 빌라를 짓고 나서 부동산 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구매자들을 현혹 시킨다: “당신들을 마술처럼 프랑스로 이주시켜 드립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프랑스어를 하게 되고, 생활 패턴도 프랑스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개발업자들은 더 이상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미국적 정치와 라이프스타일을 팔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 국제화의 요구 속에서 건축의 동향은 모두 실체가 아닌 스타일로 재현되기 시작했다. 건축과 도시는 더 이상 공간과 장소, 그리고 삶을 고민하지 않게 되었다. 전 세계 어느 도시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똑 같은 맥도날드와 똑 같은 루이 뷔통 스토어, 똑 같은 스타벅스(Starbucks)와 같이 익숙한 것에서 ‘편안함’을 찾는다. 오늘날 미디어는 이러한 “같음”을 생활 깊숙이 번지게 하였다. 어느 도시를 방문해도 똑 같이 생긴 오피스건물과 쇼핑 몰, 아파트와 랜드스케이프를 발견하게 된다. 같지 않음으로부터 오는 불안함, 트렌드에 대한 거부로부터 오는 소외감보다는 세계화가 몰고 다니는 균질화와 동질화에 묻혀 사는 쪽이 ‘편안’한 삶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고급 빌라나 아파트 광고에 더 이상 공간 구성이나 배치 평면을 설명하는 문구는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이패션의 라이프스타일을 문화의 이름으로 위장시켜 위화감을 조성하고, 차별과 소외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문화의 탈(脫)

중국 얘기로 말문을 연 것은 세계화가 트렌드와 스타일의 붐을 통해 건축의 부재를 부추겼으며, 중국의 도시공간을 실제 없는 보이드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들춰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네 환경을 점검해 보자는 의도도 있었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이 특이한 현상은 근대건축운동이 실패한 원인과 그 근본이 유사하다. 요컨대, 근대건축운동은 건축을 역사와 무관한 현상으로 보는 신 실증주의적 관점과 시대정신(Zeitgeist)에 입각한 기술 및 문화적 진보에 집착하여 건축을 오로지 정치적, 경제적 조건의 결과물로서 간주했기 때문에 도시로부터 건축을 축출시키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건축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사적 영역으로만 축

소하려는 관습은 건축이 가지는 공공적 차원과 객체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 공간의 의미를 박탈했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건축의 내향성은 건강한 자기반성의 기회를 놓치게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양적 위주의 경제성, 기술성 및 기능성에 대한 자기 해석에 집착하도록 만들었다. 더욱이 지역적 특질에 대한 적응성을 무시하고, 보편성에 근거한 원리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근대건축은 “장소성”(보다 질적 위주이며 실존주의적 측면)에 대한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지금 중국이 딱 그렇다. 공산화 때문에 뒤늦은 근대화와 현대화, 그리고 세계화를 추격하다보니 자기반성과 재조명의 여유를 부릴 수 없었다. 또한 건축의 형상 자체를 정치적 경제적 성공의 성상으로 여겨, 무조건적으로 높은 건물을 세우다가 결국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만신창이가 돼 버린 것이다. 결국 오늘날 중국의 대도시들은 실체가 없는 건축을 양산하며, 도시를 가상현실의 공간으로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와의 제휴를 통해 문화의 가치를 재생산 하려는 욕구는 패션의 건축, 또는 건축의 패션을 추구하게 하였으며, 고급 브랜드와 명품에 대한 취향은 끝없이 부풀어 갔다.

세계화의 돌풍이 아시아를 휩쓸고 지나 간지 10여 년이 지난 20세기 종반부에 한국에선 ‘한국성’이라는 주제가 자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대개가 전통과 집단적 기억에 근거한 무작위적 결론을 도출시키기는 했지만, 적어도 국내에선 자기반성의 기회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었다. 건축도 예외는 아니었다. 88년 서울을 올림픽 이후 급격히 늘어난 해외 건축사들의 한국진출과 WTO 협정에 따른 건축시장 개방 압력으로 그 답론은 더욱 격렬해졌다. 대표적으로 ‘이 시대 우리건축’이라는 테제를 가지고 건축사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일기도 했지만, 세계적 흐름을 등지고 벌어지는 열띤 논쟁은 마이동풍(馬耳東風)의 경지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도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건축을 한다는 숙명이 지워준 강박 때문에 이 마조히스트적 답론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 한국성이 전통성이라는 조금은 식상한 주제가 변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있었다. 한국성에 대한 모든 논쟁의 발단은 언제나 ‘우리나라’, ‘내 것’이라는 족두리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집단적인 화두를 통해서 우리만의 각질을 뒤집어 쓴 후, 모든 이들의 관심을 내향적으로 집중시키려는 일종의 정치적인 음모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냈다. 어쨌든 이러한 답론이 형성됐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식민시대와 신 식민시대라 일컬어지는 세계화가 주도하는 오늘날의 세계정세를 통해 서울과 같은 세계의 반 주변부(semi-periphery) 도시는 또 다시 서구 열강이나 일본과 같은 식민 모국의 수탈 대상이 되거나 정책 실험의 장이 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쟁은 소위 ‘건축문화



6. 21세기의 장밋빛 청사진의 일부-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다이어그램으로 21세기의 문화를 전하고 있다.

의 해'를 맞게 되는 1999년도를 기점으로 그 정점에 다다랐다. 건축이 문화의 영역임을 뒤늦게(?) 깨달은 한국 사회에 무엇인가 새로운 각서를 내밀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한 몫 했을 것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건축의 문화성이 홍보되고, 전국적으로 '문화의 해'를 기념하는 전시회와 세미나가 열렸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인 행사는 소수를 위한 옆집 잔치로 끝나 버리고 말았다. 1999년도 신문지상에 실린 「21세기 한국비전」의 대부분은 '최첨단, 신도시, 정보 통신, 초현대, 국제적'이라는 수식어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문화의 내용이 전무했다. 관료적인 문화 취향은 건축, 도시, 환경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수평적 공간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또 다시 우리의 도시는 수평적 관계 속의 어우러짐 없이, 늘 새로워지고 날마다 다시 죽는 스텐트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문화적인 공간으로 남겨지는 듯했다. 그 속에서 한국성이나 건축문화나 하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올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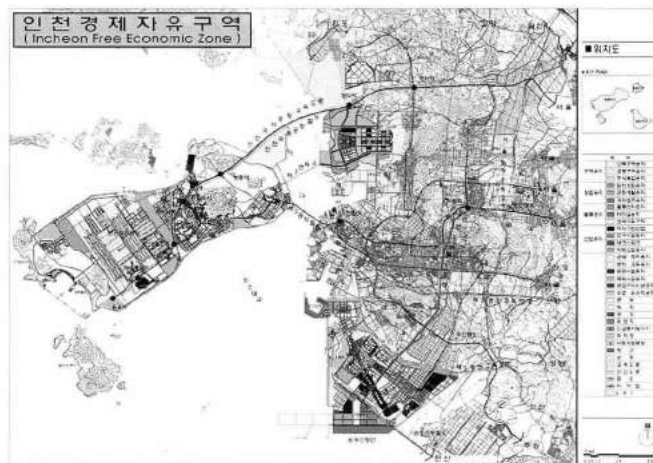
그런데도 지난 세기 동안 지속돼 온 세계화는 21세기에 이르러 '문화'로 압축되기 시작했다. 1999년도 말, 「예술의 전당」의 디지털 전광판에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불안한 홍보문구가 표시되고 있었다. 이 불안은 가뜩이나 뒤숭숭한 한국 건축이 중국처럼 문화의 이름으로 들어 온 스타일과 트렌드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오는 것이었다.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에 들어서도 해외 건축사의 교류는 계속되고 있었다. 특이할 만한 것은 그들의 작업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거칠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제화의 범위가 유럽으로 확대되면서 마리오 보타, 렘 쿨하스, 테리 파렐, 장 누벨, 도미니크 페로, 자하 하디드, MVRDV 등의 작가형 건축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건축시장도 바야흐로 명품 시장주의를 답습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

표식(表式) 1



7. 인천국제공항: McClier, C.W.Eentress + 정밀건축, 원도시건축, 희림건축, 병건축

2000년대를 기념할 만한 빅 이벤트는 역시 인천 공항의 개항이다. 동북아시아 허브(hub) 공항을 목표로 총 5년 3개월의 공사 일정을 통해 2001년 준공되었다. 연간 2,700만 명의 여객처리능력을 지닌 초대형 시설로서 철근콘크리트와 철 골조의 복합구조를 지닌 이 거대 공항은 소위 하이테크의 집적 물로서, 형태에서 뿐 만 아니라 그



8. 공항 주변의 국제자유무역지구 계획도: 영종, 청라, 송도지구에 대한 신도시 건설

작동방식에 있어서도 21세기의 화두로 등장한 첨단 속성을 잘 표출하고 있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계획안은 원래 콜로라도 비행장을 설계했던 펜트레스(C.W. Fentress)의 개념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과거와는 달리 4개의 국내 건축사사무소들이 조합된 컨소시엄과 외국사들의 협업으로 전반적인 작업이 진행됐는데, 협업의 내용과 의미가 상당히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외국사들과의 협업 진행 역사상 많은 교훈을 남겨 주었다. 요컨대, 국내사는 설계팀의 대표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의 조정 및 관리 책임을 맡았으며 국내 제 여건에 대한 정보 수집, 제공 및 대 관청 업무 등의 필요업무를 관장했다. 외국사는 디자인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며, 첨단 기술 및 특수 분야 등과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을 수행했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특수 건축물의 설계에서 분업을 통해 분야별 디자인을 완수하는 이중 협업체제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이 대단한 관문은 우리나라의 인프라스트럭처 체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 되었다. 공항과 함께 공항전용고속도로와 공항전용지하철, 그리고 도심공항과의 직속연계가 구축되면서, 바야흐로 동북아 시대를 알리는 희망의 신호탄이 됐던 것이다. 더욱이 이는 서울 주변으로 대단위 신도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으며, 소위 '투자자유구역'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푸둥(Pudong)을 기획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총 면적 6,333만평에 이르는 대지 위에 48만 7천 여 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도시로 계획되는 이들 지구는 현재 송도, 영종, 청라 지구 등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졌다. 송도 지구에는 국제 업무 및 연구개발, 영종지구는 물류 및 관광레저, 청라지구는 국제 금융 및 테마파크 등이 세워질 계획에 있으며, 2020년도까지 진행되는 이 대규모 사업은 기반시설 건설비만 14조 7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 특수한 사업은 해당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해외 개발업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협업으로서, 송도의 경우 미국의 게일(Gale)사의 주도로 투자 개발 및 유치가 진행되고 있다. 지원 건축사로는 대표적으로 KPF가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조율하였고, KPF 이전에는 렘 쿨하스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성하기도 했다. 우리네 도시공간도 더 이상 지구화된 도시의 개념을 피해갈 수 없게 되

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 환경을 위해 제후에 의한 문화가치상승의 전략을 대략 짜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성행했던 저급 서양 문화 대신 우리네도 조르지오 아르마니나 프라다를 숭배하는 고급문화를 트렌드로 하여 건축과 도시를 재 탄생시켜야 할런지도 모를 일이다.

표식(表式) 2

도시의 외곽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사업과 별개로 도심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도 대 기업들의 사옥 짓기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KPF의 동부화재 사옥을 비롯하여,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현대 산업개발 사옥, 마리오 보타의 강남 교보빌딩, 그리고 RAD와 정림, 진아 건축의 협업으로 SK 을지로 사옥이 지어졌다. 2000년대 들어 특이할 만한 현상은 이



9. SK 을지로 사옥: RAD+정림, 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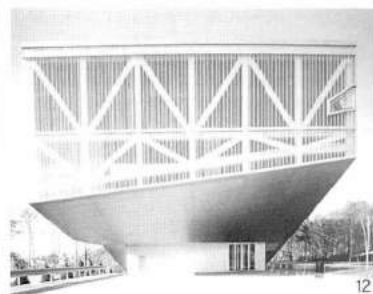
런 대규모 건축의 판도가 강북으로 옮겨지는 추세라는 점이다. 오래 동안 장안의 과제로 남겨져 있던 도심재개발의 마지막 손질과 청계천 지역 복원 및 개발 등과 같은 프로젝트가 2000년대 건축사업의 최대의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부부터는 초대되는 해외 건축사들의 계층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과거처럼 기업형 디자인 펌이 아닌 작가형 건축사들의 한국 나들이가 잦아졌다. 예컨대, 9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서 이미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던 렘 쿨하스나 MVRDV 같은 네덜란드계 건축사들이 우리나라 건축계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자하 하디드나 코프 힘멜블라우와 같은 유럽형 해체주의 건축사들이 공모전을 통해서 한국 건축계에 얼굴을 디밀기도 했다. 특히 이때부터 독특한 건축담론을 가진 젊은 건축사 그룹들의 진출이 돋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보다는 갤러리나 소규모 근린시설, 상업시설 등의 작업을 실시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모포시스(Morphosis)가 신촌역 앞에 소규모 상업복합시설을 통해 한국 시장을 두드렸으나 건축주와 시공사들의 문제점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한 헤이리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뜨는 젊은 해외 건축사들이 디자인 풀에 가담되기도 했는데, 김준성과 함께 한길 복센터를 공동 설계한 'SHoP'이나 '딸기가 좋아'에서 최문규, 조민석 팀과 합류한 조 슬레이드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디어의 발달과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수집이 용이해짐에 따라 개인적 인맥을 통한 초청이 가능해진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젊은 유학파들의 귀국과 함께 과거 클래스메이트나 동료들이 연계되면서 이러한 연결이 더욱 수월해진 듯하다.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해외 건축사들의 특색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하듯이, 갑자기 나타나서 근린 생활 공간이나 작은 갤러리 등을 설계하고 사라져 버리곤 한다.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끝나는 일이 허다하다. 마치 명품 액세서리를 사재기 하듯이, 도심 구석구석에 이들의 작업이 도매 급으로 심겨지고 있다.

이들의 독특한 디자인을 찾는 심정은 명품브랜드를 선호하는 보편적 취향을 회피하고, 디자이너의 패션을 통해 남들과 차별화되고 싶은 충동에서 비롯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명품 백화점에 진열된(약간은 도매 화된) 제품보다는 뉴욕의 소호(SOHO)에 진열된 디자이너의 청바지를 입고 싶은 마음과 같을 것이다. 오늘날 건축에서 브랜드로 취급받는 건축사들은 꾸준히 잡지나 호화스런 책 출간을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졌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의 의상이 일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 유명세를 더해 가듯이 오늘날 건축도 미디어의 네트워크를 통해 트렌드와 스타일을 창출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외의 브랜드 건축사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하게 된 것은 이화여대 삼성 캠퍼스센터 국제 초청 공모전부터라고 볼 수 있다. 도미니크 페로, 자하 하디드, FOA 등이 지명현상설계에 초청되었고, 이들을 위한 심포지엄까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저명 작가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경합을 벌인 일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 세 건축사의 작품은 공통적으로 보편적이지 않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작품 지향형 패션디자이너의 옷들이 독특한 모델을 통해 선보이듯이(일반인들이 평상시 입을 수도 없는 것처럼), 이들의 작품 역시 독특한 건축관을 반영하며 기념비적인 건



10. 강남 교보빌딩: 마리오 보타+창조 11. Sun Tower-Morphosis
12. 서울대 교육연구시설: Rem Koolhaas+삼우설계 13. 인양 Peak: MVRDV+나루건축



14_ 이화여대 삼성센터: 지하 하이드 안



15_ 도미니크 페로 안



16_ FOA 안

축으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대학이 모델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념비적 건축관(建築觀)을 재현하기에 적절했음지도 모를 일이지만, 세 건축사가 현재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유럽형 건축사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에 환경에서도 건축의 패션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음을 직감할 수 있다(마치 패션의 명품들이 대개 유럽 제품인 것처럼).

첫 번째 조크(joke)

2000년 벽두, 건축계를 장식한 대단한 사건은 뭐니 뭐니 해도 '종로타워'의 준공이었을 것이다. 이 건물은 20세기 끝 무렵을 달구었던 한국성의 담론을 한방에 날려 버린 외국 건축사의 작품이란 점에서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10년이 넘도록 미완의 상태로 화신 백화점 자리를 지킨 온갖 우여곡절을 한꺼번에 폭로시킨 대담함 앞에서 논쟁의 의지마저 사라져 버렸다. 한마디로 이 건물은 '충격'¹⁾ 그 자체였다. 충격을 통해 현대도시의 경험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건물은 절대 아름답지 않다. 오히려 누더기 같다고 표현해야 옳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심히 들여다보면 도시에 던지는 충격 뒤에는 고도로 조작된 냉소적인 이미지가 숨겨져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약간은 비정상적인 구성 속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즉, 파편화된 요소들은 기능이 해체된 상태에서 재코딩되고 끌려주 된 후, 스스로 주변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포스트모던의 상황 하에서 이러한 이미지는 최근의 외국 건축물들을 상기한다면, 완전히 비정상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굳이 비정상적인 것을 꼬집어 말한다면, 이 건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절대적인 낙천주의(현세가 가장 훌륭하다는, 지금의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다)일 것이다. 이러한 낙천성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는 당시 도쿄포럼을 완성하고 돌아가던 개선 건축사의 자신감에서 기인하는 것일 게고, 다른 하나는 외국 건축사로서 타국이 안고 있는 콘텍스트의 난제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낯설다 못해 아예 그로테스크하게 느껴지는 건물의 형태에서 드러난다.

비놀리는 노골적으로 도시가 가지는 두 가지 형태의 부재(absence)에 대해 고민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지난 십여 년 동안 수차례 바뀌어 온 프로그램과 계획을 통해 '있었을 법한 현재'를 말하는 것이다. 비놀리에게 실질적인 대지는 '화신백화점이 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이미 다른 설계자의 안에 의해 80%의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배치와 형태, 그리고 앞으로도 변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음은지도 모른다. 화신 백화점 철거이후, 8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온 프로젝트는 한보, 엘레베 베켓의 계획을 거쳐 공사 중단 이후 새로운 계획으로 변조되기까지 도심재개발의 구호 아래 자행된 행정적인 모순, 건축주의 변덕 및 IMF라는 사회적 충격까지를 포함한 이 시대의 사건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건물은 한 세기의 끝을 기념하기 위해 종로 한 가운데 세워진 토템(totem) 지주로서 다가서게 되었다. 신화와 역사적인 사건들의 편린들, 그리고 토템의 상징들이 각인된 토템 지주는 또 다른 시간의 기호다. 다만 종로타워는 허구와 모순(도시에 존재할 수 있었을 법한 또 다른 부재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특이한 형태의 토템이다. 종로타워, 밀레니엄, 탑 클라우드(Top Cloud). 붙여진 이름만 살펴 보아도 이 건물이 어느 정도로 주변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종로라는 장소를 대변하고 밀레니엄이라는 시간을 기록하는가 하면, 꼭대기에 얹혀진 공간은 도심 스카이라인을 장식시키는 마지막 장치가 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로타워는 더 이상 기존의 콘텍스트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승인을 스스로 내리게 된 셈이다. 오히려 도시라는 거대 구조 속으로 파고들기 위해 더욱 더 불확실한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이는 도시 공간에 잠재된 고유한 모호성에 의존하려는 전략일 것이다. 즉, 도시와 동화되는 듯하면서도 대립되듯이 보이게 함으로써 건물에 내포된 독창성과 과정 사이의 경계선을 응해시키려는 것이다. 도시는 산만하고 종잡을 수 없는 사회적인 행위로 가득 차 있고, 열려져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구조주의적 관점보다는 탈구조주의적 입장에서 도시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건물은 형태 만들기와의 의미 구축하기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틈을 추적하기 시작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 드러난 틈의 체계와 내적 구조를 파괴하고 해체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확실히 이 건물은 파편(fragment)들을 낯설게 조합함으로써 고정적인 일점 투시도와 자연스러운 지각(知覺)을 동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요를 통해 서로 관련성이 있

1) 시각적 지배(The dominance of the visual)와 잔해(fragment)에 대한 편애 그리고 즉흥성과 충격에 대한 관제성이야말로 도시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Graeme Gilloch, Myth and Metropolis: Walter Benjamin and the City. Blackwell Publishers: Cambridge, 1996, p19, p68



17. 종로타워: 라파엘 비블리+삼우설계



18. 종로타워 야경: 라파엘 비블리 + 삼우설계 것이다.



19. 피마로에 투영된 종로타워 후면부

19

거나 어쩌면 결정적일 수도 있는 주제의 해석과 해석된 대상사이에서 맞물린 건축의 현실을 좀 더 관념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관찰자로 하여금 다시점의 투시도를 익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비블리는 대상 대지를 관념적인 노드나 랜드마크로 보기보다는 대상의 날카로움이 사라져가는 경계 속에 속해 있거나 역으로 막 발생하는 지점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불안정하고, 곧 분해 될 것 같은 절박한 부조화의 위기를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로타워는 완성된 건축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생성과 사라짐, 성장과 쇠퇴, 현존과 부재, 현실과 허구, 침묵과 소음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또는 이러한 사라짐과 동시성이 함께 있는 '중간' 상태에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다. 그 일시성을 통해 새로운 장소성을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비블리의 의도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건물의 투명함을 통해 상호 교환시킴으로써 현대 도시에서 격리되어버린 도시와 건축을 연결하는 매개영역을 제공하고자 한 것 같다. 즉, 기존하는 정체불명의 플라자를 '도시의 캐노피(Urban Canopy-실현되지 못한)'를 통하여 내부화(internalization)시키고, 로비공간을 외부로 연장시킴으로써 거리의 보행자들로 하여금 도시의 입체적인 동선 체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성을 추구하는 의도가 단지 물리적인 대상 또는 투사된 이미지로서만 도시에 입력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움직이는 도시 이미지와 이벤트를 통한 활기 있는 연출이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퇴적암 층에 묻혀버린 화석처럼 굳어 버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지하공간으로부터 로비, 그리고 아트리움으로 연계되는 입체적인 공간 연출이 전체적인 시나리오에서 삭제당함으로써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의미 있는 대화의 창구가

사라져 버렸다. IMF와 급격한 프로그램의 변경, 행정조치의 변동 등은 이 건물이 근본적으로 추구했던 도시적인 의미를 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도시와 격리된 개체로서의 건물로 읽히게 만들었다. 이제 거리로부터 단절된 로비공간은 제 아무리 시각적 연결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투명한 단절의 벽을 부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도시의 매개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거세당한 지금 종로타워는 '시장의 힘'을 바탕으로 기업의 이미지만을 생각한 '자본의 비행'이라는 혹평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거리 공간에 대한 이반(離叛)으로 이 건물의 홀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공중 정원과 탑 클라우드 역시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각종 첨단 테크놀로지를 동원하여 조립한 거대한 기계 속에 삽입된 시(詩)적인 void는 '기계 속의 정원'이라는 절묘한 감흥을 연출할 뻔하였다. 남산과 북한산을 관조하면서 혼돈의 도시를 응시할 수 있는 장소로서 뿐만 아니라 오랜 동안 골조로서 남겨져 있어야 했던 종로타워의 기억을 연장시키려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중대한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오히려 탑 리프트 공법으로 올린 레스토랑만이 첨단 기술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으로 이 건물의 시나리오는 끝을 맺는다. 공중에 부유하는 이 공간들은 거리와 단절된 이후, 이제 선택된 사람들만이 드나들 수 있을 것 같은 사유지가 되었고 탑 클라우드에 이제 도시의 풍경을 지배하는 '라퓨타(Laputa)'²⁾로 둔갑한 셈이다.

종로의 뒷길에서 바라다 보이는 타워의 후면 부는 알루미늄과 유리로 조립된 지상 24층 높이의 거대한 굴뚝으로, 혹은 150여 미터나 되는 거인의 척추 뼈로 투사된다. 풍경과 지방색³⁾이 대조되는 광경은 걸리버 여행기의 거인국, 소인국 여정의 갈릴릴에서 느낄 수 있는 무시무시한 흥분을 환기시킨다. 밤마다 오색 조명으로 단장하는 종로타워의 모습에서도 화려함보다는 이러한 무시무시함이 지배적이다.

2) '내가 부유하는' 또는 '하늘을 나는 섬'이라고 해석한 단어는 원래 'Laputa'인데 이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는 전혀 배운 바가 없습니다. 이제는 쓰여지지 않는 고어인 'Lap' 즉 '높다'라는 말과 'untuh' 즉 '지배한다'라는 말이 합성되어 'Lapuntuh'로 부르다가 변조되어 'Laputa'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Jonathan Swift, Gulliver's Travel, The Ronald Press Company, New York, 1938 pp167-168

3) 사회학자 인 샤론 주킨은 말 현대적 도시문화를 한편으로는 '중정'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색'이라는 이미 설치된 환경에 대한 두 가지 규범적인 행위를 대치시킴으로써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방색이란 보다 즉각적이고 특정한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 개인적 공간이고 통경이란 시장과 같은 제도의 주변에서 불규칙력에 의하여 형성되는 공적이며 사회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Scott Lash/J. Friedman ed./윤호병 외 번역, 현대성과 경제성, 현대미술사, 1997 pp252-253

그것은 공포영화에서 볼 수 있는 절단된 신체를 차곡차곡 쌓아올린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도시로부터 소외된 형상으로 아주 가깝게 다가온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러한 모호성(또는 불확실성), 소외, 낯설음 등이 물리적 명확성을 추구해 온 모던건축에 조합됨으로서 도시와 삶을 파악하는 또 다른 장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우리는 별거벗은 임금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화려하십시오!'를 외쳐야 할 것인가.

개그콘서트-청계천 프로젝트



청계천 복개와 해체 공사는 조선 개국 이래,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대규모 역사 중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특히 근대화의 성급한 행보 속에서 마구잡이로 때우고 메운 서울 중심가를 재생시키는 작업에 대해 많은 이들이 회의적이었지만, 어쨌든 수십 년 동안 서울 한복판을 덮고 있던 거대한 매스를 드러내겠다는 강한 의지는 과거 근대화의 의지를 압도했다. 우선 서울시는 역사의 복원과 이를 통한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청계천을 복원시켰다. 근대주의의 파괴적 본능을 역이용하여 근대 도시의 상징물인 고가도로를 부식시키고 그 백지화된 상태 속에서 과거를 부활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적 아이러니를 화두로 하여 청계천변 지역에 대한 전면 재개발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세운상가 일대가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 구체적인 그림으로 재현된 것은 이 일대가 도심재개발계획에 포함된 지 20여년만의 일이다. 이 재개발 계획은 1980년대에 이미 '서울시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북악산-종묘-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의 조성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는 서울시를 동서로 나누는 육중한 도심의 축인 세운상가를 제거하고, 대신 녹지로 채워진 보이드로 대체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시나리오가 최근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 수변 공간이 첨가된 생태도시 서울의 기획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랜즈케이프(Landscape)라는 근본적인 지평 위에서 보면, 세운상가의 메가스트럭처는 서구 근대주의자들의 대상성(Objectivity)에 대한 과신(過信)을 상징하는 기념비였다. 르 꼬르뷔제의 빌라 사

보아(Villa Savoye)와 유니테다비타시옹(Unite d'habitation)들과 같이 필로티 위에 올려진 이 기계는 대지로부터 떨어져 나가 서울의 지형이 만들어내는 랜즈케이프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심을 그림자로 덮어 버렸다. 이는 마치 한스홀라인(Hans Hollein)이 비행기를 녹색의 산 계곡에 중첩시켜놓음으로써 기계와 랜즈케이프 사이에 존재하는 도발적인 긴장을 노출시키고 있는 모습과 같았다.

따라서 이 구조물의 철거와 대규모 도심 보이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이미 20세기 후반부에 세계의 모든 도시가 요구했던 공공공간의 재 반환, 즉 'Ground Zero'의 상태로 원상복귀라는 근대 이후의 기획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획은 근대건축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로부터 비롯되었다. 예컨대 건축과 도시의 분리, 대상성에 대한 과신으로 인한 매개 공간의 의미 상실, 그리고 양적 위주의 경제성, 기술성 및 기능성에 대한 집착 등으로 주변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자기반성의 목소리다. 궁극적으로 근대건축은 지역적 특질에 대한 적응성을 무시하고 보편성에 근거한 원리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장소성"(보다 질적 위주이며 실존주의적 측면)에 대한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세운상가 재개발은 근대 건축이 추구했던 유토피아적 성향에 대한 저항적 시도로 볼 수 있다. 이 공모전에 참가한 대부분의 작품 속에는 새로운 결정인자를 통해 전통과 고전을 묵살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를 도출해내는 파괴적 행위에 대해 자연은 물론 인위적 요소를 포함하는 역사 문화 등 모든 종류의 맥락에 가치를 두고 포용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즉, 장소성, 역사성, 문화를 포함하되 이들을 보수적으로 보존하든 시대와 함께 연장하든 간에 주변의 형상을 바탕으로 좀 더 자유로운 도시 건축의 관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배어 있다는 것이다.

문화도시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서울시의 공간정책에서 이러한 문화 또는 역사가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1980년대 대학로 재개발을 통해 특이한 문화공간이 조성되기는 했으나 그 의도나 결과가 과연 문화적인 것이었는가는 회의적이다. 아마도 서울시에서 문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는 88올림픽 등을 통해 서울시의 국제적 관심과 위상이 높아진 것과 함께, '정도 600년'이라는 역사적 기념행사가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⁴⁾ 문화를 근본으로 하는 공간 정책은 서울시의 2011년 도시기본계획의 7대 실현 목표 중 하나였으며, 이는 다시 2021년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아예 '문화도시 서울'이라는 강령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미 종로 재개발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걷고 싶은 거리를 성취하고자 했던 서울시는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서도 역사, 생태, 문화 등을 도시 재편성의 기본지침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제껏 문화의 이름으로 포용되었던 모든 불필요한 도시의 장치들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문화란 특정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란 문화예술이나 이에 관련된 행사 프로그램, 또는 거리의 축제들로 대

4) 문화연대 공간환경 위원회, 문화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지락, p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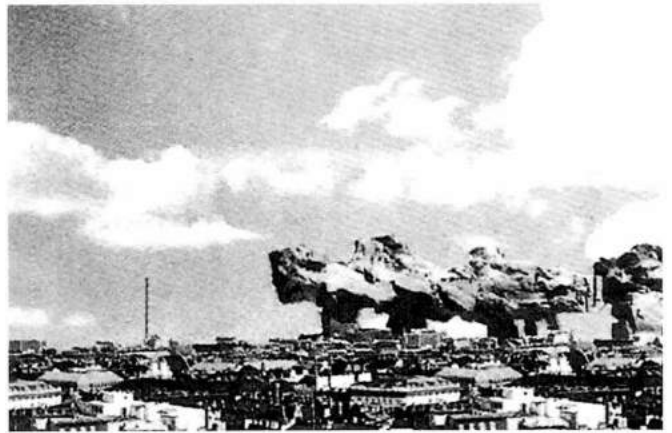


20. 르코르부제-Unité d'habitation

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 깊게 스며들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형성하는 매개체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생태에 대한 의미도, 역사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안목도 한 단계 높여서 들여다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이제 것과는 다른 특이한 방식의 지명공모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해외 건축사도 건축사이지만, 적어도 대학이나 저술 등을 통해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소위 학자형 건축사들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램 쿨하스나 리처드 로저스, 피터 아이젠만 등은 이미 그 명성을 얻은 건축사들이지만, 저드나 코에터 등은 건축 작업을 통해서보다는 저서나 학술활동을 통해 잘 알려진 건축사들이다. 서울 프로젝트에 이들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적어도 브랜드에 연연하여 하드웨어를 구축하려는 가벼운 마음보다는 좀 더 심오한 의미를 지닌 도시설계의 지침을 발견하고, 이를 정점 화하여 담론을 형성하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물들을 종합해 볼 때, 여전히 브랜드의 도매급 조직 이식의 행태(이미 알고 있는 바를 시행하는)가 보일 뿐 만 아니라, 외국 도시에 대한 물이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실망적인 이벤트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구체적으로 이 공모전은 보이드(VOID)에 관련된 것이었다. 즉, 반(反)대상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첨가적 구축 체계로부터 사고를 감(減)하는 방법으로서의 심리적인 전환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공모전에서 성패의 기준은 대상 또는 공간을 읽을 때, 보이는 것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사이에 비쳐진 그림자를 해독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다고 본다. 도시 디자인의 측면에서 볼 때, 이 공모전은 공공공간의 이해에 목적을 두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특이성(singularity)과 세계적 관점에서의 일반성(generality)을 어떻게 동시에 섭렵할 수 있는가에 가치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공공공간이라는 것이 밀집된 도시 공간 속에 펼쳐진 단순한 광장이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공공영역으로서의 광장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의혹에 대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문화적 접점을 발견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1. 한스올라인-비엔나 도시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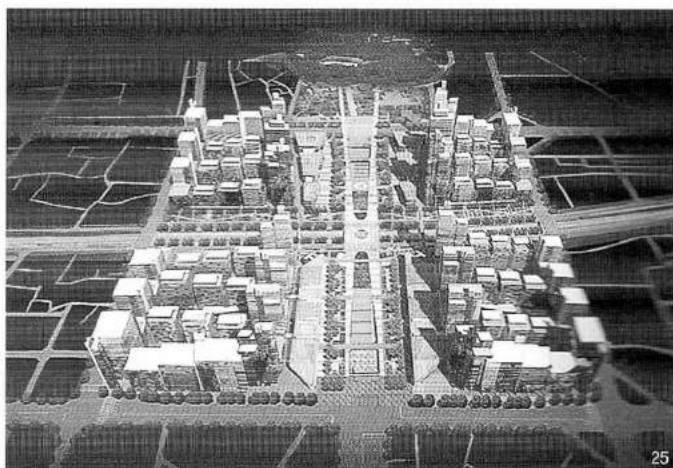
서울은 잡종적 문화가 산재한 혼돈의 도시이다. 그 속에는 조선시대로부터 계승돼 온 전통적 풍토성과 일제강점기하에서 왜곡된 식민지적 풍토성, 근대화와 산업화를 통해 조성된 산업적 풍토성과 소비사회의 도래와 함께 형성된 상업적 풍토성이 혼합돼 있어 이질적이고 복합적이며, 혼성적인 도시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공모전에 제출된 안들을 살펴보면, '잘 나가는' 서구의 건축사 및 도시 계획가들이 아주 심한 혼돈에 빠져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소위 '역사의 복원(復原)'이라는 대 명제 아래서, 남의 나라 역사와 문화를 나름대로 해석하되 결국에는 저들의 단순 명료한 방법으로 도시를 재구조화 하고 있다. 꿈보다 해몽(解夢)이라지만, 이 무리한 행사를 억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근대화(세계화)하면서 원천으로 복귀할 수 있는가?"라는 폴 리퀴르(Paul Ricoeur)의 역설적인 질문⁵⁾에 대해 "이왕에 과거로 복귀했으니 이것을 세계문명에 동참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계획가들의 생각으로 정리해보기"라는 극단적이지만 간단한 처방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공모전에서는 문화도시 형성이나 도시 공간 창출이라는 대 기획에 대한 지적 호기심보다는 '별들의 추락'에 더 관심이 쏠리게 된다. 아직도 많은 서구의 건축사들이 서구의 근대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동양을 조명한다는 점 때문이다. 진보적 성향의 램 쿨하스나 피터 아이젠만은 아직도 '석류석이나 유리파편덩어리' 같은 것들을 양산해내고 있는가하면, 테리 파렐을 비롯한 몇몇 건축사들은 아직도 모든 도시를 '커다란 집'으로 유추하는 구태의연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공모전에서는 여러 곳에서 서구인들이 가지는 오리엔탈리즘의 갈등적 구조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재현한 미래 속에서 서양과 구분된 동양을 다시 구분하는 '하위구분' 뿐 만 아니라 동양에 대한 지배 욕망의 '양가성'을 읽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즉, 이들의 작품 속에서는 각자가 한편으로 '혼란'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양가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서양은 동양의 익숙한 면(고밀도)에 조롱(아이젠만의 홍콩스타일 슬럼)을, 그리고 낯선 면(역사와 지세-서울의 physiognomy)에 욕망과 불안을 보이는 양가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⁶⁾

5) Hal Foster 편, 윤호병 외 역, 반미학, 현대미술사, 1993: 폴 리퀴르, 「역사와 진리」에서 재인용 p40

6) 호미 바바는 식민 지배 이데올로기의 일방적 구조형태에 반박하며 식민 권력의 '의도성'과 '일방성'을 해체적으로 비판한다. 이를 위하여 식민 담론의 '내적 모순'을 드러내는 '양가성'과 '식민 주체의 통일성'과 반대되는 '식민 주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잡종성'을 주장한다. 장익수, 구영민, 중 「국 라오닝(國老寧)성 파리엔(大連)시의 탈-식민(脫-植民) 도시 공간에 관한 연구」에서 재인용



22_ 피터아이젠만+해안건축 23_ 렘글라스+삼우설계 24_ Jerde Partnership+단우+이웨스건축 25_ 리처드로저스+희림건축

많은 참여 건축사들이 서울의 특이한 그리드 패턴(과거와 현재, 자연발생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의 충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도시 패턴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특히 피터 아이젠만과 렘 쿨하스는 예전의 가로패턴과 현재의 그리드 패턴을 중첩, 변형하거나 아예 대지의 패브릭과 패턴을 형상화하여 건물 자체를 조직하는 형식적이고 기하학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둘 다 기존의 일관된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역사성과 근대성이 조합된 새로운 형태의 건축적 재현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특히 세운상가 일대와 같은 대지는 이론에 의거한 논리적인 방법론을 통해 정의되거나 공상에 의해 임의적으로 형태화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서울의 속성과 대지의 근본적인 특징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동양에 대한 진실보다는 상상력에 의존하여 획득된 이미지로 또 다른 유토피아를 조성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또 다른 메가스크립트를 제안함으로써 기존의 세운상가가 가지고 있던 '대상성의 오만함(hubris of object)'을 계승하게 된 셈이다.

이러한 접근은 시각적 충격을 통해 도시의 성격을 쇄신하고자 하는 실험정신의 발로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기존의 도시로부터 소외되어 부유하는 블록으로 전락될 소지도 충분하다. 한편 입상권 내에 들어간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축과 그리드, 그리고 가로 패턴에 대한 적절하고 보편적인 해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어 Jerde의 계획안에서는 축을 따라 광장을 조성하여 구역에 접근하는 결절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에 간헐적으로 흩어져 있는

녹지 공간의 모습을 반영한 듯이 보인다. 다만 여기서도 '도시는 커다란 집'으로 읽는 서구의 관습에 따라 가로들의 특성을 '도시의 복도(urban corridor)'라고 단숨에 정의하는 바람에 더 이상의 해석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다시 말해 도시의 내부를 재차 조닝하는 바람에 광장의 용도가 제한되고 블록 역시 불필요한 내부경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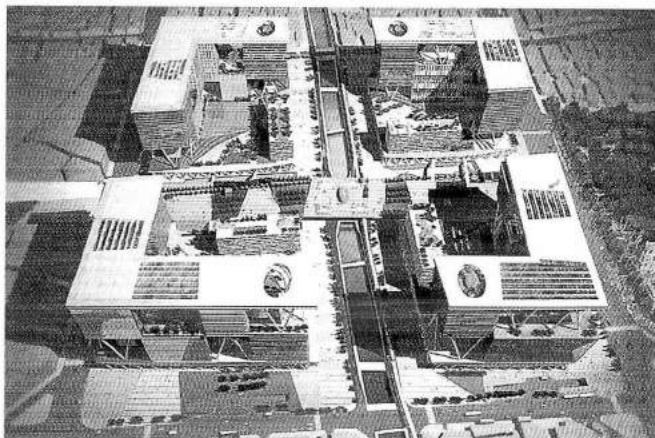
리처드 로저스의 안은 과거와 현재의 복합적인 연계작업 보다는 매우 보편적인 계획에 의존하여 공간을 정리한 편이다. 여기서 축은 도시의 남북을 이어주는 통경 및 녹지 축으로서 뿐 만 아니라 동 서간으로 나열된 도시 활동 축으로 연결 시켜주는 주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건물 군의 배치 역시 기존 가로의 프로그램 유형을 존중하여 외부 가로로 향한 견고한 면을 통해 블록을 에워싸고 축선 상의 거리면으로는 식수를 통한 부드러운 언저리(edge)를 제공함으로써 건물 군과 랜스케이프가 조합된 건축 및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축과 동서간의 연결은 르네상스의 일렬 형 공간 배치(enfilade)를 조성하여 매우 단순한 공간 배열 및 경직된 퍼스펙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 거리의 기억(시각적, 체험적 기억)을 제거시킬 위험이 있다.

어쨌든 서울은 새롭고 잡종적(hybrid)이며 전환적인 정체성의 창출, 동질화가 불가능한 차이들의 협상, 그리고 경제적 존재들이 공존하는 제3의 공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호미바바에 의하면, 「제3의 공간」은 잡종화된 공간으로서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두 개의 이질적

인(같이질 수 없는) 문화가 만나 형성하는 것으로서, '연결'로부터 파생되는 '불안정'과 '간극'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서울의 한복판에서 남산과 북악산을 연결하는 녹지 축이나 수경 축, 도심광장이나 역사의 축 등과 같은 획일적이고 고정된 전략만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 오히려 충돌(collision)로부터 파생되는 간극(void)에 대한 이중읽기가 선행되어야 서울의 가치(지리적, 공간적)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당선안인 코에터와 수지킴의 계획안은 전통, 그 자체보다는 그 속에 스며있는 역사적인 감각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타 출품작보다 들여다 볼 만 했다. 여기서 역사적인 감각은 '과거의 과거성'뿐만 아니라 과거의 현재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수반하는데, 이는 영원성과 일시성, 그리고 영원성과 일시성에 대한 동시적인 감각까지도 내포하는 것을 말한다.⁷⁾ 결국 이들의 작업 속에서는 「콜라주 시티」가 정리하는 도시에 대한 비전, 즉 역사를 통해 문화를 수용하는 맥락주의의 결실로서 비 실제적 증거를 이용하여 실재를 창출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이들의 작업이 설득력을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수지킴의 지적대로 도시는 각각 다른 성격(personality)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6_ 테리마텔+건원



27_ 게르칸 앤 마크+간성건축

7) 이는 콜라주 시티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T.S. Elliot을 인용하는 말이다.

8) 로우와 코에터의 도시 연구의 근원이 되는 건물의 집합체로서 컨텍스츄얼리즘의 모범적인 예가 된다. Composite building의 대표적인 예로 Vienna의 Vienna Hofberg를 들 수 있다. 이 건물은 오랜 동안 축조돼 오면서 비엔나의 중심부를 장악하게 되는데 도시와 건축의 상호관계를 통해 건물 자체가 Solid/Void의 상반성을 내포하면서 주변의 맥락 속으로 스며들어 있다. 때문에 전혀 새로운 건물이면서도 도시 속에서 오래 동안 공존해온 부분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서 합성된 것은 도시의 녹지와 건물, 그리고 이들이 얹혀가면서 만드는 부드러운 기정자리와 보이드를 포함한다.

Rowe, Collin and Koetter, Fred, Collage City, MIT Press, 1978, p168

성격에 맞지 않는 접근이나 전략은 무의미하다는 주장 때문이다. 도시·건축적인 형상이 "인간의 마음과 정치성"의 두 가지 양극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결과물이라는 주장이다. 즉, 이들은 서울이 가지는 관상학적 측면(physiognomy)을 직관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아우라(aura)를 탐색하는 작업을 통해 서울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작업은 시각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figure/ground plan(이후 F/G 플랜으로 칭함)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침상의 남북 축을 이중읽기를 통해 분절시킨다는 점에서 타 계획안과 구별된다. 즉, 단순한 녹지 축 속에 종묘로부터 차용한 역사의 축(동시에 녹지 영역을 상징함)과 남산으로부터 연결되는 녹지 축이 청계천 변에서 서로 어긋나게 함으로써 형성되는 보이드를 생태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28_ 코에터 김+무영+동우건축+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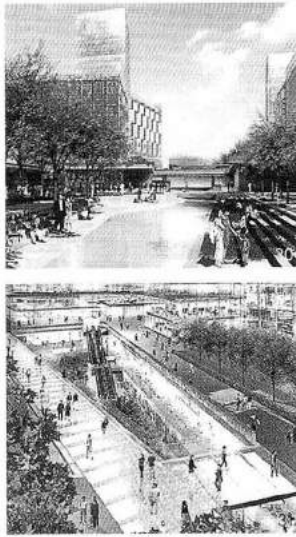
전술하였듯이 이들은 단순히 오브제를 배열하는 접근으로부터 보이드 자체를 영역화하여 주변 영역(field)의 구조가 명확한 체제를 가지도록 하고, 이들의 구조적 패턴에 의해 작은 스케일의 형상(figure)들이 대지에 부분적으로 잠식해 들어가거나 돌출한 듯이 보이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고의적인 축의 충돌을 통해 가로 프로그램의 결정함으로써 복합적이고 불분명한 그리드의 충돌을 의도된 평면 구성으로 보여 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충돌 지점을 수직공간으로 분할하여 다양한 시설을 유지함으로써 다차원적인 도시기능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형상과 주변 조직(figure and texture), 대상과 콘텍스트(object and context), 그리고 이상향과 실제 상황(ideal and circumstantial)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지 전체를 작은 도시(micro city)로 구성함으로써 도시적 성격과 건축적 성격 모두를 포함하는 '도시 속의 도시'를 구축하고 있다. 즉, 계획적인 충돌을 통해 기능적, 형식적인 면에서 맥락의 원리를 제공함으로써, 합성적 건물(Composite Building)⁸⁾의 형성을 추구한다는 사실이다.

이 공모전에 깔려 있는 개념적 바탕은 도시의 현재 상태가 이미 새로운 건축의 탄생을 위한 씨앗을 간직하고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서울의 미래를 추측하자는 데 있다. 즉,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그 사고의 영역을 과거와 현재를 통해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우선 '미래' 그 자체부터가 인정된 바 없다는 사실을 통해 이 공모전은 이미 도래한 미래, 즉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여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미래



29_ 코에터 김+무영+동우건축-조감도



30_ 코에터 김+무영+동우건축-투시도



31_코에터 김+무영+동우건축-투시도

32_ W-hotel: RAD(홍콩)

에 대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탐색하자는 의도가 더 짙다는 말이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 공모전은 보이드(void)에 관한 것이다. 보이드는 경계에 의하여 정의되는 것이다.

이 경계라는 변수는 센트럴 파크를 규명하는 건물들의 테두리 같이 단단한 경계일 수도 있고, 도시와 강이 만나는 지점과 같이 부드러운 경계일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경계란 두 개의 서로 다른 상황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불확정적인 장소이다. 그러므로 이 공모전에서는 경계라는 막(Perimeter SKIN)의 본질을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막은 보이드를 한정짓는 건물들과 함께 공공공간의 개념을 억제하기도하고 협상을 벌이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막의 안과 밖을 드나들며 도시와 건축, 그리고 이들을 지탱해주는 지형과 지세, 그리고 역사의 다층적인 단면을 규명함으로써 지금 과거를 지닌 그러나 또한 불확실한 미래와 함께 하는 서울을 실체화하는 작업을 멈추지 말아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도시적으로나 건축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공간이 도시에 의해 남겨진 보이드(void)를 점거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되물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역사 속의 보이드는 곧 “미래”라고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3_ 밴 반 버글-갤러리아 백화점

결(結)

최근 우리네 도시의 구석구석을 점령해가는 외국 건축사의 작품들은 새로운 양식과 형태의 발명을 통해 언어의 바벨탑을 쌓아 가고 있다. 무작위 적으로 수입되는 해외 건축사들은 그들만의 트레이드마크를 찍어내기에 바쁘다. 더 이상 외국도시의 컨텍스트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 속으로 더욱 더 불확실한 모습으로 파고들면서 ‘나, 나, 나’를 외칠 뿐이다. 건축주의 보호 아래, 그들은 우리나라가 가진 고유한 재현의 코드를 부정하면서 융통성 없는 의미와 형태 구조를 해체하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자신들이 처한 모호한 입장에 의존하여 새로운 도시 패션을 창출하는 대대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작업이 아이디어와 철학이 빠져버린 콘크리트, 스틸, 유리로서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다. 하드웨어는 인지하기가 쉽고 흡수가 빠른 편이다. 반면에, 소프트웨어나 디자인, 아이디어, 창조성 등은 더디게 소화된다. 이들의 최근 작업은 새로운 형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하나의 패션으로 각인되어 자극적인 이미지로 소모되는 경향이 있다. 중국에서처럼 실체를 벗어난 허구적 트렌드가 한국의 현대 도시도 가상현실의 공간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별거벗은 임금님을 ‘화려하고 멋지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문화의 진공상태로 돌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건을 접할 때마다 인간의 기억이 자라나는 것처럼, 도시도 새로운 사실에 의하여 성장한다. 위대한 아이디어는 건축의 형상으로 도시 속에 기재되고 이러한 건축물들은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도시가 성공과 실패를 기록하면서 살아있는 실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프트웨어가 소실된 하드웨어 브랜드는 또 다른 담론을 배태하지 못한 채 도시의 화석으로 굳어질 뿐이다.

문제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아이디어나 개념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이다. ■

협회소식_kira news

이사회

■ 제12회 이사회

2006년도 제12회 이사회가 지난 12월 15일 오전 11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임의적립금 일시차입 승인의 건과 회관 임대사업수입금 사용 승인의 건, 2007년도 임시예산(안) 승인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개정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되었으며, 협의사항으로 건축사등록업무 추진에 관한 건,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임의적립금 일시차입 승인의 건
 - 차입금액 및 재원 등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 분할상환하기로 하되 협회중장기 재정자립 및 상환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함.

▷차입금액 및 재원

차입회계	차입금액	차입재원
일반회계	100,000,000원	일반회계 임의적립금

▷차입방법 : 총 차입금액 범위내에서 분할차입

▷상환방법 : 2006년도부터 5년 이내 분할상환

- 제2호의안 : 회관 임대사업수입금 사용 승인의 건
 - 부결됨.
- 제3호의안 : 2007년도 임시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임시예산 집행에 필요한 예산은 회관 임대보증금에서 일시 차입하여 사용키로 하며 2007년도 상반기까지 상환하기로 함.
- 제4호의안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 회장에게 위임함.
- 제5호의안 :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개정 승인의 건
 - 사무처 업무현황표 등 자료를 보완하여

차기 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함.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등록업무 추진에 관한 건
 - 건축사등록원을 우리 협회가 설립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세부사항은 담당임원 4인(이근창 부회장, 박찬정, 이영수, 한명수 이사)이 논의하도록 함.
- 제2호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 강성익 이사의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3조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나, 전국건축학과학생협의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 참석으로 논의되지 못함.

위원회 회의

■ 제1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제1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2006년 12월 20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건축사등록원 설립근거 마련과 임원 수 조정에 관한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논의한 후, 제40회 정기총회에 상정된 안을 가지고 정관개정(안)의 내용을 논의하기로 함.
 - 협회가 건축사등록원을 별도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사등록원 관련 사항이 우선적으로 명확히 파악되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함.
 - 임원 수 조정(비상근 이사 5인과 상근이사 1인 증원)에 관해서는 비상근 이사(5인)의 증원 필요성 및 상근이사의 역할을 파악한 후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함.

▲기타사항

- 정관개정(안) 심의에 필요한 아래 참고 자료를 각 위원들에게 송부하기로 함.
- 본협회 이사가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및 담당직원, 건축사등록원 관련 자료, 제40회 정기총회 상정 정관 개정(안)

■ 제2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제2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2006년 12월 27일 오후 1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제40회 정기총회에 상정된 정관개정(안)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미합의된 조항은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 제7조제2항제2호, 제7조제2항제5호, 현행 제11조제3항의 삭제, 제14조제5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제3호, 제16조제2항, 제17조의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1조, 제32조제5항, 제35조, 제39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부칙 제3조)

■ 제3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제3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2007년 1월 4일 오후 1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관 개정에 관한 건, 2006년도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제40회 정기총회에 상정된 정관개정(안)중 전회의에서 미합의된 조항에

대하여 협의함.

- 제2호 : 2006년도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건
 - 2006년도 정기감사시 지적된 『회장 교체기의 예산편성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기과제로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함.
 - ① 이번 개정(안)은 한시적인 것이고, (가칭)건축사등록원이 설립되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함.
 - ② 16개 시·도 건축사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총회 개최횟수나 소요예산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③ 현재에도 추가경정 등의 방법이 있고,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선출되는 회장은 적용이 안됨.

■ 제23회 회관건립위원회

2006년도 제23회 회관건립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21일 오후 3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관 신축공사 정산항목에 관한 건, 신축회관 준공검사에 관한 건, 신축회관 건축백서 발간에 관한 건, 회관 추가공사 발간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회관 신축공사정산항목에 관한 건
 - 시공자가 제출한 회관공사 정산항목에 대해 감리자에게 사전 설계반영여부 등 구체적인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항목별 책임소재를 세부적으로 검토·규명하여 정산항목을 확정하기로 협의함.
- 제2호 : 신축회관 준공검사에 관한 건
 - 시공자가 요청한 신축회관 준공검사에 대해 공사비 정산항목이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시공자에게 서면 통보하기로 협의함.
 - 신축회관 준공검사는 본 위원회에서 시행하기로 하고 준공검사전에 사전검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함.

- 제3호 : 신축회관 건축백서 발간에 관한 건
 - 신축회관 건축백서 발간은 본 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하기로 하고, 차기 위원회에서 구성항목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협의함.
- 제4호 : 회관 추가공사 발간에 관한 건
 - 국제회의실 및 중회의실의 A/V공사와 협회 C.I 설치공사에 대해 원안대로 확정하여 금년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중회의실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빔프로젝터를 추가 설치하기로 협의함.
 - 회관 식재추가 및 조경공사 보완에 대해서는 추가 가용예산을 확보하여 '07년 3월경 조경하차보수시 해당공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함.
 - 외부 진입공간 보완 및 우측 커튼월창호 안전난간 보완공사에 대해 추가 공사항목에 반영하기로 하고, 유진건축에 구체적인 설계안 및 공사내역서를 제출토록 협의함.

▲기타사항

- 회관 지상7층 협회사용층내 서고에 대한 구조안전여부를 감리자에게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하여 검토보고서를 제출토록 협의함.
- 다목적강당 무대 전면부에 설치된 프로젝터 스크린의 폭을 가로방향으로 확대토록 수정·보완하기로 함.

■ 제2회 예산편성 소위원회

2006년도 제2회 예산편성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21일 오전 11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도 사업계획 선정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7년도 사업계획 선정에 관한 건
 - 2007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본협회 회장님의 검토요구 사항 및 각 위원회와 사무처로부터 제출된 사업계

회서를 1차 심의하고, 차기회의에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심의하여 계수 등을 조정기로 함.

■ 제3회 예산편성 소위원회

2006년도 제3회 예산편성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27일 오전 10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도 사업계획 선정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7년도 사업계획 심의조정
에 관한 건
- 2007년도 일반회계와 건축연구원회
계 등의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계획서
를 심의하여 추진여부 등을 협의하고
차기회의에서 세부적인 계수를 조정
기로 함.

■ 제7회 홍보소위원회

2006년도 제7회 홍보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21일 오후 4시 30분 편집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형 건설회사의 설계업 허용방침에 대한 홍보관련 대책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대형 건설회사의 설계업 허용방
침에 대한 홍보관련 대책에 관한 건
- 본 사안은 건축사 自尊에 대한 문제이
므로 협회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야
하며, 사안해결을 위한 홍보를 위해 홍
보위원회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함.

▲기타사항

- 전국건축사대회, 건축의 날 행사, 한국
건축문화대상, 한국건축산업대전을 연
계한 건축주간행사의 공식명칭이 필요
하다고 생각됨.
- 한국건축가협회의 경우 한국건축가

협회상, 한국건축가협회특별상, 서울
특별시건축상, 대한민국공간문화대
상, 대한민국건축대전 초대작가전,
대한민국건축대전 일반공모전, 대한
민국건축사진전을 통합하여 「대한민
국 건축제」라는 공식명칭으로 행사를
시행하고 있음.

■ 건축사등록원 관련 담당임원회의

건축사등록원 관련 담당임원 회의가 지난 2006년 12월 26일 오전 10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사 등록원 설립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사등록원 설립에 관한 건
- 우리 협회가 등록원을 별도 설립하
고, 협회는 회원 구성 개편 등 국제적
수준의 전문가 단체로 재편하는 방안
과 관련하여 한명수 이사가 작성한 건
축사등록원 정관안 및 대한건축사협
회 정관개정안 등에 대하여 검토함.
- 등록원 설립의 필요성, 건축사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 이
유, 등록원의 설립방안, 협회와 등록
원의 차이점, 향후 협회의 위상 및 협
회의 조직변화 등에 대해 이사회 안건
으로 올려야 함.
- 등록원 설립과 관련하여 전국대의원
들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도회장
들과 시·도 사무국장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고 설명하는 모
임을 가져야 함.
- 1월 중으로 우리 협회 내부의 의견일
치가 이루어진 후에 건교부에 의견 제
출을 해야 할 것임.
- 등록원 설립과 향후 우리 협회 운영에
관한 방안을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논
의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 장학회 운영위원회

장학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2006년 12월 28일 오전 11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7년도 장학사업 계획 결정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2007년도 장학사업 계획 결정
에 관한 건
- 2007년도 우리협회 장학회 사업계획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장학생 선발인원 및 추천방법 등
- 2007년도 장학생은 종전과 같이
총 5명을 선발기로 하고, 장학생
1인당 년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기로 함.
- ▷장학생 수혜대상 결정
- 4년제이상 건축관련학과 학생중
2007년도 최종학년 재학생
- 5년제 대학교 건축학과 학생에
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
하여 차년도 장학회 운영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기로 함
- ▷추천의뢰 대학교 선정기준
- 2006년도 장학생 추천의뢰 대학
교 선정기준과 같이 2007년도
장학생 추천의뢰 대학교를 선정
하되, 출판작 수가 동수일 경우
에는 우리협회 정회원의 출신 대
학교별 인원수가 다수인 대학교
를 선정기로 함.(우수한 대학교
의 한국건축문화대상 참가 유도
목적 등)
- 2007년도 장학생 추천의뢰 대학
결정 : 홍익대학교, 부경대학교,
아주대학교, 광주대학교, 서울대
학교
- ▷기타 기준은 2006년도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기로 함.

■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2007년도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3일 오전 11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거사무 추진 일정에 관한 건과 선거사무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선거사무 추진일정에 관한 건
 - 본 협회 제27대 회장 및 2007년도 감사선거의 선거사무는 추진일정(안)대로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 선거사무에 관한 건
 - 선거사무의 세부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함.
 - ① 선거공고는 2007. 1. 23(화)에 본 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기로 함.
 - ② 후보자 등록은 2007. 1. 23 ~ 1. 29(토·일요일 제외) 기간동안 등록받기로 하고, 선거인의 중복추천은 허용하지 않기로 함.
 - ③ 선거공보물 인쇄사양은 A4용지(120g/㎡이내의 스노우화이트 종이) 1매 양면에 흑백 또는 원색으로 인쇄하되, 후보자의 사진규격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감안하여 사진규격 및 매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였으며, 후보자 등록시 선거공보인쇄물 원고 20매를 제출받기로 함.
 - ④ 후보예탁금은 1인당 100만원으로 하고, 선거종료후 정산 반환키로 함.
 - ⑤ 선거홍보에 있어 개별 선거공보, 정기간행물 광고는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인터넷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홍보는 허용키로 함.
 - ⑥ 선거공고문은 협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공고키로 함.

▲기타사항

- 임원선거관리규정중 제25조제2항 “재선거는 제1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조항은 동 규정 제5조에 선거일 25일 이전에 선거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상 모순이 있으므로 제25조제2항은 “~30일 이내에 ~”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제1회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위원회 회의

2007년도 제1회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5일 오전 7시 30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등록신청서 접수시 문제점에 관한 건, APEC등록건축사 등록신청서 심사일정 등에 관한 건, APEC 등록건축사의 계속교육 취득 방법 및 관리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등록신청서 접수시 문제점에 관한 건
 - 2006. 12. 01부터 2006. 12. 30 까지 접수된 등록신청자(275명)의 APEC 등록건축사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대하여 2인 1조로 4개 팀을 구성하여 심사한 후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처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 단, 사전 심의는 팀별로 8일부터 12일 사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함
 - ▷1조 : 김지덕, 이근창
 - ▷2조 : 박연심, 이상람
 - ▷3조 : 신준규, 한종률
 - ▷4조 : 이필훈, 조성중
- 제2호 : APEC등록건축사 등록신청서 심사일정 등에 관한 건
 - 접수된 등록신청자의 APEC 등록건축사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대한 심사일정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함.
 - ▷1 단계 : 2007. 01. 08 ~ 2007. 01. 12 :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 심사
 - ▷2 단계 : 2007. 01. 15 ~ 2007. 01. 31 :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 ※ 2007년 1월 25일 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인 심사 기준

마련

▷3 단계 : 2007. 02. 01 ~ 2007. 02. 16 : APEC 등록건축사로서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심사. 다만, 위의 일정은 필요시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함.

- 제3호 : APEC 등록건축사의 계속교육 취득 방법 및 관리에 관한 건
 - 계속교육의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후 차기 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함.

▲기타사항

- ID 카드 및 등록증의 디자인 변경 건과 2007년도 1월~2월 임시예산(안),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은 기 배부된 자료를 검토한 후 차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1회 공제사업위원회

2007년도 제1회 공제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8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제사업 T/F팀 연구보고서 검수에 관한 건, 공제사업 추진방안 및 일정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결과

- 제1호 : 공제사업 T/F팀 연구보고서 검수에 관한 건
 - 공제사업 T/F팀 실무작업 연구보고서 검수 위원으로 박찬정 공제사업위원회 담당이사과 안택영부위원장을 선정함.
 - 공제사업 T/F팀에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각 위원들이 검토한 후 20일까지 의견을 제시하여 연구보고서에 반영키로 함.
- 제2호 : 공제사업 추진방안 및 일정에 관한 건
 - 이사회('07. 1.16)에 보고할 공제사업 요약보고서를 위원장이 보완하여 제출하고 보고토록 함.
 - 임원 및 시·도회장합동회의('07. 1.

30)에 최종연구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토록 T/F팀에 요청함.

2006년도 종무식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2006년 12월 29일(금) 오전 11시 건축사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본협회와 서울시건축사회, 서울시복지회 임직원 이 참석한 가운데 종무식을 갖고 다사다난했던 2006년도 업무를 종료했다.

이철호 회장은 송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모로 고생 많았다”고 치하하며 “대외적으로 건축사의 위상이 크게 신장된 한해였다”고 돌아보고 “2007년에는 올해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그간 세운 계획들을 구체화해 하나하나 반드시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아울러, 앞으로도 협회와 건축사 발전의 큰 틀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협회 임직원들은 조출한 다과회를 갖고 다가올 새해에는 더욱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2007년도 시무식 개최



우리협회는 2007년 1월 2일(월) 오전 11시 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본협회와 서울시건축사회, 서울시복지회 임직원이 참석한 가

운데 시무식을 갖고 2007년도 새해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이철호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건축사등록원 설립과 관련한 건축사법 개정, 건축문화진흥법·건축기본법·건축물유지관리법 제정, 건축의 날·한국건축산업대전·전국건축사대회를 연계한 건축주간행사 개최, 건축자재인증사업 시행과 건축사공제사업 추진, 건축사 계속교육과 실무수련 시행사업 시행, 그리고 각종 건축정책과 연구사업 등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화합된 마음으로 적극 도와주시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전국 건축사님 그리고 사무국 여러분들의 가정에 따뜻하고 풍성하며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이어 역대회장들의 덕담이 섞인 인사말이 있었으며,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자는 구호와 함께 조출한 다과회를 갖고 서로 덕담을 나누었다.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6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98-2490 · 평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6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5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5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063-8902 ·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인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포천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동지방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89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8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실/(042)841-5725 · 청양지역회실/(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9-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8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8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8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8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2-9005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6668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64-7400 · 함안시건축사회/(055)585-8587 · 창녕시건축사회/(055)533-247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제13회창원시건축대상제 대상에 '창원전문대 본관' 선정



제13회 창원시 건축대상작품으로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안길원)의 창원전문대 본관이 선정됐다.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우수작품을 선정해 널리 홍보하기 위해 해마다 건축대상제를 열고 있는 창원시는 2006년 12월 19일 이상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교수,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작품심사위원회에서 발표했다.

금상은 대방동 창원노인복지회관(주.마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허필도), 은상은 시립가음동어린이집(동서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황종규, 유림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송재원), 동상은 반송동의 상가건물인 dna빌딩(주.종합건축사사무소A7 황흥렬)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작은 혁신적인 이미지의 행정동 건물로서 대학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건물로서 표현했으며, 시원한 느낌의 중정과 유리를 활용한 개방감으로 방문자들에게 대학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금상작품인 창원노인복지회관은 내부의 중정과 노인을 배려한 경사로의 배치 등 외부의 형태처리가 우수했으며(인제대 건축학과 고인

석 교수), 은상작품인 시립가음동어린이집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블록형태의 매스구조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특징을 띠고 있다는 점, 동상작품인 dna빌딩은 송판노출콘크리트와 ALC재료의 시도는 좋았으나 시공정밀도와 색상의 배합에서 타 작품에 비해 떨어졌다. 하지만 집합주거단지에 인접한 기존의 상업시설 등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과감한 시도가 돋보여 선정되었다.

수상작품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12월 29일 종무식 때 설계자에게는 상패를, 건축주에게는 '창원시 건축대상제 수상작품'이라 새겨진 동판을 수여해 건축물에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상작품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민원실에 일정기간 전시할 예정이며, 시가 발주하는 수의계약대상 설계 발주 때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 문의 : 무영건축 02-3011-1434

생태환경건축아카데미 개설

생태건축연구소와 정림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정림건축이 후원하는 생태환경건축아카데미가 2007년 3월 개설된다.

1년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생태건축개론과 철학, 에너지, 건축재료 및 기법, 생태도시 등 이론 강좌와 실습, 세미나, 답사, 봉사활동으로 구성되며, 일반인과 전문인과정을 두어 생태건축의 대중화뿐 아니라 건축실무자를 위한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학습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가대상은 일반과정에 일반인 모두 참여 가능하고 전문과정은 건축전공자와 건축관련 실무자 등이다. 수강료는 유료이고 참가접수는 2007년 1월 31일까지이며 면접을 통해 수강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 문의 : 정림문화재단 02-708-8861,
생태건축연구소 02-776-3051,
<http://www.ecoarch.org>

KCC '솔라그린' 출시

솔라유리 건축 시장 최초 적용

KCC가 건축용 솔라유리인 솔라그린(SOLAR GREEN)을 출시했다. 솔라그린은 신개념의 자외선 차단 유리로 가구, 커튼, 바닥장식재, 의류 등에 대한 변색을 유발하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탁월한 유리이다.

최근 국내 유리 시장은 단순한 용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부여한 유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출시된 것이 바로 솔라그린이다. 솔라유리란 일반유리 대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우수한 유리를 말하며, 그동안 고급 자동차용 유리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KCC 솔라그린의 탄생으로 건축용 시장에도 솔라유리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솔라그린은 주상복합 건물이나 고급 아파트 발코니 창에 주로 적용되며 기존 칼라유리에 비해 진한 색상을 가지기 때문에 외장 디자인을 두드러지게 연출하는 효과도 뛰어나다. 특히 로이 유리(로이유리란 유리 한쪽 표면에 금속을 코팅하여 단열성능을 향상시킨 에너지 절약형 유리)와 함께 구성하여 복층 유리로 사용하면 겨울철 난방 및 여름철 냉방부하 감소에도 효과적이다.

KCC 관계자는 "솔라그린으로 주상복합 건물 및 아파트 발코니 시장을 집중 공략하여 고급 유리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문의처 : KCC 02-3480-5884

제16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

김태수 건축여행 장학재단에서 해외건축여행기금으로 미화 \$ 10,000을 수여하는 제16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장학제를 개최한다. 이 기금은 한국의 젊고 유능한 건축사에게 교육과 해외건축여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 목적이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지원자격 안내

만35세 미만의 한국에서 건축학위를 받

은 대한민국 국민

- 제출서류 및 포트폴리오 양식안내
 - Application Form
 - 자기가 직접 창작한 건축 작품 또는 예술 활동을 통하여 만든 작품들로 구성된 Portfolio.
- 접수기간 : 4월 30일
-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6-5 로프트빌딩 3층1호 (주) 맥스트렛 내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 담당자 앞
- 선정절차 안내
 - 1차 포트폴리오 심사 : 5월 중순에 미국에서 건축사 최소 4명이 만나서, 보내온 포트폴리오를 보고 2명에서 4명을 선발.
 - 2차 최종 면접 : 1차 서류 심사에서 합격한 지원자들은 5월말이나 6월 초에 서울에서의 인터뷰는 김태수 건축사가 한국에 나가 김정곤 교수와 함께 하거나, 김태수 건축사가 나갈 수가 없으면 한국의 저명한 건축사 두 명이 Interview하며 그 결과를 김태수 건축사에게 알려주어 상임위원들에 의하여 최종 결정.
- 시상
 - 미화 \$10,000를 시상하며 여행은 그 해나 그 다음해에 할 수 있다.

2007 Xi Design Fiesta

GS건설은 Xi 디자인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주거공간, 주거문화 트렌드를 선도하고자 2007년 'Xi Design Fiesta'를 개최한다.

'Xi Design Fiesta'는 워크샵 부문과 공모전 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는데, 워크샵 부문은 국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및 디자인 관련학과 대학(원)생 대상으로 하며, 'Return to the core' (본질로의 회귀)라는 주제로 2007년 1월 8일에서 12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2007년 2월 5일에서 8일 (3박 4일)간 진행되며, 공모전 부문은 국내 디자인여와 국내 건축 및 디자인 관련학과 대학

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Motion to Emotion' (감성으로의 손짓)을 주제로 12월 18일에서 2007년 2월 15일까지 참가등록을 받고 2007년 2월 12일에서 15일까지 1차 작품 접수를 받는다.

- 문의 : www.xidf.co.kr

현대 건축에서의 실험성

철학아카데미에서 '현대 건축에서의 실험성'이라는 주제로 6주간 건축강좌를 개최한다. 이 강좌는 실험성이 제공하는 창작의 계기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건축적 실험에 관심을 갖는 대표적 건축사들의 작업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실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일정
 - 1월 8일 : 건축적 실험의 양상 - 정만영(서울산업대)
 - 1월 15일 : 건축적 실험의 흐름 - 임종엽(인하대)
 - 1월 22일 : 실험적 건축1 - 김영준(김영준도시건축연구소)
 - 1월 29일 : 실험적 건축2 - 임재용(O.C.A)
 - 2월 5일 : 실험적 건축3 - 미확정
 - 2월 12일 : 전위 vs 후위의 논리 - 정만영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4시~6시
- 수강료 : 8만4천원
- 문의 : 02-2279-2871

공공미술, 대중 속의 미술 그리고 대중과 호흡하는 디자인

- 일정
 - 1월 12일 : 희망의 작은 도서관 만들기 - 양상현(민족건축인협의회)
 - 1월 19일 : 예술가들이 만든 문화예술체육의 쉼터 - 유다희(공공미술 프리즘)
 - 1월 26일 : 공공미술이 바뀌는 도시, 아트인시티 - 안현숙(공공미술추진

위원회)

- 2월 2일 : 왜 공공미술인가 - 미정
- 2월 9일 : 마음 속의 센트럴 파크, 한평공원 - 김연금(도시연대 CDC)
- 2월 16일 : 이야기가 넘치는 열린 놀이터 만들기 - 김성주(도시연대)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장소 : 민예총 문화아카데미
- 수강료 : 6만원
- 문의 : 02-739-6854~6

제20회 건축사진아카데미

청암건축연구소가 제20회 건축사진아카데미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3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16주동안 카메라의 기초부터 모형촬영, 현대건축 및 전통건축 촬영 그리고 디지털 사진작업에 이르기까지 실기위주로 교육한다.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8시30분
- 참가인원 : 선착순 12명 내외
- 수강료 : 30만원
- 문의 : 02-444-7088

건축

2006 건축의 경향

2006년은 지속가능한 건축물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지난 10년간 윌리엄 맥도널드 그리고 아크로산티의 창시자 파울로 솔레리를 포함한 많은 녹색 건물과 환경 친화적 가치의 추구를 지속하여 왔다. 10년 전만하여도 커다란 규모의 친환경적 건축의 구현은 단지 희망에 불과하였다.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보다 적은 난방, 적은 냉방을 의미하는 반면 위대한 건축에 대한 상징성과 위엄의 축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녹색이란 멋이 있고 경제적인 의미로 상징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건축 기술 혁신의 사이클은 매우 짧아지고 있다. 오늘날 녹색 디자인은 스마트 건물의 기본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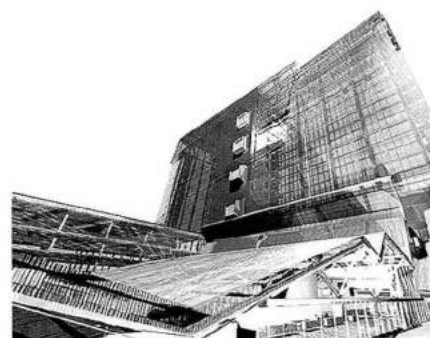


46층의 허스트 빌딩은 뉴욕의 대표적 녹색건물로 세워졌다. 그리드 프레임의 사용으로 약 20%의 철재의 절감을 가져 왔으며, 센서를 이용한 조명의 조절과 최신 설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노만 포스터 설계의 허스트 건물은 2006년 8월에 문을 열었으며, LEED(Leadership in Energy & Environmental Design) 금상을 뉴욕시로부터 받았다. 대각선 건물 구조 프레임은 같은 건물 크기에 비하여 20% 적게 강재를 사용하였으며, 철재의 90% 이상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였다. 지붕은 우수를 모아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나무와 식물 재배에 사용한다. 고효율의 냉난방 시스템은 연간 75%로 외부 공기를 환기와 냉방에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건물로 허스트 빌딩은 맨하탄의 첫번째일 것이다. 그러나 2006년에는 이와 같은 접근에 의한 많은 건물들이 세워졌다.

리차드 로저스의 웨일즈 의사당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재와 자연환기시스템을 사용하였다. 톰 메인의 샌프란시스코 연방 건물은 최소 전 건물의 70% 이상 공기조화를 없앤 미국의 첫 오피스 건물이다. 이는 컴퓨터 제어된 외벽을 사용하였으며, 오브 아를사의 엔지니어와 이를 개발하였다. 기후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외벽을 조절하고 있다. 폭이 얇은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자연 환기를 가능하게 하며, 금속재질의 선스크린을 사용하여 바닥으로부터 지붕까지 창문에 그늘을 만든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건물. 컴퓨터를 이용한 외벽의 제어를 통하여 미국 최초로 전체 면적의 70% 이상에 에어컨디션을 없앤 건물이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은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도 진행되었다. 캠프리지의 유망한 젊은 기업에 의하여 설계된 빅딕 주택은 같은 이름의 보스턴의 대규모 기반 공사를 위하여 버려진 자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의 스티브 글렌 주택은 스스로 경작을 하고, 자가발전할 수 있는 건물로, LEED 플래티넘상을 수상한 최초의 주택이다.

2006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며, 엔지니어링적 성취를 거둔 경우도 있다.



스티브 글렌 주택. 스스로 물을 주며,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높은 주택으로 미국 녹색 빌딩협회의 플래티넘 상을 받았다.

이 난은 인터넷상의
주요 건축관련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통일 독일 시대를 위한 뮤지엄 정비



베를린의 보드 뮤지엄. 8년간의 보수를 통하여, 베를린 뮤지엄 아일랜드에서 스프리 강을 내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재 개관하였다.

독일 베를린의 보드 뮤지엄이 재 개관 하였다. 이 박물관의 재 개관은 제2차 세계대전과 동독 공산 진영을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위치라 할 수 있는 뮤지엄 아일랜드가 세계적인 예술 센터 지위로 복귀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섬에 위치한 여러 뮤지엄 중 2개의 뮤지엄만이 좋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2001년에 구 국립 갤러리가 복원되었다. 보드 뮤지엄은 1904년 카이커 프레드리히 뮤지엄으로 처음 지어졌으며, 이번에 \$3억의 예산과 8년간의 기간을 거쳐 복원되었다. 섬의 북쪽에 위치하여 스프리 강을 내려다 보는 삼각형 대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뮤지엄은 예술의 진정한 전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네오 바로크 양식의 입구가 있으며, 전면에 기마상이 배치되어 있다. 자연채광 그리고 대리석 바닥과 나무패널의 천정으로 되어 있다.

이 박물관은 비잔틴 예술, 15세기부터 18세기 예술작품, 그리고 르네상스 그림과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뮤지엄 아일랜드의 다른 두 뮤지엄의 개보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구 뮤지엄은 \$3.87억의 비용으로 개보수되고 있다. 또한 신 뮤지엄은 전쟁 중 폭격으로 심한 손상을 받았으며, 과거 동독 정부에 의하여 폐허로 남아 있었다. \$9,400만의 예산으로 영국 건축사 데이비드 치퍼필드에 의하여 방문자 센터가 신 뮤지엄 옆에 지어질 예정이다. 유리 파사드의 이 건물은 20세기 초 유대계 독일인 제임스 시몬의 이름을 따 명명한 것이며, 신건물, 구건물, 페르가나와 보드 뮤지엄과 지하로 연결되도록 계획되었다.

이와 같은 뮤지엄 복원은 1990년 독일 통합에 따른 야망찬 문화복원 계획의 일환이다. 과거 45년간 도시의 예술적 보물들이 나뉘어 전시되어 왔다. 동독의 경우 뮤지엄 섬을 중심으로 전시가 되었다. 반면 서베를린은 새로운 국립 갤러리를 세웠으며, 회화 갤러리를 건립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통일 독일의 관점에서는 흩어지고 중복된 예술작품들의 전시와 보관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17개 뮤지엄을 소유하고 있는 프러시아 문화 헤리티지 재단은 뮤지엄 섬의 복원과 함께 점진적 소장품의 재구성을 진행하고 있다. 2005년에는 이집트 예술품들을 구박물관으로 이전하였다. 소장품 정리 계획은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뮤지엄 섬은 고대 문명의 예술품으로부터 1900년대의 예술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재단의 종합 계획에 의하면, 근대 및 현대 예술품들은 게말데 갤러리, 함부르 그 반호프 뮤지엄, 그리고 다른 곳 등의 서베를린 뮤지엄에서 전시될 것이며, 미즈 반데로예의 뉴 내셔널 갤러리는 임시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예일대 아트 갤러리 건물, 재 개관



루이스 칸의 예일대학 아트 갤러리

루이스 칸에 의하여 설계된 근대건축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예일대학의 아트 갤러리 건물이 지난 12월 재 개관하였다. 지난 3년간 \$4,400만불의 예산을 들여 3년간 개보수 하였다. 이 작업은 칸이 설계하였던 원래의 순수성과 통합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건물로써의 보존을 하며, 갤러리의 다양한 소장품을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한 최신의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를 통하여 세계적 예술 갤러리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보수

가 진행되었다.

이 건물은 1953년에 완공되었으며, 미국 뮤지엄 건축에 중요한 이정표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 돌과 유리 그리고 강철로 만들어진 이 건물은 대담한 기하학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공간과 빛의 과감한 사용, 그리고 구조적이며 엔지니어링적 혁신을 보여준 작품이다. 이번 개보수는 현대적 재료를 사용하여 외벽을 개보수하였으며, 전기와 환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천정을 보수하였고, 갤러리의 원래 오픈스페이스를 복원하였다. 그리고 1층 로비를 미디어 라운지, 정보센터와 모임의 장소로 변경시켰다. 뉴욕의 폴세크 파트너십 건축사에 의하여 설계, 개보수되었다.

제5회 IAHH 국제학생 디자인 공모전 개최

IAHH(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Human Habitat)는 제 5회 2007 학생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를 발표하였다. 이 기관은 인도 뭄바이의 비정부 기관으로 전세계의 건축사, 연구소 및 대학과의 연계를 갖고 있다. 이번 디자인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문화 그리고 예술 콤플렉스를 계획하는 것이다. 계획안은 인간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혁신적 건축 계획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참가 학생들은 적합한 교외나 도시의 커뮤니티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그리고 물리적 조사를 디자인 안을 만들기 전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안된 디자인은 사람과 환경적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람과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야하며, 지속가능한 기반 구조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체 에너지, 수자원 활용과 폐자원 재활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코러스사의 2007 학생공모전

코러스사는 제 19회 건축학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그 주제는 'H2Ouse - Living on the water'로 선정되었다.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이 올해의 주제이며, 예측 불가능한 수위에 의한 주거공간 혹은 수

상의 커뮤니티로 철을 사용한 창의적 주거 설계 디자인의 과제가 주어졌다. 올해의 주제는 네델란드와 같이 홍수의 방지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고도 범람하는 지역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책을 탐구하고자 한다. 최종 제출물은 여러 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영구 주거 혹은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재난 구호를 위한 임시 쉼터를 제안할 수 있다.

두바이의 개발사 모스크바 인근 개발

두바이의 유명한 개발사인 리미트리스는 모스크바 인근 1,800ha의 면적을 새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리미트리스는 두바이 월드의 부동산 개발 자회사이며, 2006년 봄 미국 항만의 운영권을 팔도록 제재를 받은 회사이기도 하다. 'Great Domodedovo'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오늘날 가장 커다란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개발사 측은 밝히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두바이와 같이 무로부터 전체 도시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다. 제 1단계에서 \$110억이 투자될 예정이다. 7,500 acre 땅에 러시아의 투자 및 개발회사인 코알코와 합자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Great Domodedovo' 프로젝트는 주거, 상업 그리고 교육,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시설 모두를 갖춘 예정이다. 150,000세대의 주거와 상업 공간이 2007년에 착공될 예정이며, 주거는 저층과 고층의 혼합의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다.

건축과 동물

- 프랭크 게리, 개를 위한 집 설계

건축사들은 동물들을 위한 멋진 집들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듣는다. 프랭크 게리는 한 쌍의 개를 위한 집을 설계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라스베가스에 \$1억 예산의 알츠하이머 센터를 건립을 위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선 옥션에 참석하였으며, 이곳에서 게리 디자인에서 한 약속이다. 이 자선행사에서 게리는 자신의 임무가 사실인 것을 무대 위에서 알게 되었으며, 이를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건축사가 좋아하는 여부와 관계 없이, 빌바오의 구겐하임

박물관은 지역에서 개집으로 통한다. 이는 꽃으로 만들어진 제프 쿤의 커다란 강아지 동상이 중앙 입구에 있기 때문이다.

현대 건물에서 동물의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의 건물은 녹색건물이라 할지라도 동물의 건물 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텔레비전에서 야생동물 프로그램이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으나, 동물들은 건물 환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밀려나고 있다. 현대 건축 개발과 도시 환경에 따라 일부 동물들은 멸종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동물을 멀리하고, 인간 자신은 안전하고 깨끗한 실내에 머물고 있으며, 화학적으로 깨끗해 진 집에 머물고 있다. 우리가 이들 동물들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우리의 근처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진정 위험하지 않은 한, 우리의 환경으로 불러와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집은 우리를 것만이 아니며, 우리의 개나 고양이들만이 아니며, 보다 넓은 세상의 부분이다. 올해 RSPB(The Royal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the Birds)는 새들을 위한 집의 마련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주요 이슈로 삼으며, 새들과 곤충들과 연관된 식물과 야생동물들과 우리가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 이는 주택에 새둥지 벽돌을 사용하고, 새를 위한 상자를 마련하며,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원을 가꾸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가 우리의 도시를 둘러 볼 때, 우리는 많은 동물 조각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건물들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사실 건축과 야생동물은 1,000년전 벽돌이 구어지고 건물이 만들어진 이래 대부분의 세계의 문화에서 가깝게 연관 되어있다. 건축사와 엔지니어들은 동물들이 만들어 온 구조에 매료되어 왔다. 고강도 구조, 장대한 다리, 스코트 스탈디움을 덮는 그물망 구조 등은 거미의 망으로부터 나왔다 할 수 있으며, 이는 가장 경량이며 가장 강한 구조 중 하나이다. 터마이트 동지는 마치 환경 친화적 고층 건물의 모습을 닮아 있다. 이는 생태적으로도 바람직한 고층 건물의 형태이다. 건축사와 엔지니어들은 이 보다 고층 건물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

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소모량을 최소화하고 있다. 야생동물로부터 배울뿐만 아니라 보호와 영양을 공급받는다.

디지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는 예전에는 커다란 재고의 대상이 아니었다. 단지 새 제품이 나오면 의례 업그레이드 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많이 바뀌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5년만에 새로운 운영체제를 출시하고 있으나, 많은 사용자들은 1~2년 후나 전환을 고려할 것으로 조사되었었다. 이는 개인용 컴퓨터 사용 환경에서의 두 가지 커다란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첫째로는 소프트웨어 성능이 이미 많이 좋아진 결과이다. 초기 소프트웨어들은 기능상 제한이 많았으며, 업그레이드가 항상 필요하였다. 과거 십년간 아래한글, MS Word 등 워드 프로세서들의 기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가끔 인터넷을 통하여 몇 분간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주요 변화가 없다.

두 번째로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혼란의 문제이다. 초기 개인 컴퓨터는 많은 문제성이 있었다. 다른 컴퓨터와의 호환성도 골치거리였다. 다른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는 많은 혼란을 야기하여 왔다. 과거의 이와 같은 혼란은 보다 나은 사용자 환경으로의 전환이었으며, 사용자는 좋다는 것을 느꼈으며, 이는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 특히 업그레이드에 대한 비용이 이득을 잠먹고 있으며, 직원이 새로운 기능을 배움에 따라 회사 수입은 감소하며, 또한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에 따른 수익이 감소하는 등의 불평을 넣고 있다.

성능의 커다란 향상이 없는 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는 별 의미가 없어졌으며, 이에 따른 사용자의 저항이 가시화 되고 있다.

CAD 소프트웨어 패키지 판매에 대한 재고

과연 인터넷은 CAD 소프트웨어 구입에 변화를 줄 수 있는가? 대부분의 CAD 소프트웨어는, 필요한 개별 기능을 구입할 수 없는, 종합적 기능을 가진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많은 경우 제도, 모델링, 랜더링, 시뮬레이션 그리고 기타 기능을 하나의 프로그램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능 모두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모델링이나 랜더링을 이용하거나 제도나 모델링 등의 제한적 기능만을 사용한다.

문제는 사용자가 정확히 필요한 모듈을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하여 많은 시간적 투자가 필요하다. 어떤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몇일씩 투자하고자 하지 않는다. 비록 사용자들 자신도 일부분만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모든 기능이 설치되기를 원하며, 컴퓨터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마케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대부분 마케팅에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로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많은 CAD 판매사들은 두 가지 목적으로 판매를 진행한다.

- 새로운 사용자의 확보: 전체 기능을 망라하는 것은 경쟁자와의 세일즈에서 이기는 수단이다.
- 기존 고객에게 업그레이드의 판매: 수백가지 기능의 향상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 보다 새로운 기능에 따른 생활의 변화를 이야기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CAD 소프트웨어의 성능은 이미 사용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좋아 졌다. 사용자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몇몇 특수기능에 따라 업그레이드를 따라가는 것 보다 기존 기능의 적정화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제품 형태가 아닌 섹스크립션의 형태로 판매될 경우 필요기능을 선택하며, 이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으로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오토데스크사 Open Design Alliance 고소

오토데스크사는 Open Design Alliance (ODA)를 미국 연방 법원에 상표법 위반으로 제소하였다. ODA는 오토데스크사의 DWG 파일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한 연합체이다. 이 서비스는 참가 회원의 사업을 위한 필수적 작업이며, 회원 대부분은 오토데스크사와 경쟁 위치에 있는 CAD 회사들이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DWG 파일을 읽고 쓸 수 있다. 오토데스크사에게는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시장을 훔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오토데스크사는 DWG 포맷은 지적 재산권의 일부이며, 다른 CAD 프로그램에서 DWG 파일을 읽고 만들어지는 행위는 멈춰져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많은 CAD 관계자들은 왜 오토데스크사가 ODA가 운영되도록 여지껏 내버려 두었느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토데스크사가 이번엔 문제시 한 것은 ODA에 의하여 Autodesk 2007에 관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이다. 오토데스크사는 DWG 파일에 워터마크 기능을 도입하여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의한 파일과 진정한 오토캐드 파일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때때로 AutoCAD의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와 같이 ODA는 오토데스크 DWG 2007의 판독을 하였으며, 워터마크 기능까지도 복제하였다. 이에 따라 오토데스크사가 만들어 놓은 장점을 무색하게 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오토데스크사는 워터마크의 복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힌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오토데스크는 ODA 운영 전반에 대한 공격이 아닌 워터마크의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성공적일 경우 법적 조치는 오토데스크사와 경쟁을 하는 ODA 회원들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없애야 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 만약 DOA가 2007 DWG 포맷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한 것에 대한 워터마크를 지우고 단기간에 비즈니스에 들어갈 수 있다.

오토데스크사의 교육지원 프로그램

오토데스크사는 미주지역에서 교육투자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지역 학교에 소프트웨어를 기증하는 프로그램이다. 산업체 주도

의 이 프로그램은 어떤 회사가 오토데스크사의 소프트웨어를 5개 구입할 때 마다 고등학교에 25개의 오토데스크사의 소프트웨어를 기증하는 형식이다. 이 장학금의 형태는 최고 \$25,000의 가치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처음 참가한 회사는 미네소타의 마빈 창호 회사이며, 과거 오토데스크사의 인벤터를 30개 구입하였다. 결과 교육지원 프로그램에서 약 \$150,000의 소프트웨어를 학교에 기증하였다. 미네소다주 지역 기술대학의 두개의 캠퍼스에 인벤터 소프트웨어를 기증하였다.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회사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오토데스크사 DWF와 XPS 포맷 호환

오토데스크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DWG와 원도우 비스타에서의 XML 종이 시방(XPS)을 사용하는 문서와의 호환성을 발표하였다. 이는 DWF 파일의 설정정보를 추가적 플러그인이나 소프트웨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두 회사의 전략적 동반 관계는 오늘날 중요시 되고 있는 프로젝트 팀의 협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줄 전망이다. DWF 파일은 XPS로 보내어질 수 있으며, 이 때 원도우 비스타에서 XPS 뷰어를 이용하여 문서를 볼 수 있다. 앞으로 출시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로 직접 볼 수 있다. 오토데스크사는 DWF 파일을 XPS 시방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변환 기능 이외에 원도우 비스타 데스크탑 탐색 기능을 사용하여 관련 디자인 파일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REALVIZ사 Stitcher Unlimited 5.5 Double Shot 출시



어인렌즈로 찍은 사진들을 하나의 사진으로 합성할 수 있다.

REALVIZ사는 Stitcher Unlimited 5.5DS를 출시하였다. 이 제품은 2개 이상의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으로 만들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이미지 결합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이 소프트웨어는 전문가 수준의 소프트웨어로 시진가, 건축사, 멀티미디어, 3D 예술가 등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고품질의 광각 파노라마를 웹이나 영화, 프린트, 그리고 3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3차원 환경, 매트 페인팅, 지도, 영화나 필름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제품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요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 부동산: 부동산의 임대, 판매, 그리고 관광객 유치에 사용되고 있다. 이 제품을 사용하여 애플의 퀵타임 등에서 볼 수 있는 경관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시공 프로젝트의 시각화된 문서 작성: 현장에 대한 전체적이며 정확하며 세부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이미지는 훈련, 새로운 프로젝트의 계획 등을 위하여 사용된다. 이 이미지는 구글 어스로 직접 보내질 수 있으며, 정확한 지리적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
- 법적 규제: 확인과 법적인 명확성을 위한 범죄 현장의 문서화에 사용된다. 이를 사용하여 범죄 현장에서의 재현을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수사의 정확한 디테일을 보존할 수 있다.

그래피소프트사 2007 Virtual Construction 출시

지난 12월 그래피소프트사는 '가상 시공 제품 2007'을 내놓았다. 이 제품은 새로운 기계, 전기 및 설비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미 세계의 많은 회사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새로운 제품의 출시에 따라 프로젝트의 수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건설산업의 정보관리 도구에 대한 지속적 요구에 따라 그래피소프트사는 모델링, 일정 관리, 견적, 재정 분석 등을 하나의 도구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았으며, 이를 사용하여 시공사는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품의 새로운 기능은 다음과 같다.

- Constructor 2007: 이 부분은 자유로운 형상의 모델링과 생산성이 강화된 ArchiCAD 10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모듈에서 새로운 MEP 모듈러를 포함시켜 기계, 전기 및 설비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 모듈은 정확하고 사용이 손쉬우며, 덕트, 파이프, 장비 등의 표준 라이브러리를 갖추고 있다.
- 5D Presenter 2007: 이 기능은 비용의 관리와 제어, 그리고 성능의 향상을

돕는다. Estimator 2007 and Control 2007에서의 견적과 스케줄에 의한 프로젝트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Estimator 2007: 이 기능은 견적서 작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 Cost Manager 2007: 새로운 부분으로 시각적으로 그리고 상세한 비용 산정을 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견적과 다른 견적을 비교하거나 특정 목표 예산에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체 프로젝트 대비 목표 비용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상세한 비용 산정도 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이나 에스티메이터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 Control 2007: CPM과 연결되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용과 연계한 일정관리 모듈이다. MS 프로젝트, 프리마베라 그리고 파워프로젝트 등의 일정관리 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하다. ■

(제공: 윤기병(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2006년 건축허가 현황(11월)

■ 용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1월)			누계 (1~11월)		
		2005년	2006년	증가율	2005년	2006년	증가율
계	동 수	11,875	18,252	53.7%	118,250	169,624	43.4%
	연면적	8,355,071	10,531,260	26.0%	94,818,155	118,115,520	24.6%
주거용	동 수	2,762	5,148	86.4%	33,210	48,180	45.1%
	연면적	3,726,185	3,638,306	-2.4%	41,068,488	46,563,578	13.4%
상업용	동 수	3,590	5,865	63.4%	35,579	51,942	46.0%
	연면적	1,701,544	3,148,748	85.1%	20,713,764	29,669,425	43.2%
공업용	동 수	2,076	2,183	5.2%	18,583	24,134	29.9%
	연면적	1,159,568	1,384,627	19.4%	12,315,766	15,013,971	21.9%
문교및 사회용	동 수	920	1,153	25.3%	8,973	11,180	24.6%
	연면적	632,048	840,846	33.0%	8,838,057	10,456,965	18.3%
기 타	동 수	2,527	3,903	54.5%	21,905	34,188	56.1%
	연면적	1,135,726	1,518,733	33.7%	11,882,080	16,411,581	38.1%

■ 구조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1월)			누계 (1~11월)		
		2005년	2006년	증가율	2005년	2006년	증가율
계	동 수	11,875	18,252	53.7%	118,250	169,624	43.4%
	연면적	8,355,071	10,531,260	26.0%	77,373,080	118,115,520	52.7%
철근 철골조	동 수	10,516	15,124	43.8%	103,690	145,593	40.4%
	연면적	8,256,902	10,292,078	24.6%	93,608,805	116,130,950	24.1%
조적조	동 수	1,151	2,201	91.2%	12,452	18,751	50.6%
	연면적	76,092	165,975	118.1%	1,000,121	1,475,511	47.5%
목조	동 수	208	784	276.9%	2,101	4,858	131.2%
	연면적	22,077	60,356	173.4%	208,541	410,735	97.0%
기 타	동 수	0	143	0.0%	7	422	0.0%
	연면적	0	12,851	0.0%	687	98,324	0.0%

■ 시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1월)			누계 (1~11월)		
		2005년	2006년	증가율	2005년	2006년	증가율
계	동 수	11,875	18,252	53.7%	118,250	169,624	43.4%
	연면적	8,355,071	10,531,260	26.0%	94,818,155	118,115,520	24.6%
수도권	동 수	3,625	5,721	57.8%	36,547	54,902	50.2%
	연면적	2,394,269	4,096,071	71.1%	39,566,482	48,104,154	21.6%
서울	동 수	672	1,011	50.4%	6,741	9,440	40.0%
	연면적	610,310	1,125,786	84.5%	9,459,740	12,647,929	33.7%
인천	동 수	330	515	56.1%	3,384	4,331	28.0%
	연면적	361,451	332,835	-7.9%	3,972,867	4,202,468	5.8%
경기	동 수	2,623	4,195	59.9%	26,422	41,131	55.7%
	연면적	1,422,508	2,637,450	85.4%	26,133,875	31,253,757	19.6%
지방	동 수	8,250	12,531	51.9%	81,703	114,722	40.4%
	연면적	5,960,802	6,435,189	8.0%	55,251,673	70,011,366	26.7%
부산	동 수	401	574	43.1%	4,575	5,574	21.8%
	연면적	325,685	1,094,566	236.1%	4,850,653	9,531,447	96.5%
대구	동 수	499	585	17.2%	4,476	5,647	26.2%
	연면적	1,543,631	908,791	-41.1%	7,837,370	6,945,681	-11.4%
광주	동 수	400	432	8.0%	3,286	4,199	27.8%
	연면적	241,981	494,662	104.4%	2,629,513	3,997,889	52.0%
대전	동 수	260	318	22.3%	2,630	3,552	35.1%
	연면적	80,554	565,921	602.5%	2,175,094	3,158,932	45.2%
울산	동 수	301	491	63.1%	3,074	4,402	43.2%
	연면적	198,722	185,518	-6.6%	1,671,539	2,292,364	37.1%
강원	동 수	699	1,018	45.6%	6,510	9,606	47.6%
	연면적	628,776	320,131	-49.1%	4,400,828	4,459,029	1.3%
충북	동 수	690	1,008	46.1%	6,884	10,055	46.1%
	연면적	398,499	296,895	-25.5%	4,867,212	4,895,626	0.6%
충남	동 수	763	1,269	66.3%	8,359	12,150	45.4%
	연면적	704,770	474,434	-32.7%	6,462,587	7,690,293	19.0%
전북	동 수	614	1,320	115.0%	6,287	10,501	67.0%
	연면적	196,587	477,276	142.8%	3,177,277	3,890,188	22.4%
전남	동 수	781	1,292	65.4%	7,213	11,669	61.8%
	연면적	258,541	255,174	-1.3%	2,323,891	4,181,488	79.9%
경북	동 수	1,337	1,994	49.1%	13,032	17,895	37.3%
	연면적	427,918	677,716	58.4%	6,011,606	7,518,974	25.1%
경남	동 수	1,213	1,954	61.1%	12,544	16,135	28.6%
	연면적	846,236	600,419	-29.0%	7,926,898	10,460,526	32.0%
제주	동 수	292	276	-5.5%	2,833	3,337	17.8%
	연면적	108,902	83,686	-23.2%	917,205	988,929	7.8%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6년 11월말

구 분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용 역 사무소	합 계	비율(%)									
	1인		2인		3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건축 사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072	5,072	147	294	23	73				5,242	5,439	1,493	1,493	270	540	70	210	33	132	33	220				1,899	2,595	7	7	7,148	8,041	100.0%	100.0%
서울	1,114	1,114	40	80	9	28				1,163	1,222	847	847	174	348	41	123	19	76	19	131				1,100	1,525	6	6	2,269	2,753	33.2%	35.4%
부산	484	484	17	34	5	16				506	534	84	84	14	28	5	15	4	16	4	23				111	166			617	700	8.9%	9.1%
대구	419	419	23	46	6	19				448	484	56	56	22	44	6	18	1	4	2	10				87	132			535	616	7.3%	7.5%
인천	234	234	2	4	0	0				236	238	49	49	6	12	0	0	0	0	0	0				55	61			2912	299	3.9%	3.5%
광주	212	212	2	4	0	0				214	216	32	32	7	14	1	3	2	8	3	17				45	74			259	290	3.5%	3.6%
대전	199	199	16	32	1	3				216	234	27	27	9	18	3	9	0	0	1	15				40	69			256	303	3.6%	3.7%
울산	164	164	6	12	1	3				171	179	16	16	4	8	1	3	0	0	0	0				21	27			192	206	2.6%	2.5%
경기	673	673	7	14	0	0				680	687	212	212	19	38	4	12	1	4	1	5				237	271			917	958	12.7%	12.1%
강원	159	159	3	6	0	0				162	165	21	21	3	6	0	0	0	0	1	5				25	32			187	197	2.5%	2.4%
충북	176	176	8	16	0	0				184	192	26	26	2	4	1	3	1	4	2	14				32	51			216	243	2.9%	2.9%
충남	161	161	4	8	0	0				165	169	35	35	1	2	1	3	4	16	0	0				41	56			206	225	2.7%	2.6%
전북	191	191	3	6	0	0				194	197	22	22	2	4	2	6	1	4	0	0				27	36			221	233	2.8%	2.6%
전남	132	132	0	0	0	0				132	132	8	8	0	0	2	6	0	0	0	0				10	14			142	146	1.9%	1.7%
경북	304	304	7	14	1	4				312	322	29	29	2	4	1	3	0	0	0	0				32	36	1	1	345	359	4.6%	4.2%
경남	351	351	9	18	0	0				360	369	21	21	5	10	2	6	0	0	0	0				28	37			388	406	5.2%	4.9%
제주	99	99	0	0	0	0				99	99	8	8	0	0	0	0	0	0	0	0				8	8			107	107	1.5%	1.4%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회 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 율	
합 계	8,014	10	8,024	100.0%	23
서울	2,743	3	2,746	35.4%	10
부산	704	1	705	9.1%	9
대구	618	0	618	7.5%	0
인천	300	0	300	3.5%	0
광주	292	0	292	3.6%	0
대전	300	1	301	3.7%	0
울산	205	0	205	2.5%	0
경기	948	2	950	12.1%	2
강원	197	0	197	2.4%	0
충북	242	0	242	2.9%	0
충남	221	3	224	2.6%	0
전북	229	0	229	2.6%	0
전남	146	0	146	1.7%	0
경북	358	0	358	4.2%	1
경남	404	0	404	4.9%	1
제주	107	0	107	1.4%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임미처리	합 계	비 고
회 원 수	5,439	2,595	78	8,112	
비 율	67.05%	31.99%	0.96%	100.0%	
사무소수	5,242	1,899	-	7,141	
비 율	73.41%	26.59%	-	100.0%	

2006년도 건축사지 총목차

06년 01월호(통441권호)

신년사	이철호	14
칼럼	정관개정, 왜 졸속으로 서두르고 있나?	김영수 16
시론	청계천과 한강	김진송 20
건축만평		유원재 23
회원작품	SK T-Tower	김정철+부대진+이론 단 24
	모세골 성서연구소	최동규 30
	DBEW디자인센터	김석철 38
	광주 J유치원	한진수 46
	한국 증권거래소 별관 리모델링	안길원, 서학조+김광배 52
	안국선문화원	박건+TADANASA KAWO 58
작품노트	대구대학교 50주년 기념관	윤철준 64
계획작품	제피로스골프장 클럽하우스	이종욱 70
설계경기	서울북부지방법원청사 외	74
기고	풍수지리로 본 파라미터와 그리스 건축미술의 기하학과 철학(33판)	박시익 82
건축마당	협회소식	88
	건축계소식	96
	건축인터넷정보	107
	통계	110
	해외잡지동향	112
	2005년 총 목차	114
	자재정보	116

06년 02월호(통442권호)

칼럼	정부의 건축실제 정책과 우리의 할 일	장양순 16
건축만평		유원재 19
회원작품	해송원(海松苑)	이인호 20
	김해 문화의전당	신동재 28
	사립 청동 문화체육센터 · 청소년수련관	황일인, 김성수, 김종현 34
	남양일로에 에코넷센터	유석연 42
	임마누엘 교회 + 교육관	김승희 · 강원필 50
	구미동 빌라	박인수 56
작품노트	청풍헌(淸風軒)	김석환 64
기획연재	문화의 교류, 한국에서의 외국건축-1	박길룡 71
설계경기	국제고등학교 외	60
기고	미술을 이용한 건축사무소 경영 전략과 조직 혁신	신경수 84
	도매 건축을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인환 96
건축마당	협회소식	100
	건축계소식	106
	건축인터넷정보	111
	통계	114
	해외잡지동향	116
	자재정보	118

06년 03월호(통443권호)

칼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장양순 12
건축만평		유원재 15
회원작품	혜로원(慧路軒)	김호만 16
	생곡주택	강대화 22
	중앙 청소년수련관	노윤경 28
	방학동 우림빌딩	유재득 · 최준 34
	천주교 송파동 성당 리노베이션	박재환 · 안기돈 · 송재현 40
	남부골프연습장	이용선 44
작품노트	경주 토함정사	정현화 · 임영수 48
기획연재	문화의 교류, 한국에서의 외국건축-2	윤인석 53
설계경기	중계2동 복합청사 외	60
기고	한국건축산업대전-1 그 시작과 준비	이규환 72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이치고	전영철 75
보고서	APEC 건축사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신준규 86
추모		90
건축마당	협회소식	92
	건축계소식	98
	건축인터넷정보	103
	통계	106
	해외잡지동향	108
	자재정보	110



06년 04월호(통444권호)

칼럼	세 개의 문(門)	장양순 16
건축만평		유원재 19
회원작품	봉화군청사	정현화+권태식 20
	책테마파크	송호상+김인수+임옥상 28
	광주디자인센터	한남수+오금열+정윤규 34
	유한상행 오창공장	양기림+박서영 · 전병직 40
	양진 초 · 중학교	이용선 46
작품노트	부산외국어대학교 남산동 캠퍼스	윤철준+오신욱 54
설계경기	제주벤처종합지원센터	60
기획연재	문화의 교류, 한국의 외국건축-3	윤인석 67
기고	국립대학 생활관 B사업 설계 참여 후기	이종훈 73
	생태전력원의 의미와 전망	김현수 80
	한국건축산업대전 -02	이규환 88
건축마당	협회소식	91
	건축계소식	98
	보고서	102
	건축인터넷정보	108
	통계	112
	해외잡지동향	115
	자재정보	119

06년 05월호(통445권호)

칼럼	건축학교(建築學校) 동원과 정부의 사업지원 정책지침	이외구 18
건축만평		유원재 21
시론	사람이 살 만한 아파트 마을	김조년 22
회원작품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한원호 · 허정행 · 지승선 26
	디지털 매직 스페이스	정영균 32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주정환+김정환+정현수 40
	서울 광진 우체국청사	채두병+심재호 46
작품노트	PROGRAM과 SURFACE	오성훈 52
계획작품	금강하이테크밸리	김동주+전영성 55
	중문파시픽랜드	김동주+전영성 61
	계남근린공원내 다목적체육관	노윤경 65
설계경기	서울시청사 증 · 개축 터키	67
	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 국제현상설계	77
기획연재	압제자들의 건축	윤인석 87
기고	전시회의 참가목적과 준비...	이규환 94
	훈데르트 바서의 환경과 건축	김석환 97
건축마당	협회소식	102
	건축계소식	106
	보고서	110
	건축인터넷정보	112
	통계	121
	해외잡지동향	123
	자재정보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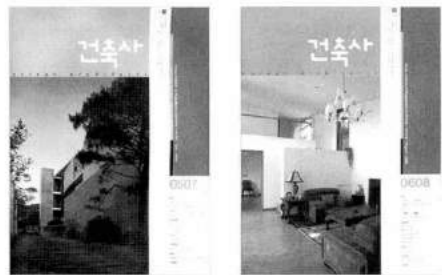
06년 06월호(통446권호)

칼럼	建築文化新聞의 창간과 建築士誌의 변화	장양순 16
시론	건축 사주학(四柱學)의 과학적 수립	박한규 18
건축만평		유원재 21
회원작품	목벌리 주택	임재용 22
	파주 청문각 사옥	박훈영 28
	건축물 안전성능 실험센터	한규봉 34
	양재 하이브랜드	이종찬 40
	대전 외삼중학교	조도연 46
계획작품	양평주택	이창훈 50
설계경기	하동군 보건소	54
기획연재	해방공간의 이데올로기(1)와 남 · 북건축	안창모 59
기고	제12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를 마치고...	고은영 67
	형성심리학(形成心理學)을 통해 건축 행위를 분석한다	이영창 70
	살바(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전망	김상병 73
건축마당	협회소식	76
	건축계소식	82
	건축인터넷정보	86
	법령	90
	보고서	108
	통계	110
	회원갤러리	112
	해외잡지동향	113
	자재정보	119

2006 Annual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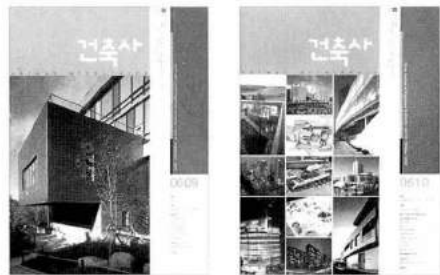
06년 07월호(통447권호)

칼럼	신문의 死後은 회원에게 달렸다	장양순	14
	- '건축문화신문'의 창간을 준비하며		
시론	현재의 내 모습이 미래에 모습을 형성하는 일그림	강성익	16
건축만평		유원재	19
회원작품	탄탄스토포리하우스	방철민	20
	대한애수고 장로회 송인교회	이충기	28
	삼성계재호텔	한종률	36
	배재학원	김진한	42
	미동산 생태관	김성민 · 홍사원	48
설계경기	서초 장애인 정보문화센터		54
	경상북도 학생종합문화회관		62
기획연재	서구건축문화의 이식통로	안창모	69
	- 원조프로그래머와 한국건축계 재편		
기고	평양 안과병원 설계 · 감리후기(上)	한규봉	78
	'한국건축의 종언노름' 사건전을 열며	김석환	85
건축마당	협회소식		88
	건축계소식		95
	건축인터넷정보		98
	법령		102
	통계		116
	건축사시험합격자공고		119
	해외잡지동향		121
	자재정보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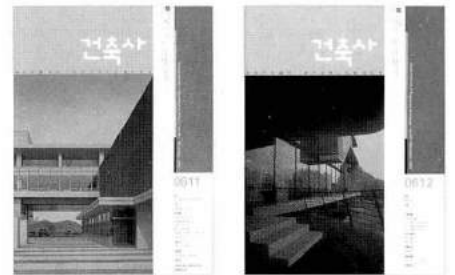
06년 08월호(통448권호)

칼럼	규제완화가 더 큰 화를 불러 온다	장양순	16
	- 건축물 유지 관리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시론	건축(建築)과 회화(繪畵)	김재관	18
	- 원근법의 형성과 해체에 의한 엮이기		
건축만평		유원재	21
회원작품	비움 I 일산주택6	임재용	22
	항원동산 산영두집	유원재	30
	성남 첨단기술 연구센터	김동주 · 전영성	36
	한국광고문화회관	김관중	44
	마래로 산부인과	안용대	50
작품노트	장교리 모자보건소	황영현	56
계획작품	두바이 스포츠시티 오피스타워	정영균 · 금두연	60
기획연재	타지를 위한 건축과 그 속의 우리건축	안창모	65
건축기행	제해연주건축회 대원 국제스포츠발전기	이준호	75
기고	건축의 해외진출을 위한 제안	김인환	79
	평양 안과병원 설계 · 감리후기(上)	한규봉	82
연구	새로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공원	김종식	89
건축마당	협회소식		98
	건축계소식		105
	건축인터넷정보		108
	통계		112
	해외잡지동향		114
	자재정보		119



06년 09월호(통449권호)

칼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장양순	16
시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와 건축법	정 권	18
건축만평		유원재	21
회원작품	보비스기념병원	손준익 · 김성환 · 김준경	22
	수원지검 안산지청	김동주 · 전영성	30
	김포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재진	34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노윤경	42
	하와이 한인가독교회	최동규	48
	부산지방보훈청사	정철수	52
현상설계	소말 현종화 기념관		56
	양산시국인체육센터 및 시립도서관		62
기획연재	세계로 열린 창·윙클릭과 도시 · 건축의 변화	안창모	71
연구	아파트 주동 입면 디자인 요소의 전환점	전한중	82
	디자인 우선순위를 분석에 관한 연구		
건축마당	협회소식		88
	건축계소식		95
	건축인터넷정보		98
	통계		104
	해외잡지동향		106
	자재정보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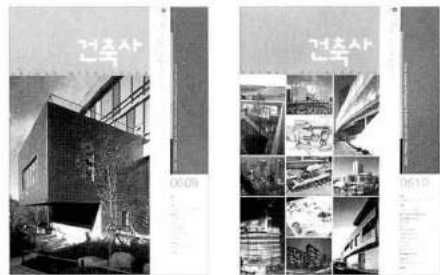


06년 10월호(통450권호)

칼럼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시상제도와 협회의 역할	장양순	12
시론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양해운	14
건축만평		유원재	16
특집	2006 한국건축문화대상		17
	준공건축물부문		
	대 상 청계천 문화관		36
	해송원		42
	솔빛 머금은 남쪽마을		44
	오름 · 목암리 주택		50
	본 상 전라북도 도청 및 의회청사		52
	(주)하이마트 사옥		58
	노은 리슈빌 II		64
	동신대학교 기숙사		70
	계획건축물부문 대상, 우수상, 특선		77
현상설계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 건설사업(터키)		90
기획연재	수직의 욕망	구영민	93
기고	소나무기행	김석환	101
	건축과 미술의 구름다리	이용환	105
건축마당	협회소식		108
	건축계소식		112
	건축인터넷정보		115
	통계		122
	해외잡지동향		124
	자재정보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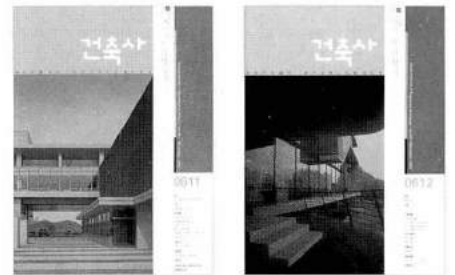
06년 11월호(통451권호)

칼럼	우리가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할 일	장양순	16
시론	건축물 이름에 대한 단상	신관섭	18
건축만평		유원재	21
회원작품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한형우	22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정현화	28
	무안백련지 수상유리온실	박동준	34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한현호 · 허정병 · 지승진	38
	한양대학교 안신캠퍼스 LG부품소재연구소	이강우	40
	연수 어린이 도서관	김경택 · 조병철	46
작품노트	능동로 10-A 프로젝트	이관직	52
계획작품	신호산업(주)이산공장	전병직	57
현상설계	철곡군립도서관		60
기획연재	애프터 오브 아메리카	구영민	67
건축기행	포탈리의 역사가 백두에 까지	김영수	78
	호주의 시드니에서	이상역	83
기고	건축사는 말 안하고 글만 쓰는 특권이 없다	최재인	88
건축마당	협회소식		92
	건축계소식		96
	건축인터넷정보		99
	2006년도 제2회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공고		107
	통계		112
	해외잡지동향		114
	자재정보		119



06년 12월호(통452권호)

칼럼	웹을 한 포대	장양순	14
시론	도시의 기억	김진송	16
건축만평		유원재	18
화보	본 협회 신축회관 준공식 및 건축문화신문 창간기념 송년 라벨전		19
회원작품	주식회사 피플웍스	안영제	22
	군산 자유무역지역 시설공사	지 순	28
	용인시 상현동 지예슬유치원	이규상 · 장기욱	34
	부산 지하철 3호선 구포역	김성민 · 홍사원	40
	청동현(靑銅峴)	김석환	46
	꼬마도깨비 어린이집	문석준	52
	밤배 한울타리	이창훈	58
작품노트	분당주택 I, II	임재돈	64
계획작품	천주교 미산교구 구산교육원	손기찬	68
현상설계	영남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관		72
	창동 어린이도서관		76
건축기행	상하이에서 본 것, 느낀 것	이관직	78
	상징적 건축물 수업을 중국 대륙을 느끼고 돌아오다	안영창	82
	중국, 비, 만남	오창은	86
기고	2006년 한국건축문화제 평가와 과제	류재경	90
건축마당	협회소식		97
	건축계소식		101
	건축인터넷정보		105
	통계		112
	해외잡지동향		114
	자재정보		119



건축마당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DOMUS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al Review
新建築

DOMUS

No. 897 11월호



Domus 11월호 표지는 기호의 중요성과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모색했던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대가 앨런 플레처(1931~2006)에 대한 오마주를 담고 있다. Richard Hollis와 Design Museum에서의 전시회 '앨런 플레처: 그래픽 작업에서의 50년'에서 큐레이터를 맡았던 Emily King의 글은 맨주먹으로 본인의 사무소를 열었던 1950년대에서 Phaidon의 디렉터로서 순수예술과 디자인, 건축과 사진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그의 관심과 작업들에 대한 단상을 제시하여 디자인을 소통을 문제로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 분투했던 거장의 치열한 삶을 보듬고 있다. 발랄함 속에



Alan Fletcher-graphic works

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의 작업은 위장과 은닉 속에서 깊이를 거부하는 최근의 디자인 경향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데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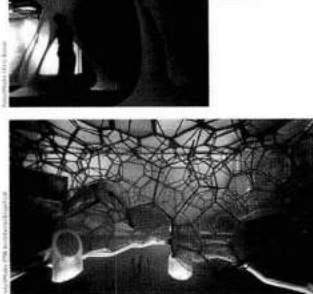
■ 전시회 : Chris Bosse/PTW

Architects - Digital Darwin

오랜 기간 동안 독일 건축사 크리스 보스는 컴퓨터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구조와 공간디자인의 결합을 통해 개성 있는 형태들을 시도해왔다. 그와 PTW architects 사무소는 2002년 베를린에 '버블 하이라이즈'를 제안한 이래, 이를 모티브로 이듬해 Arup, Ccd와 함께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수영장 디자인을 수행했다. 이 전시회는 스펀지나 산호초에 대한 미세 구조와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그의 'genetic architecture'에 대한 정황을 현재 진행형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의 가장 최근 작품은 에센에 있는 Paradise Pavilion으로 구조 전체가 17kg으로 부드러우면서 탄성을 가지고 있는 나일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물은 압축하여 중간크기정도의 가방에 넣고 운반할 수 있으며, 재구성되는데 한 시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



Sopra e a sinistra: Paradise Pavilion, in mostra a Essen. Sotto: Watercube, il nuovo National Swimming Centre di Pechino disegnato da Chris Bosse, PTW Architects, Arup e Ccd.



Chris Bosse-Paradise Pavilion+Water cube

■ 작품리뷰 :

SANAA- Glass Pavilion / Toledo, Ohio

많은 사람들에게 중세적 정취를 가진 마드리드 근처의 관광도시와 같은 이름을 가진 오하이오의 톨레도에서 세지마와 니지자와의 유리 파빌리온은 iron-free glass의 고투명성을 사용하여 주변의 환경과 더불어 한때 미국 유리산업의 메카였던 지역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현재 톨레도에서의 유리 산업은 쇠퇴했지만 가정에서 직접 공방을 운영하고 세미나가 진행되는 전통이 남아있어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이전에 있던 박물관의 공지를 전시공간과 두 개의 유리공방과 여러개의 워크샵으로 구성된 파빌리온이 계획되었다. 프레임이 없는 iron-free glass의 전폭적인 적용에서 비롯되는 열관련의 문제는 유리 파빌리온 안에 80cm의 완충 지역을 둔 또 다른 이중 유리 셀 안에 프로그램 넣음으로써 해결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미묘한 안과 밖, 건물 내외부의 연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SANAA- Glass Pavilion, Toledo, Ohio

OMA- Zollverein Kohlenwäsche/
Essen, Germany

1930년대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어진 석탄 채굴 복합시설이었던 Zollverein Kohlenwäsche(석탄 세척- coal washing) 공장은 원래 20년 정도의 사용기한을 예상하고 있었고, 광맥이 감소하자 자연스럽게

휴지기를 가지게 되었다. OMA의 리노베이션과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보존의 인증을 거치면서 대지는 대중에 거주자에게 열린 방문자 센터로 변모하였으며, 전시공간과 레스토랑을 갖춘 시설로 변모하였다. 이 건물은 원래가 사람이 아닌 석탄을 위한 거대한 기계장치의 일환으로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건물 내부에 산재하였다. 이를 위해 건축사는 채굴된 석탄이 이동하던 통로를 방문자를 위한 거대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강으로 된 주황색의 조명이 에스컬레이터 계단부와 측부에 있는 관형태의 진입구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진입한 후 같은 방식의 조명이 된 계단을 통해 이전에 석탄의 처리와 저장을 위한 시설이었던 전시공간과 레스토랑에 접근함으로써 건물의 역사적 의미를 체험적으로 드러내면서도 전통적 제스처에 타협하지 않는 디자인을 보이고 있다.



OMA- Zollverein Coal Washing Plant renovation

ARCHITECTURAL RECORD

11월호

Architectural Record 11월호는 '곡선의 형태'가 주요한 모티브로 인용되는 최근의 공공 시설들을 다루고 있으며, UN studio의 메르세데스 벤츠 뮤지엄과 Free University 도서관, 피닉스 대학 스타디



움, Badajoz 의회 센터가 대상 건축물로 선정되었다. 한편 비즈니스 위크지와 레코드지가 함께 선정한 Business Week/Record Award가 특집 기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빌딩 유형 연구에서는 독특한 장소성을 가지면서 지역 주민을 끌어들이자 생적 공적 영역을 구축하는 지역 시민 시설을 고찰하고 있는데, 노스 캐롤라이나의 Raleigh 지역의 Prairie Ridge Ecostation과 뉴욕 하이드 파크 내부의 Henry A. Wallace Visitor and Education Center, 텍사스 라운드마운틴의 Warren Skaaren Environmental Learning Center, 라스베이거스의 Old Las Vegas Mormon Fort Visitor Center를 살펴보고 있다.

■ 신간서적 리뷰

이번호는 건축이 건물을 만드는 것을 넘어, 도시와 사회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을 다룬 서적들이 소개되고 있다.

- The Design Like you Give a Damn : Architectural Response to Humanitarian Crisis, Edited by Cameron Sinclair and Kate Stohr. New York : Metropolis Books, 2006
- New Design Cities : Antwerpen, Glasgow, Lisboa, Montreal, Saint-Etienne, Stockholm, Times Square, under direction of Marie Josee Lacroix and with the participation of Francois Barre, Saskia Sassen, John Thackara, Commerce Design Montreal, 2006
- Design City Melbourne, by Leon

van Schaik, Wiley, 2006

- Victor Gruen : From Urban Shop
to New City, by Alex Wall, Actar,
2005

■ 제 9회 BW/AR Award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비즈니스 위크
지와 레코드의 건축상은 사업의 목적을 충
분히 인지하고 이를 지원하는 혁신적 디자인
을 발굴하는 작업이다. 수상작으로는
Bohlin Cywinski Jacson의 Apple Store
Fifth Avenue, Luce et Studio의 Nissan
Design America 건물, Teran/TBWA;
The Idea Factory의 Advertising Agency,
베니시의 Terrence Dnnelly Center와
Bloomberg 본부 건물, THS/PASD의
TreuHandStelle at Nordstern 건물,
Stubbins Associates의 Novatis Institutes
for Biomedical Research 건물이 선정되
었다.

뉴욕 맨하탄 5번가에 위치한 Apple
Store에서 건축사는 눈에 띄지 않는 소재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상권을 형성
시키고 있다. 이 건축물은 잘 사용되지 않던
선큰 광장을 리모델링을 통해 만든 것으로
하부의 상가들을 덮음으로써 한쪽 길이 32
피트의 정사각형 큐브가 가려진 공간으로의
관문이 도드라질수있게 되었다. 또한 덮인
공간의 일부만 유리 큐브가 차지함으로써
상부는 공적 광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별도의
강구조체 없이 타워트의 유리 파빌리온의
원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큐브의 하부에는
유리와 강관을 사용한 부유하는 느낌의 원형
계단이 자리하고 있다. 이 건축물은 소비자

가 브랜드를 경험하는 특별한 방식을 제안
하며, 브랜드의 힘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고 있다는 데에서 성공한 건축으로 판단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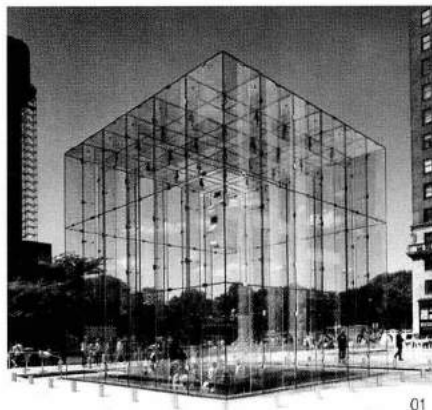
■ 작품리뷰

1990년대 후반 이후, 유클리드 기하학에
의존하지 않는 빌딩들이 컴퓨터 작업의 도움
으로 강과 티타늄, 알루미늄, 콘크리트, 심지어
벽돌 같은 소재들로 만들어 지고 있다. 창
조적인 구조 기술자와 건축사의 협업은 더
이상 경제적 상황에 기인한 제한된 소재의
대량생산된 재료들로부터 건축이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면서 곡선은 건물 형
태의 주요한 모티브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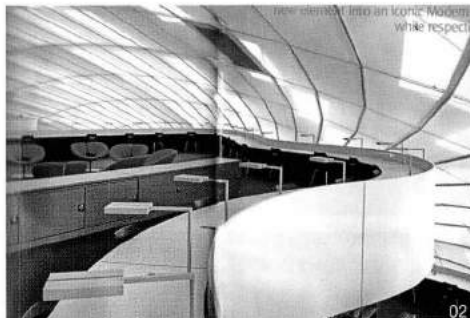
베를린 자유대학 도서관에서 노만 포스터
는 급진적으로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면서 컨
텍스트에 대한 섬세한 배려를 보여준다. 건
축사는 새로운 도서관을 이중 외피로 둘러쌌
는데, 내부의 막은 불투명한 유리섬유 패널
로 되어 있다. 이 유리 섬유는 독서나 모니터
를 보기에 장애가 없도록 일조광을 분산시키
면서도, 외부의 조망을 불수있도록 해준다.
건물의 외피는 투명한 유리 패널과 불투명한
알루미늄 패널이 교차되어 있는 형식을 취하
는데 유리 패널은 태양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배열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는 चे스판 무늬에서 벗어나 있다. 알루미늄
패널을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건물이 '숨
낼 수' 있도록 해준다. 이중 외피 디자인은
빌딩에서 자연환기로 60%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여 연간 35% 정도의 에너지 절감을
가능하게 했다. 도서관은 기존 자유대학 건
물의 중정에 위치하는 것으로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형태적으로 완화시키
는데 있어 상부로 갈수록 후퇴하는 만곡형의
단면이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 도서관 중
심부에는 대칭형의 콘크리트 코어가 있어서
열 보존체로 급격한 내부 온도 변화를 막고
있으며, 바닥에는 파이프를 통해 온수와 냉
수를 흘려 마치 온도를 응용한 것과 같은 방
식으로 온도 조절을 보조하고 있다. 이런 방
식은 기존의 난방 방식 보다 전체적인 공기
순환을 촉진하는 것으로 건물의 핵심이 공기
의 원활한 순환에 있음을 감지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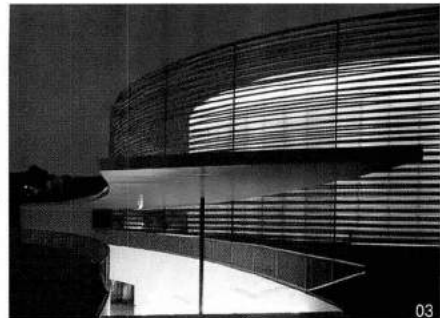
투우가 내부로는 인기를 잃고 외부로는
동물보호단체와 같은 단체로부터 강력히 비
난 받자 스페인은 국가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던 관광요소의 박탈과 남겨진 투우장의 용
도변경 요구에 직면했다. 바다호스 의회 센
터는 18세기에는 방어용 성채였다가 그후
투우장으로 사용되었던 다양한 역사를 가진
사이트에 자리잡고 있다. 디자인을 맡은
Selgascano의 Jose Selgas와 Lucia Cano
는 이전에 있었던 투우장을 연상하게 하는
집중적인 볼륨을 불투명한 플라스틱 소재로
환기하고 있다. 곡선형의 96피트 길이인 캔
틸레버방식의 캐노피는 오티토리움 로비로
내려가는 진입구 상부를 드리우고 있는데,
캐노피 하부의 붉은 색은 투우사의 망토를
떠올리게 한다. 외부의 불규칙한 간격을 가
지고 있는 실린더 형태의 율타리에는 폴리에
스터 레진 소재의 튜브가 사용되었는데, 밤
이면 빛을 내는 내부의 드럼형태의 본 건물
과 어우러져 그 사이 공간에 낮과 밤이 서로
를 환기시키는 빛과 그림자의 완충 지역을
조성하고 있다. 건물 매스의 통일성을 완벽
히 승계하고 있는 입구는 외벽의 일부가 회



01



02



03

01_ Bohlin Cywinski Jacson- Apple Store Fifth Avenue
02_ Norman Foster- Free University
03_ selgascano- Badajoz Congress Center, Spain

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진입시 벽의 단면 구조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외벽은 Plexiglas의 불투명한 튜브가 원형으로 둘러싼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 튜브들은 주간에는 일조광의 산란을 야간에는 그 자체가 조명이 되어 건물의 일조 문제와 외부 조명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캐노피에서의 붉은 색의 사용은 내부에서도 천정과 바닥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데, 다소 답답한 소재인 유리와 콘크리트를 활기 있게 포섭하고 있다.

ARCHITECTURAL REVIEW

11월호



최근의 건축사들은 '패턴, 색채, 감싸는 형태(wrapping form)' 등을 사용하여 모더니스트들이 '제멋대로의 장식, 꾸밈, 혹은 파사디즘'이라고 일컬었던 것들의 복권을 시도하고 있다. '장식의 기능'이라고 명명된 파사드 무사비(FOA)와 하버드 학생들과의 스튜디오 작업을 정리한, 근일 내에 출판될 서적의 이름은 표면의 변화된 위상을 실감하게 한다. Architectural Review 2006년 11월호의 주된 관심은 기능주의가 간과한 표면에서 형성되는 의미의 양상과 매커니즘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무사비가 '여백의 유형학(blank typology)'이라고 지적하였듯, 모더니즘 안에서도 이미 표면은 나름의 의미를 형성해왔다. 루이스 설리반이 오피스 건물의

창문을 드러내는 방식과, 미스가 시그렐 빌딩에서 시각적 효과를 위해 수직 멀리언을 사용하는 방식은 각각 고유의 조건들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렇다면 물개성의 균질화된 우리의 도시에서 우리가 머무는 공간의 표면은 오브젝트의 건축을 넘어 어떤 '기능'을 가져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유의미한 과정이 될 것이다.

■ comment

완벽한 스킨 by Brian Carter

이번호의 브라이언 카터의 에세이는 지난 두 달간의 찰스 쟁크스와 관련된 논쟁을 중지하고 다시금 선정 작품의 이해를 위한 로드맵으로 자신의 위치를 잡아가고 있다. 브라이언 카터는 신체를 덮고 있는 피부와 건물의 표면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사해지는 상황을 성형수술과 화장품, 문신과 같은 장식의 차원에서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 포스트 모던에서 최근의 건축이 취하는 동일한 상황에 대한 상이한 태도가 파사드에서 스킨으로 옮겨오는 인식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가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형상을 규정하고, 성격을 구축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게 될 건축의 스킨이 과거 메타볼리즘에서 보이는 낭만주의와는 다른 점은 최근의 경향이 현실에서의 진화를 의미하기 때문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 작품리뷰

스킨을 다루는데 있어 가장 주요한 것이 재료의 선택일 것이다. 이번호에 선정된 작품은 벽과 천정과 바닥을 구성하는 재료를 가지고 독특한 정서가 묻어나는 공간을 만들어 낸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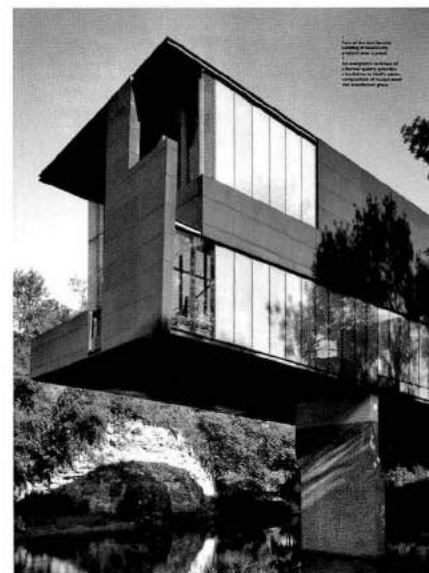
에두아르 프랑수아의 프랑스의 주거 계획안은 콘크리트로 된 건물 외부에 가공이전 목재의 외형적 특성이 남겨져 있는 통나무 막대로 노출콘크리트 조의 건물을 둘러싸고 있다. 마치 손으로 그린 스케치와 같은 구불구불한 직선의 부재는 건축물의 내외부에 있어 경계를 흐트리는 동시에 목재의 부드러운 느낌을 이용하여 '낮선 친숙함'을 만들어 놓고 있다.

Bohlin Cywinski Jackson이 디자인한 펜실베이니아의 환경 교육센터에서 재생타이어가 벽면을 구성하고 있으며, Bifrost에서 Studio Granda가 디자인한 비즈니스 스쿨은 스킨이 일종의 기호로 지역적 상황과 조응하고 있다.



Edouard Francois- Housing, m France

스티븐 홀의 가장 최근 작품인 아이오와 대학의 예술 및 예술사 대학 건물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코르텐 강을 사용하여 디자인과 시공, 자연과 건축, 그리고 예술과 건축 사이에서 일어나는 '애매한 경계'의 순간들을 잡아내어 형태없는(formless) 건축을 이루어 내고 있다. 코르텐강과 유리로 '둘러싸



Steven Holl-School of Art and Art History, Iowa, USA

는' 방식으로 매스를 분해하고 중력의 조절을 보여주고 있다. 이 건물은 연못위에 떠있는 남쪽의 익부와 땅에 자리잡고 있는 북쪽의 익부 사이에 오픈 스페이스가 자리잡고 있는데, 연못 쪽으로 드라마틱한 투사를 보여준다. 이 뒤쪽에 보이는 돌산부분은 흙의 미묘한 건축적 호흡이 자연배경과 연계되는 순간을 연출한다. 한편 북쪽 입면은 규격화된 모듈을 보여주고 있으며, 불투명한 유리나 투명한 유리를 같이 사용하여 기존의 캠퍼스와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 건물의 중심에는 다이내믹한 형태의 계단이 있는 보이드가 있는데, 사교적 공간적 압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벤트들을 만들어내는 기회들을 창출하고 있다.

상하이에서 쿠마 켄고가 총타이 조명화사를 위한 디자인은 위조와 모조품이 횡행하는 지역의 중심에서 아시아적 독창성을 보이고 있다. 건축물은 상하이에서는 드문 녹지위에 기본 좋게 자리잡고 있으며, 건물의 정면인 남쪽 파사드는 반사재질인 알루미늄을 사용한 담쟁이 덩굴을 위한 화분기능을 하여 시각적 변화감과 착시를 유도하면서 다소 매시브한 건물의 규모를 분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분산은 돌출 처리가 되고 있는 서쪽 파사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건물의 정면으로 진입하면 벽을 따라 잔잔히 흐르는 폭포의 처리와 정면의 담쟁이 벽 사이에 수공간을 두어 정적인 느낌을 극대화 하고 있다. 이



Kengo Kuma-Ahongtai HQ, China

런 드라마틱한 성격은 최상층의 펜트하우스에서도 연속적으로 보여지는데, 루버처리된 천정을 통해 매스감을 줄이면서 빛에 의한 공간의 가변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기능적으로도 놀이공간과 업무공간의 흥미로운 결합을 보이고 있다.

(글/김훈/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인천 전문대 출강)

新建築

11월호



이번 호에는 쥘페레인 광산의 리노베이션 지구 안에 신축된 쥘페레인 경영·미술 학교가 표지사진을 장식하며 소개되었고, 특집으로는 '목질건축의 현재'의 2회분이 구성되었다. 독일 에센 지역의 쥘페레인 광산은 근대기 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OMA에서 광산 건물들의 리노베이션을 맡아 관심이 집중되었던 곳이다. 이번 호에서는 쥘페레인에 신축된 경영·미술학교와 함께 쥘페레인 광산의 리노베이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 쥘페레인 경영·미술 학교[세지마카즈오 +니시자와 료에 (SANAA) 설계]

쥘페레인 스쿨 오브 매니지먼트 앤 디자인은 독일 에센에 만들어진 디자인과 매니지먼트 학교이다. 에센의 시가지에는 쥘페레인이라는 탄광으로 유명했던 공업지대가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 일대는 현재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디자인학교는 쥘페레인 일대에서 구석에 위치한다. 쥘페레인에는 탄광을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으며, 이들은 휴먼스케일을 넘어서 매우 인상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쥘페레인 탄광 건물에 대한 리노베이션은 OMA의 설계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이와 같은 풍경 속에 서게 되는 건물로서 SANAA는 한 번이 35m내외인 거의 정육면체에 가까운 볼륨을 제안하여 거대한 볼륨들이 늘어서 있는 이 일대의 풍경에 연속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또한 부지가 시가지의 일반도로에 면해있다는 점에서 건물이 이 일대의 엔터런스 게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랜드마크적 성격을 강하게 갖길 원했던 것이다.

공간구성은 엔터런스나 스튜디오, 도서관, 오피스 등 천정고가 서로 다른 공간들이 수직으로 쌓여져 있고, 3개의 코어가 이들을 연결해주는 형식이다.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외장에는 지열을 이용한 액티브 인슐레이션(단열용 냉·온수 파이프가 벽체에 매설된 동적 단열 시스템)을 채용하여 단열재가 없는 콘크리트 단일 레이어로만 구성된 건물을 실현시켰다. 채광을 위해 창은 실내의 프로그램 배치, 외부에서 보이는 풍경 등에 의해 위치가 정해졌으며, 밝은 장소나 상당히 어두운 장소 등 여러 가지 밝기의 장소를 실내에 만들어으로써 다양한 활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집 ; 목질건축의 현재2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목조건축을 가장 주된 건축적 전통으로 가진 일본의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다. 일본의 주택건축에서 전통목구조 보다는 2×4공법이 주류가 되어있지만, 1980년대 구미로부터 대규모 목조기술이 도입된 이래, 국내의 연구를 거쳐 이제는 목조기술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을 넘어서는 위치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일본의 대규모 목조기술은 이차대전 이후 1980년대 이전까지 공백기를 갖는다. 1980년대 연구와 실천의 성과에 의해 발전한 대규모 목조기술은 3가지 흐름의 집약에 의한 것으로, 그것은 프리페브리케이션의 도입, 공업

목제품(엔지니어 우드)의 출현, 그리고 다종 다양한 목제품에 대한 단일기술로의 통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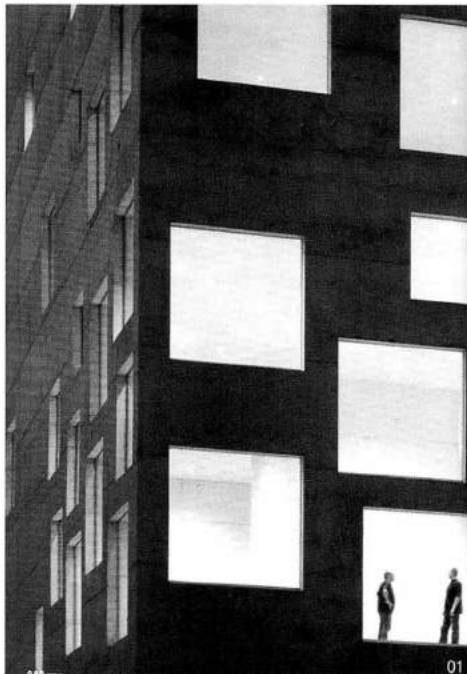
‘목조건축의 매력과 가능성’이라는 특집 논문을 기고한 스기모토 히로후미(杉本洋文)교수는 목조건축은 가구(架構)시스템전체가 열쇄가 되어 개별요소에서 접근한다면 이제까지의 목조건축이 지니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가구시스템은 부분에서 전체를 생각하는 편이 여러 개의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새로운 방

향성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구(新舊)의 목조건축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 기술적인 실패에 대한 경험을 쌓아가며 완성되어 가는 것으로, 시대배경을 배려하고 경험가치를 살리며, 다방면에 걸친 도전과 혁신의 시험대를 거쳐야만 차세대에 살아남는 목조건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히로후미 교수는 결론내리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목조건축은 시대를 비춰내는 거울이기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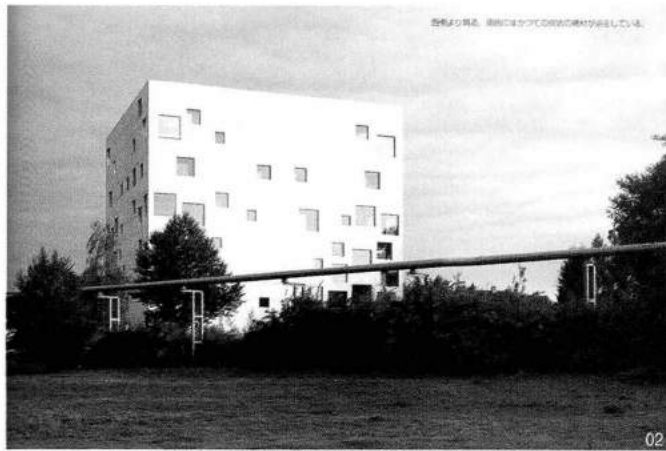
‘목질건축의 현재’라는 제목의 두 번째 꾸

밌임 이번 특집은 스기모토의 특집논문 외에 스기모토 자신이 설계한 ‘시오바라운천 유포노 사토’, 시일라칸스 K&H가 설계한 ‘사츠키 유치원’, 야다 야스요리가 설계한 ‘미나미카타 쿠나구스 아카이브’, 오카다 사토시 등이 설계한 ‘타이산지 풍화의 언덕(농촌 커뮤니티 센터)’, PHIFRAME이 설계한 ‘FLAMME-IGA COMPLEX’ 등의 목재를 이용한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강상훈/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圖



01



02



03



04



05

01, 02, 03. 풀페라인
경영·미술 학교
04. 스기모토 자신이 설계한
‘시오바라운천 유포노 사토’
05. PHIFRAME이 설계한
‘FLAMME-IGA COMPL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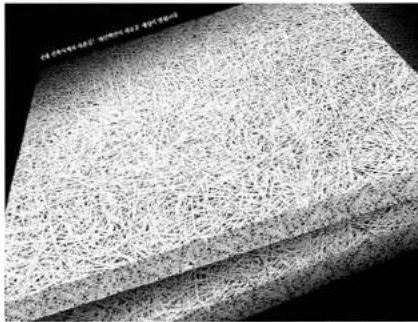
건축마당

자재정보

Product Information

준 불연의 친환경 흡음 마감재

새집증후군 예방하는 최우수 천연소재



(주)엘씨엠의 소나무 원목으로 만든 PineTek(파인텍)은 국산 목 모보드의 대명사로 장점은 우선 친환경제품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HCHO) 방출량이 0.001mg/m2h로 친환경 자재 최우수 등급기준(0.03mg/m2h)보다 훨씬 더 뛰어난 최고의 천연소재로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 흡음과 동시에 단열효과를 누릴 수 있어 실내 소음을 방지할 수 있고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 가능한 기능성 재료이다. 특히 준불연마감재로 화재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강하여(난연2급) 화재 발생시 불꽃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활용처_ 단열/흡음 천장재, 경량간막이, 내.외부 벽체, 샌드위치 패널, 방음벽, 바닥재, 외장패널, 일체형 거푸집
- 규격_ 600*600, 600*1200, 600*2400
- 두께_ 15t, 20t, 25t (35t 이상은 주문사항)

인도(人道)의 바닥장판 e-Basalt를 체험하세요!

시각디자인인 외부 바닥마감재-인조현무암(조달청 우수제품)



(주)신한ECO에서 생산하는 인조현무암 바닥재는 자연현무암의 부드러운 모양과 중후한 질감 등의 특징을 자연 그대로 표현하며, 다양한 모양으로 시각디자인되어 있어 시공 후 완벽한 자연현무암의 느낌보다 더욱 한층 부드럽게 느낄 수 있다.

특징은 다양한 시각디자인이 되어 있어 거리의 편안한 느낌은 물론 눈, 비에도 미끄럽지 않으며, 자연현무암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시공이 간편하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크기 및 디자인이 생산 가능하며 건축물이나 조경에 맞게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주)엘씨엠

Tel_ 02-2059-0800 | www.lcmkorea.com

(주)신한ECO

Tel_ 064-799-7400 | www.hyunmustone.co.kr

SLAB공사에 SUPPORT가 없다?

'SPANCRETE'를 이용한 None Support공법



'SPANCRETE'라는 후판(厚板)의 대형 Hollow Core Panel은 고강도의 Concrete제품(40Mpa)으로서 대형 SPAN의 SLAB용으로 적합하여 공간활용에 매우 유리하고, PC강선이 Pretension된 제품이므로 중간 지주(支柱)없이 상부작업이 가능한 특화제품이다.

• SPANCRETE란?

미리 당겨진 PC강선위에 자동성형기(Extruder)에 의하여 1.0m 또는 1.2m의 규격화된 폭으로 길이 180m씩 생산되는 속빈콘크리트 패널(Hollow Core Panel)을 말한다.

PC강선의 인장력과 고강도 콘크리트의 압축력에 의하여 높은 강도를 가지며 길이는 필요에 따라 절단 사용 할 수 있다.

• SPANCRETE SLAB 적용사례

- 공공시설_ 인천공항여객터미널
- 체육시설_ 전주월드컵경기장, 광명경륜경기장
- 대형판매시설_ 양재동 하이브랜드
- 물류 및 냉동창고_ 용인 SLS 물류센터, 서이천냉동창고
- 각종 공장_ 부천 APT형 공장, 인쇄공장(교회사, 영림인쇄)
- 주차장_ 건설서관 옥외주차장, 강남자동차 매매센터 전시장

강남진영(주)

Tel_ 02-580-6150~5 | www.kngy.co.kr

원목 창호 마감재 '루버셔터'

슬랫 조정 간편하고 사생활보호 등 다용도로 사용



루버셔터는 창호마감재로서 기존의 고정식 쉼터리 도어와는 달리 슬랫이 움직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의 간단한 조작으로 개폐 및 좌우 이동이 용이하며 슬랫의 조절만으로 사생활보호, 빛의 양과 각도의 조절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 파티션이나 모든 도어의 역할을 겸하므로 창문외에 베란다, 파티션등 여타 모든 부분에도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요즘 인테리어를 함에 있어 환경친화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원목을 소재로 사용하는것도 루버셔터의 장점으로 들 수 있다.

(주)루버셔터

Tel_ 02-448-3533

※자재정보 원고모집

건축사 회원과 우수한 건축자재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재사용결과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_ gods@kima.or.kr

• 원고내용

- 사진1컷(300dpi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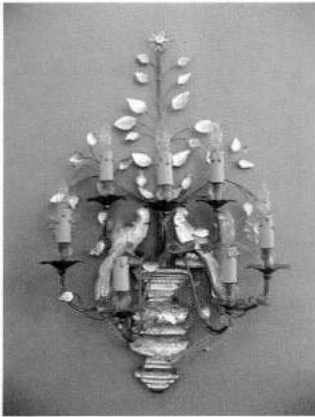
- 제품정보(원고지 3매 이내)

- 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기재

Watts 조명

"You don't know what you are missing."



2002년 4월에 오픈하여 한국 조명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한 Watts. 이제 한국에서 Watts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조명을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방대한 컬렉션은 단일 매장으로 세계 최대이며, 트렌드와 무관하게 엄선하여 유럽, 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은 격이나 품질이 특별하다.

직영공장 운영으로 신속한 최고품질의 맞춤제작이 가능한 곳 또한 Watts이다.

아직도 Watts 방문전이라면, "You don't know what you are missing!"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모르시는군요)

Watts 조명

Tel_02-517-3082 | www.wattslighting.com

대한민국 최초의 옥상녹화 전문기업

A.R.T Greening System(지관리 보급형 옥상녹화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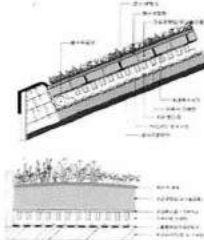


특징

- 평, 경사, 돔형 등 모든 옥상 및 콘크리트, 목재, STEEL 등 어떤 지붕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공 지반 녹화 시스템
- 자연 빗물을 담수 할 수 있는 저·배수 단열판을 바탕으로 한 옥상녹화 시스템
- 단열, 방수, 급수, 배수, 토양, 식재를 일원화한 옥상녹화 토 말 시스템
- 경사지붕녹화 시스템 보유(경사도 45도 시공가능)

장점

- 자연빗물을 활용, 별도의 급수 불필요(경량형)
- 저배수 단열판 설치로 단열 및 보온효과 증대
- 최적토심(10cm)으로 식재가능
- 방수층의 누름물탈출 생략으로 하중부담 감소
- 정원 유지관리 부담의 최소화
- 자연화산석 멀칭으로 토양의 비산 및 집중 호우시의 쓸림방지



도시의 초록벽을 꿈꾼다

친환경 벽면 녹화 시스템 - 그린메쉬웨이프



'그린메쉬웨이프'는 건축구조물의 높은 수직벽면을 녹화시키는 친환경적인 벽면녹화 시스템으로서 삭막한 콘크리트벽, 회색의 벽면을 녹음으로 차폐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 시킬 뿐 아니라 건축물 표면의 복사열을 감소시켜 도시기후의 조절에 도움을 주며, 산성비와 자외선으로부터 건축물 표면을 보호, 도로의 탈색과 표면균열을 방지하며 휴작력이 큰 덩굴식물은 건축물을 보강하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의 율림현상을 방지하는 효과, 각종 오염물질의 정화, 프라이버시의 확보와 우수 및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시스템으로 단예쉬웨이프, 이중메쉬웨이프 등 다양한 형태로 입체감 있는 시공이 가능하다.

한국씨씨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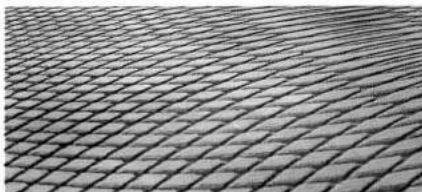
Tel_02-571-8311 | www.ccrkorea.co.kr

(주)한설그린

Tel_02-3411-0898 | www.hgreen.com

월빙 석재품 "물 다듬"

디자인시대 - 이제는 석재도 달라져야 한다!



2004년 부산 경향하우징페어를 비롯, MBC 건축박람회 등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물 다듬 공법은 고압수를 이용, 석재표면에 다양한 무늬를 디자인 할 수 있는 최첨단 고급기술이다.

물 다듬 공법을 이용한 제품은 석재 디자인의 폭을 넓혔으며, 미끄럼 방지 효과가 탁월하다.

(외부 바닥용으로, 보도용으로 현재 천연석재 가공법 중 가장 우수함) 또한 발 지압 효과도 있어 헬빙 시대에 맞는 기능성제품 이기도하며, 화장석을 비롯 대리석 표면에 까지 가공이 가능하여 인테리어 용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제품의 특성

- 물다듬무늬 종류
 - 빗살무늬, 입체무늬, 미소무늬, 벽화무늬, 산수화무늬 등
- 기능
 - 미끄럼방지, 발 지압 효과
 - 조정시설의 훌륭한 연출, 음 양각 효과로 자연미 연출
 - 벽체, 실내의 인테리어에 새로운 질감표현
- 제품의 용도
 - 내, 외장용, 인도포장, 광장바닥
 - 승강장 연단석, 수영장, 목욕탕
 - 미끄럼방지용 석재(물 다듬 빗살 계단 판석)

(주)초석석재산업

Tel_063-858-6527~8 | www.cho-suk.co.kr

지하에서도 친환경 일광욕이 가능하다고!

태양광 에너지를 최대한 손실없이 사용-자연채광시스템



Natural Sunlight는 인간 및 동식물에 있어 성장과 생활 리듬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로서, 자연채광 시스템 'SUNLIGHT'는 대체에너지 중 가장 효율성이 높은 태양광의 에너지를 최대한 손실 없이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도시 내의 건물의 고층화 및 집약화 되는 지역 내에서 최근 부각되는 일일 일조권 문제는 위 시스템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계기의 하나이기도 하다. 본사 자연채광 시스템은 일조권이 불리한 건물의 음지나 지하 내 식물재배 공간, 휴식 및 치유 공간 등에 태양빛을 광케이블 및 집광장치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다.

부가기치 분석 : 1.일사조건이 불리한 실내 및 지하에서도 일광욕이 가능하다. 2.친환경적인 무해성 에너지 3.연색성 4.식물재배 및 자연환경조성

용도 : 1.건축물 및 시설물의 채광 2.일광욕 3.천연색을 필요로 하는 특수 공간 4. 식물재배 및 자연환경 조성

주식회사 휠 코리아

Tel_02-3444-0002 | http://www.whilkor.com

켜쌓기는 가라! 한판씩 붙이면 끝!

공사기관과 시공비를 10배 절감!-타이거 석재



타이거 석재는 간편한 시공으로 공사기간 및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슬레이트 제품이 선보여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타이거 석재가 개발한 슬레이트 제품은 기존 석재를 켜쌓기로 쌓아 올리던 방식의 공정을 대폭 축소시켜주는 제품으로, 슬레이트 패널의 경우 예폭시를 사용해 석재끼리 정교하게 붙여 1차 가공을 끝낸 상태에서 610mm×152mm의 크기로 만들어 한판씩 벽에 붙이기만 하면 간단하게 기존 켜쌓기 보다 훨씬 정교하고 깔끔하게 작업이 끝난다.

슬레이트 매트와 매트 플라스틱 매쉬 위에 부장형으로 패턴을 만들어 붙여 놓은 상태로(매트 → 6~7조각) 간단히 1매트씩 시멘트 몰탈 위에 올려주면 시공이 마무리 된다.

공사기간 및 시공비를 10배 가량 절감시켜주기 때문에 이미 건설사 현장(현대, SK, 대림, 삼성물산, 현대, 에버랜드, 효성)에 적용이 끝난 상태이다.

타이거 석재의 모든 슬레이트 패널과 매트제품은 실용신안특허, 디자인 등록을 마치고 중국 현지공장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고품질관리와 최저단가 납품을 시행하고 있다.

(주)타이거 석재

Tel_031-967-7259